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오핑몰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30일 수요일(주간) 제393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법륜스님의 求法여행

"세상에 저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스님이 수행은 언제 할까?"

하루 평균 두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법륜(정토회 지도법사) 스님. 눈을 뜨고 있는 시간에는 북한돕기(좋은벗들), 제3세계 난민돕기(UTS), 불교환경교육(불교환경교육원), 깨달음의 심성수련(정토수련원), 우리 고대사 복원하기, 불교 교육(8개 정토법당) 등의 일들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법륜스님을 보면 자연 이런 의문이 든다.

그러나 모든 일들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몰두하는 것이 법륜 스님과 정토회의 주된 수행방법이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보살', '일과 수행의 통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고요함만 찾는 것은 반토막 수행'일 뿐이다.

법륜 스님은 올초 정토회 대표직을 그만두고 행정일선에서 벗어나 정토회 지도법사로서 수행부문에 주력하고 있다. '준출가자'나 다름없는 50여 정토회 간사들과 3000여 회원들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지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스님은 매년 봄 가을, 만사를 제쳐놓고 국내 8개 정토법당과 미국, 독일, 인도 등지의 8개 지원으로 순회 강연을 계속해 왔다.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수행과 깨달음의 길'이란 주제로 근본불교 및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이후 인도 보드가야에 불교 명상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등 주요 불교성지에 수행센터를 세워 인도 전법에 원력을 쏟기로 한 것도 NGO 활동과 수행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스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 3때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긴 뭐가 바빠?"란 은사 도문(대각사 조실) 스님의 호령을 듣고, 불교에 눈뜬 후 법륜 스님이 걸어온 치열한 구법(求法) 여행은 수행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김재경(취재2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일양: 055)353-1196

지방국 5개 더 있어야 난청 해소

1일 춘천불교방송 개국, 기존 방송국 출력 증강 필요

불교방송이 전국가청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의 지방국이 더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월 1일 춘천불교방송(사장 오현 스님)이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 이어 다섯번째 지방국으로 개국했다. 이로써 강원 영서지역을 가청권으로 확보했지만 강릉 속초 등 영동지역은 중계소 설치 없이는 불교방송을 들을 수 없다. 춘천불교방송은 개국 후 영동지역 중계소 설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국의 경우 재원과 인허가, 운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중계소 확장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은 11월 초 전국 5개 지방국의 중계소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불교방송이 전국 가청권 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주요지역에 지방국을 설립하고 중계소 운영을 통해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불교방송의 출력은 5㎾지만 다른 지역은 3㎾에 불과하다. 중계소 운영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렇게 볼 때 기존 지방국의 꾸준한 출력 증강과 전주, 제주, 목포·여수·진주, 포항, 안동 등지의 지방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BS 기독교방송의 경우 개국 준비 중인 울산을 포함해 13개 지역국에 5개의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톨릭 방송인 PBC 평화방송의 경우 7개 지역국이 가동되고 있다.

박시하 불교방송 기술부장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방송이 지난해 영동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13개 지역국을 가지게 된 만큼 우리도 최소 10개 정도의 지역국은 있어야 전국적인 방송이 될 수 있다"며 "재원 문제 등도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방송망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의 지방국 허가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왔다.

올 12월 대통령선거에서도 후보들이 불교방송의 지방국 추가 허가를 주된 불교계 공약으로 내세울지 주목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부처님 사진 들고 기뻐하는 인도 불자들 한국 불교계가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위해 재가연대, 정토회, 한국불교법사회 등 인도불교 지원팀은 18~20일 석가족이 사는 지역 9곳을 순례했다. 20일 인도 우따 쁘라데시주 칸노즈 빠레푸르 지역 법회에서 어린이들을 비롯 주민들이 법사회가 기증한 부처님 사진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남동우 기자

천태종립 금강대 11월 7일 준공

5개 전공분야 100명 모집, 내년 3월 개교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는 11월 7일 오전 10시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학교현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내년 3월 개교에 따른 학사일정 준비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날 준공식을 갖는 금강대는 대지 3만5천여평 부지에 건평 3천7백여평 규모의 강의동과 기숙사를 갖추게 된다. 강의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학교 본부와 강의실, 교수 연구실, 도서관 등이 들어서며,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 2동은 독서실, 헬스장 등 학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하게 된다.

금강대는 지난 6월 초대 총장으로 박봉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빙하고, 9명의 교수진도 확보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금강대는 개교 첫 해에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학·일어학·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분야에 총 100명(전공별 20명씩)의 학생을 선발한다. 김철우 기자

전계대화상 보성스님 추천

조계종 원로회의, 사무처장에 광조스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도원)는 25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19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전계대화상에 추천했다. 전계대화상은 스님을 배출하는 계단(戒壇)을 관장하는 최고 어른으로, 원로회의에서 추천하고 종정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전계대화상 추천은 현 전계대화상인 법룡스님의 입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보성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 출생으로, 19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 조계종립 제5대 방장에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조계종 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진제스님(해운정사 조실)의 원로의원 선출 건은 보류됐다. 원로의원들은 조계종과 선학원 간의 완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제스님이 선학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원로회는 사무처장에 광조스님(종회의원)을 임명했다. 또 지난해 9월 151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됐던 원로의원 선출 방식 등의 종헌개정안은 12대 종회가 종료돼 자동폐기됨에 따라 원로회의는 종회에 상정됐던 개정안을 재검토한 뒤 13대 중앙종회 집행부와 접촉해 다시 상정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정보화 협의회 창립 11월 5일

인프라 구축·유용한 콘텐츠 개발·보급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11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종단과 단체들의 의지가 모아진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난 6월부터 20여 종단과 단체 실무자들이 창립을 준비 해 온 정보화협의회는 전법과 수행, 문화, 산업, 교육 등 제반 분야의 정보화 방안을 제시하고 불교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유용한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바탕으로 하는 광범위한 공익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 IT업계의 경영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단 등을 결성해 불교계 정보화 발전의 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각종단과 단체 대표 및 불자의원, 불교계에 관심을 가진 IT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게 되는 이날 법회는 KT와 (주)애플웨어 정보통신이 협찬하며 '불교계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한 건의문'도 발표된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선거

128명 등록…1.58대 1 경쟁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23일 마감됐다.

등록마감결과 전체 종회의원 81명 정원에 모두 128명(비구니 대표 10명 포함)이 등록 1.5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직능직 종회의원의 경우 20명 선출에 31명이 등록, 1.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직선직의 경우는 51명 정원에 87명이 후보로 나서 1.7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7명이 입후보한 동화사로 나타났다.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은 27일, 직선직 종회의원 선거는 31일 각각 실시된다. (입후보자 명단 3면) 한명우 기자

국제 무차선대회 지상중계 20~21면



사 설

무차선회를 활성화하자

"어떤 것이 향상(向上)의 진리입니까?" "만리에 백골(白骨)이 즐비함이로다". 이상은 지난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무차선회에서 벌어졌던 법거량 내용이다. 선의 과격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번대회를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의 정혜스님. 무차선회의 전통이 사라진 중국불교계의 현실에서 선어록에서나 짐작했던 무차선회가 한국에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에 가까웠다는 고백이다.

중국에서는 법의 보편성, 법의 공유성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무차법회가 시작되었다. 양나라 대통원년인 527년의 일이다. 이것이 선종의 발전과 함께 무차선회로 계승되었다. 우리나라는 20여년전까지 선원에서 안거가 끝날 무렵에 혹은 특별한 장소와 기일을 정하여 시행되어 왔다.

이번처럼 규모가 큰 무차선회는 98년도에 전남 장성의 백양사에서 서옹큰스님의 주도로 개최되었다. 금년이 3회인 셈. 그러나 금년을 끝으로 국제무차대회는 사라질 형편이다. 비용을 비롯해 제반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함께 어울려 법거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어려워 훌륭한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선원을 중심으로 무차선회의 전통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승속이 어울릴 수 있는 대규모 무차선회는 종단 차원에서 기획하면 가능하다. 훌륭한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애정을 지녀야 한다.

복지참여는 시대적 요청

불교계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보다 총141개소의 시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괄목할 사항은 복지시설이 다방면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불교계가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복지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역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던 사찰이 사회적 환원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종교적 권위로 군림하려는 종교를 원하지 않고 있다. 사찰과 신도, 내지 지역사회와 사찰이 긴밀한 유대 속에서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찰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안 된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가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속을 막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교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불교계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나 근로자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들이 미래의 한국역사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이나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불교계가 그들과 호흡을 보다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마당을 만들도록 사부대중이 노력해야만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승복 모자 신발 가방도 통일

조계종 스님 의제 통일화 일환, 고급화 풍토 개선

의제 재질 모직물등 동물성 섬유 금지

여름엔 밀짚모자…가죽신·등산화 안돼

승복을 포함한 스님들의 의제 전반에 대한 통일화 작업이 진행된다.

그동안 가사 통일화 작업을 벌여 온 조계종 법계위원회 산하 의제실무연구회(의장 종진)는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제4차 회의에서 승가의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세부안을 마련해 법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승복과 모자, 신발, 가방 등 스님들이 일상에서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의제의 재질과 허용범위.

우선 의제실무연구회는 모든 의제의 재질에 견직물이나 모직물 등 동물성 섬유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는 풍토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자의 경우 여름용으로는 밀짚모자, 겨울용으로는 합성섬유로 된 방한모로 제한하고, 색상도 재색으로 통일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가방도 걸망이나 손가방 이외에 다른 형태의 가방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재질도 무명이나 광목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신발의 경우 수행 시에는 고무신, 만행(작업)시에는 운동화계통의 지정된 신발을 신도록 하고, 가죽신이나 등산화 등은 신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 11월 한 달간 자료조사를 벌인 뒤 12월11일 5차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종진스님은 "승복에 대한 원칙이 없어 승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많은 스님들이 의제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제실무연구회는 지난달 법계위원회에서 의결됐던 가사 휘장과 관련해 일부 법계의 색상을 조정하고, 휘장에 법계 호칭을 넣는 문제는 시제품을 만들어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바뀐 가사 휘장의 색깔은 종덕의 경우 황색에서 적색으로, 대덕은 적색에서 남색으로, 견덕은 가사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열린 '외국인스님 교과안거'에서 스님들이 경희대 철학과 허우성 교수의 원시불교 특강을 듣고 있다.

외국인스님들 첫 교과안거

유고등 14국 18명 참가…강의·습의 등 교육

외국인 스님들이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첫 교과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21일 서울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유고, 폴란드, 이스라엘, 대만, 체코 등 14개국 18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스님 교과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교과안거(산혈교육)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본지 391호 3면 기사 참조). 그동안 외국인 스님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 한문 중심의 강원 교과과정 등의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강원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교과안거는 강원(동국대, 중앙승가대)을 졸업해야만 구족계 수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돼 있는 종단 기본교육법에 따라 외국인스님들에게도 구족계 수지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교과안거는 강의와 참선, 발우공양 등 기본적인 습의와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스님들과 외국인 스님들 간의 '대화의 장'은 한국불교문화를 정확하고 빠르게 배울 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캐나다 출신의 자은 사미니는 "이번 교과안거를 통해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집전의식과 교과학습을 받은 점이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본사사령

위촉 : 현대불교 제3기 논설위원

석성본(동국대 교수) 석도수(정업도량 회주) 김용운(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이근후(열린마음클리닉 원장) 성태용(건국대 교수) 김징자(언론인) 윤원철(서울대 교수)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이종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강렬(아르고픽처스 코리아 대표) 이상 10명.

2002년 10월 22일부

"시대 선도 종단 만드는데 진력"

총지종 13대 통리원장 법공 종사



"승단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명실공히 시대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철저한 의견수렴 거쳐 종책 수립

23일 서울 강남 총지사에서 총지종 제13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법공 종사(60 부산 성화사 주교)는 종단 발전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지난 89, 92년 두 차례 통리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95년 10대 통리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법공 종사는 "승단 전체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만큼 무엇보다도 모든 종책은 철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수립할 생각"이라며 "지난 95년 통리원장 재직시 구상했던 종단 차원의 청소년 포교 강화, 법장원 중앙교육원 활성화 등의 교육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혜암 전 통리원장의 잔여 임기 1년 2개월을 맡게 된 법공 통리원장은 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종합복지센터 건립, 인터넷 영상 포교 강화, 총지종 용어사전 불교총전 종조법설집 간행, 밀교경전 복원 및 역경 등의 종책사업도 승계해 나가고 양로원 건립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공 통리원장은 1943년 경북 영일 출생으로 재무부장, 서울 총지사 주교, 총지종유지재단 이사장, 대전 만보사 주교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기자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는 22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출마한 자광스님을 신임 주지로 선출했다.

자광스님(사진)은 도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해인사에서 도견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실상사 봉암사 김룡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95년부터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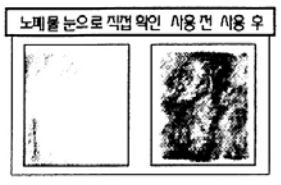
여기서도 부처님법음 듣고 싶어요

학림건강연구원이 만든 목초액 습포제

佛子님 건강 에이치엘 HEALTH PATCH 패치가 책임집니다

붙이기만 하면 노폐물 제거 - 불자·수험생에게 최고의 선물!





탐·진·치 삼독까지 다풀어 드릴 수 만 있다면... 그러나 아쉽게도 목초액 습포제인 '에이치엘 패치'는 삼독까지 다 풀어 드릴수는 없습니다. 대신 삼독 만큼이나 고통스런 피로와 스트레스 는 '에이치엘 패치'로 확 풀어 드릴수 있습니다.

각종 불사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스님이나 기도와 수련으로 몸 고생이 심한 불자님들, 그리고 밤새워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수험생과 노약자, 노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 드리는 것 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에이치엘 패치'에 맡겨 주십시오.

상쾌한 아침을 위하여!
육체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탈출.
HEALTH PATCH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제품사용 방법은 습포제로 된 에이치엘 패치를 발바닥 또는 환부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노폐물과 통증이 제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것 입니다. 특히 몸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의 흔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마음은 기도로 찾으시고 건강은 '에이치엘 패치'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본인도 놀라실 것 입니다.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연로하신 부모님들 ·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컨디션이 안 좋은분 · 가사 노동이 많은 주부 · 긴장된 육체활동에 종사하는 분
· 온몸이 무질근한 분 ·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 ·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운전하시는 분

※ 학림건강연구원은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여 실습 위주의 대체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찰에서는 문의하여 주십시요

달마도 무료 증정



청청스님

인연 있는 불자님들에게 청청스님 달마도를 드립니다.

목초액 습포제 에이치엘 패치를 구입하시는 인연 있는 불자 100분에게 청청스님 달마도 1점씩을 드립니다. 청청스님(前 대각사 총무스님)은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불가에 입문한 지 39년째 되셨으며 스님의 달마도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더욱 알려져 있으며 특히 청청스님 달마도의 질병치료 효험은 많은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35cm × 68cm

스님께서 이런 진귀한 달마도를 기증하시게 된 이유는 3년전 중풍으로 쓰러져 전신이 마비가 되셨을 때 학림건강연구원의 '쑥뜸'과 '에이치엘 패치'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만큼 큰 효험을 본 것이 인연이 되어 선뜻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작품이 100점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할 학림건강연구원의 새 가족을 모십니다.

불자건강을 목표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할 지역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재 구매율이 높아 사업이 안정적이며, 사용이 간편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제품 취급업체 겸업도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학림건강연구원 구입처 : 02)765-5573 / 766-5573

불교 복지시설 98년후 141곳 증가

조계종 복지재단 조사…시설 총 433곳

98년 이후 4년 만에 불교계 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02년 8월 실시한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년 총 292곳이었던 불교계 복지시설은 올 8월까지 48.3%(141곳) 증가한 433곳으로 집계됐다.

아동복지시설(74곳), 노인복지시설(33곳), 장애인복지시설(13곳), 청소년복지시설(7곳) 순으로 불교 복지시설들은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아동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 유아원, 공부방,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98년 134곳에서 55.2%(74곳) 증가한 20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현재 전체 불교계 복지시설 중 약 46%를 차지했다. 특히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17곳 이상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아동복지시설의 증가는 정부가 여성 육아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음도 반영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은 98년 50곳에서 66%(33곳) 증가한 83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13곳에서 26곳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호스피스나 납골당 등 장의복지시설 역시 3곳에서 9곳으로 늘어났다.

아동시설 가장 많아…55% 늘어난 208곳

'에이즈·여성·환경' 등도 관심 기울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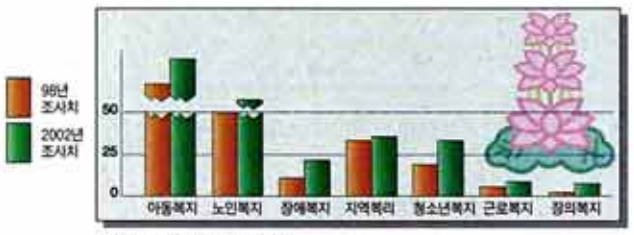
노인과 장애인 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시급히 확충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동국대 등 소수의 기관만으로 불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언어치료사, 유아교육사, 심리치료사 등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인력 양성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소년과 근로자, 지역복지 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98년 23곳에서 7곳 증가하는데 그쳤고, 근로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은 3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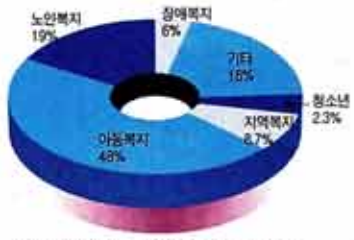
대규모 지역 복지시설인 종합복지관 역시 3곳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정부의 복지관 정책이 종합복지관 설립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설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특수복지관 위탁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이즈, 여성, 인권,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복지부장은 "그동안 복지관 수탁 운영 위주의 시설 확충 위주에서 이제는 서비스 향상 등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 복지시설 증가 현황



◇2002년 8월 현재 불교 복지시설 현황

종단 행정소임자 등 대거 입후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 직할·동화·은해·범어·통도사 경쟁 치열

이번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2대와 비교해 직능직은 경쟁률이 1.85대1에서 1.55대1로 낮아진 반면, 직선직은 1.66대1에서 1.71대1로 다소 높아졌다.

이번 종회의원 선거 입후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총무원과 포교원 등 종단 행정의 주요 소임자들이 대거 종회의원에 입후보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종회의원에 입후보한 행정 소임자들은 직능직에 나선 원택(총무부장) 종훈(기획실장) 스님과 직선직으로 출마한 상운(포교부장) 성원(재무부장) 의연(호법국장) 스님 등 5명이다.

직능직의 경우 각 분과별(정원2명)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정원 20명을 먼저 선출한 뒤 각 분과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분과별 후보등록은 의미가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직능별 입후보자 현황

분야	출마자	분야	출마자
율원	성우, 무관	복지	중상, 명담, 덕운
선원	원타, 명진	등회	수완, 영배, 토진
강원	지오, 지묵, 돌담	법제	종훈, 법안
교육	자학, 정화	원정	원택, 정관, 자승, 정문, 도공
사회	지홍, 학담, 도각, 정인	포교	지홍, 지장, 정호, 오심, 종후
비구니	수현, 본각, 은달, 경륜, 도문, 계호, 정성, 혜원(현이름선원), 종륜, 혜원(동국대)		

• 각 교구별 입후보자 현황

본사명	출마자	본사명	출마자
직할교구	효림, 용광, 지인, 자우, 지현, 성관, 광복, 법정	13교구 쌍계사	정인, 법장
2교구 용주사	성직, 성월, 세영	14교구 범어사	상은, 원정, 법산, 진명, 원진
3교구 신흥사	정휴, 도후, 대일, 영수	15교구 통도사	호현, 도문, 대봉, 재경, 지준
4교구 월정사	선혜, 정념, 도원, 통현	16교구 고운사	설응, 법조, 월우
5교구 법주사	원담, 각인, 진구	17교구 금선사	원행, 일화
6교구 마곡사	탄무, 장곡, 원경	18교구 백양사	천공, 현공, 의명
7교구 수덕사	인명, 선광	19교구 화엄사	진만, 일분
8교구 직지사	법등, 법보, 효달, 정우, 상오	21교구 송광사	보경, 진화, 지원, 무자
9교구 동화사	혜승, 종경, 지공, 법광, 보현, 선봉, 혜정	22교구 대흥사	보선, 월우
10교구 은해사	무이, 돈명, 돈기, 혜혁, 정학	23교구 관음사	종원, 광조
11교구 불국사	정우, 종광	24교구 선운사	성국, 대원, 법경, 선진
12교구 해인사	선각, 현중, 정학	25교구 봉선사	화림, 일관, 호각, 혜원

백담사 등 전통사찰 6곳도 문화재 보수비 지원될 듯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 긍정적 답변

그동안 국가로부터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6곳에도 문화재보수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현재 국립공원 내 21개 전통사찰 가운데 15개 사찰에만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보수비를 나머지 6개 사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 90년 문화부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의 10~30%를 문화재보수비로 사찰에 지원키로 했으나 일부 사찰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90년 공원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사찰에 지급하기로 조계종과 합의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열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의 10~30%를 21개 사찰에 지원키로 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느 사찰에 몇 %를 지급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의원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인제 백담사, 무주 안국사, 청송 대전사, 영주 희방사, 영암 도갑사, 부안 내소사 등 그동안 문화재보수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6개 사찰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환경노동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이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의 과다 계상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부 예산에서 이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충당토록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동국대총장 11월 20일 선거

4명 입후보…이사회 '교수회 추천' 수용여부가 관건

동국대 제 15대 총장선출과 관련 교수회는 25일 정병조(윤리문화학과) 홍치유(물리학과) 홍기삼(국문과) 조회영(경영학과) 교수 등 4명의 총장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했다. 이로써 동국대 총장 직접선거가 90년 이후 두번째로 실시된다. 하지만 동국학원 일부 이사들이 직선총장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총장선출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동국대 교수회 15대 총장후보추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는 11월 6일(서울)과 11일 오후 3시(경주) 총장후보들의 공개 정견발표회를 갖고, 이어 11월 20일 선거를 실시한다.

교수회는 투표결과 순위 1, 2위 후보자를 총장후보 추천자로 개표 후 즉시 공포하고, 11월 21일 '교수회'에 이를 보고한 뒤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뒤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동국대 교직원 노동조합도 24일 총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대욱씨를 선출하고, 10월 말 선거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직원 노조는 교수회와 협의를 거쳐 후보등록 및 선거일정은 함께하되 투표만 같은 날 다른 투표함을 설치, 별도의 개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교수회와 노동조합은 최소 2인~4인의 후보자를 선출, 이사회에 복수 추천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총장선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동국학원 일부 이사들은 교수회가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교직원 노조는 총장인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8일 불교병원 개원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이사들은 회의가 끝난 후 총장선거와 관련해 '동국학원 정관 43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교수회와 노조가 총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총장선거와 관련 11월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회 박종훈 회장은 "이사 모두가 교수회의 직선총장 선출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총장이 직선으로 뽑힐 경우 전체 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돼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선거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사회에서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기자

■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신행상품

1.디지털 불경이나 전자목탁 등 신행관련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①편리하므로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②실질적 도움은 될 것 같지 않다
2.신행상품들을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10월 31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4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시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종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불교전문대학원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2003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Ⅰ.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과정	연구과정
불교학과	불교교학	00명	00명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명상심리학		
	요가치료학		

Ⅱ.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부전공과 상관 없음)

Ⅲ. 전형일정
1)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02. 10. 21(월) ~ 11. 9(토)
장 소 : 본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www.sgsb.ac.kr)
2) 전형일시 : 2002. 11. 16(토) 9:00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Ⅳ.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Ⅴ. 전형료 50,000원

Ⅳ. 합격자발표
1) 일 시 : 2002. 11. 22(금) 10:00
2) 장 소 :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 ☎ 02)808-3321, 6582

Ⅶ. 특 전
1) 성적우수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 지급
2) 취득가능 자격증 ▷불교학과 : 전법사, 명상치료사, 불교상담사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사, 명상치료사, 요가치료사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808-3321,6582 Fax 02)808-6581 주소 :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 본 대학원대학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 영각당(납골당)의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교 수 초 빙

Ⅰ. 초빙분야

전 공	초빙인원	임용예정일	비 고
상담심리학	0명	2003. 3. 1	계약제 임용
명상학 또는 명상심리치료학	0명	2003. 3. 1	〃
요가심리학	0명	2003. 3. 1	〃
미술치료학	0명	2003. 9. 1	〃

Ⅱ.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Ⅲ.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격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8. 11.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Ⅳ. 제출기한 2002. 11. 25(월) ~ 2002. 11. 29(금) 17:00 까지

Ⅴ. 제 출 처 우)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8-2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1층 행정실)

Ⅶ.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2. 11. 2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작겨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 02)808-3321,6582 Fax 02)808-6581

서 울 불 교 대 학 원 대 학 교

회원모집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와 보문중·고등학교(대전)·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장례에서 납골·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자체주차장과 공용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2-3493 www.bojangsa.co.kr

INEB 서울대회 내년 7월20~25일 개최

고사난다 스님등 100여명 참석

환경·평화·여성·난민·인권 등 토의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INEB) 서울대회가 내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서울대회는 또 캄보디아의 고승 마하 고사난다 스님과 태국 인권운동가인 슐락 박사를 비롯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10개국 100여명 이상이 참석,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민정희 참여불교재가연대 국제협력국장, 이기향 우리는 선우 국제협력팀장, 앤 라파판 수파만타 INEB 사무국장 등은 24일 태국 방콕에서 모임을 갖고, 회의 시기와 진행방법, 초청인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는 불교 내부 문제와 불교 사회 참여 두 가지의 큰 주제아래 △환경(소비주의) △평화(필리핀·네팔·카시미르 등 아시아 분쟁지역) △여성(비구니·성매매·여성차별) △난민(북한·버마·아프가니스탄) △인권(군사독재 및 이주노동자 문제) 등의 소주제로 참석자들 분과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또 24일 한국사찰방문, 25일 불교계 NGO 사무실 방문 등의 행사가 이어진다.

법륜스님은 "불교계 NGO 단체들과 협의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라며 "한국 참여불교 단체의 국제적 홍보와 역량 강화, 지지부진한 일본 INEB 단체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INEB는 89년 2월 태국에서 슬락 박사와 일본의 테루오 마루야마 등의 주도로 11개국 26개 단체의 출·재가 불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33개국 4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의 비전개발, 불교도간 또는 종교인들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불교 또는 사회단체들의 정보제공, 워크샵 및 훈련 진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대안교육 비폭력운동·인권·환경·여성·대안적 사회발전 및 인간 심성과 행동 증진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방콕=남동우 기자

"비구니스님 차별문제 대처방안 강구할 터"

앤 INEB 사무국장



참여불교도국제연대회의(INEB) 앤 라파판 수파만타 사무국장(사진)은 "비구니 스님 차별 문제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방계열의 국가에서는 비구니 스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대만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구니 스님 차별 문제에 대해 비구니 승단 자체의 수행력 강화와 국제연대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앤 사무국장은 "비구니 차별 문제 또한 고통받는 소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벌거숭이 山선 살수없어 간다오

수녀들, 금정·천성산 파괴 고속철반대 거리 음악회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 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간다오."

21일 부산시청앞을 오가던 행인들은 수녀 40여명이 기타, 바이올린, 플룻 등의 악기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동요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이어진 작은 음악회는 예수성심정교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해 마련한 길거리 음악회. 이날 음악회에는 여여선원장 정여스님, 윤이동 신부, 윤명관 목사, 지율스님 등이 참석해 자연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동요를 함께 불렀다.

지난 8월 예수성심정교수녀회 여름 피정에 '환경'을 주제로 한 지율스님의 길거리 특강을 가졌던 인연을 시작으로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반대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는 수녀님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길거리 음악회를 열어 시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3일에는 건교부, 고속철공단, 시민종교대책위 실무자들이 만나 한동안 결렬되었던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노선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원칙으로 하고 민관협의체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나오기전에는 어떠한 공사나 발주도 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등 3개종교 사랑의 연합바자회

한신대 운동장서…난치병 어린이돕기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의 장벽을 넘어 난치병 어린이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화계사, 수유1동 성당, 송암교회는 19일 한신대 운동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99년 8월 성광스님과 이종남 신부, 박승화 목사가 만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연합바자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아 개최된 이래로 3회 째. 이번 행사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신자들이 힘을 모음으로써 종교화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종교연합 바자회 먹거리장은 화계사에서 국수 전 호박죽 식혜 등 전통음식을, 수유1동 성당과 송암교회에서 어묵 김밥 커피 떡볶이 등을 준비했다.

화계사 교무 혜법스님은 "올해 종교 연합바자회에는 5천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며 "강북구청과 협력해 2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를 돕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템플스테이, 최고의 경험" 조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 부인(왼쪽에서 세번째)이 미국인 지인 4명과 함께 19~20일 청도 운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허버드 여사의 템플스테이 체험은 지난 2월 대통사 일지암에서의 체험에 이어 두 번째. 조석 예불, 사리암 순례, 참선, 선체조, 다도 등을 체험한 허버드 여사와 일행은 가장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운문사 대중 2500여명이 참석한 새벽예불을 꼽으며 "Best experience!!"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보화사회 적응못하면 승가공동체 와해될수도"

유승무교수, 불교사회문화원 포럼서

정보사회로 발전할수록 가상공간을 통해 성(性)과 속(俗)의 구분이 사라지고, 불교가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승가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24일 현대불교사회문화교육원이 '정보사회와 불교,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승무 교수는 "연기법과 업 등 불교사상은 정보사회의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고 지혜의 개념도 정보사회의 가치창출의 기본이 되는 정보나 지식의 확대된 모습이어서 불교는 정보사회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도와 공존의 가르침인 불교사상의 영향력은 정보사회에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인간관계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존중되는 정보사회의 특성은 가상공간에서 출가자가 세속사회와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승가공동체 내부에서도 정보 사유화 현상이 발생하며 새로운 불교지식인 계급이 출현, 불교공동체의 기존 권위체계 및 지배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고려대 강사 박수호씨는 "최근 가상공간에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불교를 접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네티즌들의 불교적 관심과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새로운 불교지식인 계급이 이미 출현하고 있다"며 "이처럼 성속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스님들은 더 이상 우위를 주장할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지고 출가자도 줄어드는 등 승가의 총체적 위기로까지 발전할수 있어 이에 대한 스님들의 경각심과 정보사회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식 기자

정기 어린이법회 운영사찰 62%

참석인원 1만2천, 지도자 1,092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대불어)가 529개 회원및 연수참여 사찰을 대상으로 '전국 어린이 법회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법회(불교학교 포함)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329개소로 62%에 불과했다. 또한 정기법회 참가 어린이는 총 1만1천927명으로 평균 39명 수준이며, 지도자는 전국적으로 총 1,09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법회를 여는 사찰 가운데 225개 사찰(68%)은 일요일에 법회를 열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79개 사찰(32%)이 법회를 보고 있다. 불교학교의 경우 225개 사찰(94%)이 여름 불교학교를 개설하고 있는 반면, 겨울은 144개 사찰(47%)만이 여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식 기자

고려시대 불상2점 기증

정재철씨 동대 박물관에

유암문화재단 정재철 명예이사장이 21일 동국대 박물관에 '석조나한상(사진 왼쪽)'과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오른쪽)' 등 고려시대 불상 2점을 기증했다.

정 이사장은 송석구 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내(故 전금주씨)가 생전에 모시던 불상을 고인의 뜻에 따라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며 "불상의 학술적 가치를 분석한 뒤 많은 후배들이 경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석구 총장은 "본교 박물관에 불상을 기증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고침 본지 392호 6면 일주문 중 혜봉 이천사임련 회장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목탁소리 권리가 의무보다 앞서서야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19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기회비 체납 종단에 대해 이달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또는 징계하기로 결의했다.

종단협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종단을 포함한 6개 종단이 길게는 98년, 짧게는 지난해부터 월 40만원 가량의 회비를 체납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종단협이 회비체납 종단에 대해 제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돈' 때문이 아니다. 이들 6개 종단의 공통점은 회비체납은 물론 그동안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단협이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의사가 없는 종단을 그대로 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종단협의 기본 인식이다.

종단협의 한 관계자는 "회비야 형편상 체납할 수도 있지만 몇 년째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종단협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회비가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판단을 체납회비 납부여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종단협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종단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모 종단의 한 관계자는 "몇몇 종단이 자기들끼리 다 하면서 이제 와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불만이 있다면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노력도 없이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종단협이 불교발전을 위한 협의체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6개 종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가족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2002년 10월31일 ~ 11월 1일, 2일, 3일 (4회 20시간=기본과정:5만원)
2002년 11월 4일 ~ 11월 6일, 7일, 11일, 12일 (5회 25시간=심화과정:7만원)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삼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30명(선착순) 2002년 11월 4일
◆수강료: 12만원 (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02-738-5586,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1일 (금)	10:00 ~ 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박애선 교수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이종호 원장
11월 3일 (일)	10:00 ~ 12:00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채규만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의 원인과 배경	김현수 원장
11월 7일 (목)	10:00 ~ 12:00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상담기법	김현수 원장
	13:00 ~ 16:00	부부갈등과 외도	이명진 교수
2. 가정 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11월 6일 (수)	10:00 ~ 12:00	가족치료의 단기해결 중심적 접근	김유숙 교수
	13:00 ~ 14:00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의 배경	김유숙 교수
	14:00 ~ 16:00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실제	안동현 교수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11월 11일 (월)	10:00 ~ 12:0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11월 11일 (월)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III			
11월 12일 (화)	10:00 ~ 12:00	부부대화 프로그램	채규만 교수
	13:00 ~ 14: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김화자 소장
	14:00 ~ 16:00	건강한 가족제도	박혜인 교수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기초자 부분 12시간)을 면제받음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인도 불교 지원은 불교 중흥뿐 아니라 난민 구호의 성격도 띠고 있다. 슈레스 YBS 회장(왼쪽)이 법륜스님과 김재일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태제 재가연대NGO 분과장(오른쪽)으로부터 지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인도불교 재기 가능성 있다"

"교학·수행경비 지도자 필요"

인터뷰 김태제 NGO 지원분과장·슈레스 YBS회장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

"남녀노소가 힘을 합해 스스로 불상이나 법당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인도는 불교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년 티벳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 올해 인도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한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경기불교문화원장). 김 분과장은 이번 인도 방문에서 YBS 사무실 운영과 관련 5천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정토회가 운영하고 있는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마을 10군데에 우물 개발(한화 1000여만원 상당)도 약속했다.

쾌척한 10만 달러 중 2만 달러를 집행한 재가연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지원에 완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나 불자들도 불교 홍포의 차원뿐만 아니라 고통 받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도 마음을 냈으면 합니다." 김분과장의 간절한 바람이다.

◆슈레스 인도 YBS 회장

"50여년 전 암베드 카르가 인도 불교 중흥에 노력했지만 아직도 진심으로 부처님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스님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슈레스 인도불교청년회의(YBS) 회장(33)은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선 승가 및 재가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인도는 출가를 원할 경우 은사 스님에게 허락을 득하고 며칠 같이 살다가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이다.

정토회나 재가연대의 지원에 대해 갑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는 슈레스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석가족 전체의 입지 향상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상카시아 개종식 불발도 회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6개월 전부터 직접 1600여명을 만나며 준비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힌두교도인들이 행사를 그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당분간은 대규모 개종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500여명에서 1000여명 정도의 소규모 개종식을 치를 예정인 YBS는 이를 바탕으로 석가족 뿐만 아니라 인도 불교 중흥의 선도자로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존자암 세존사리탑(도문화재 17호). 석종형 부도의 지름은 80cm, 높이는 약 130cm. 발타라존자가 세존의 사리를 모셔와 봉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1월 3일 낙성식을 갖는 제주도 존자암 대웅보전.



◇존자암에는 나라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국성재(國聖齋)가 올려져왔다. 이번에 다시 복원된 국성재각.

"인도불교 중흥 적극 돕겠어요"

정토회 재가연대, 한국불교법사회

인도 불교가 석가모니 후손들과 한국불자들의 원력으로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인도 종교 인구의 0.5%(약 5백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석가족과 석가족 후손들이 중심이 된 YBS(Youth Buddhist Society, 인도불교청년회의), 1991년부터 인도불교지원에 나선 정토회, 10만 달러 이상 기금 조성을 한 참여불교재가연대, 북한 및 아프리카 등을 지원해 온 한국불교법사회 등이 1000년 이상 멈실 돼 온 인도불교 중흥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법륜스님의 지도로, 한 인도청년이 주민들의 주시속에 삼귀의를 하고 있다.

◇인도불교지원팀 일행은 방문한 마을마다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언어와 피부색은 달라도 불자라는 공통점이 환희심을 일게했다.

그러나 힌두교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저항과 인도 내 불교지도자 수준 미달, 승가 및 재가 지도자 교육 부재, 법당설립 및 경전보급 등 재정적인 문제 등이 인도불교 중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20일 부처님이 성도 후 마야부인에게 진리를 설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온 상카시아에서 10만 명이 운집, 개최 예정이던 1만명 석가족 불교 개종식이 힌두교도들과 마찰을 우려한 주 정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방문한 법륜스님(한국JTS 이사장), 이기향 우리는 선우 국제협력팀장(한성대 교수),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분과장(경기불교문화원장), 김재일 동신반야회 회장 등은 법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석가족이 운집해 있는 9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홍포에 비지땀을 흘렸다. 석가족이 밀집해 있는 인도 동북부 우따 쁘라데시주 등지에서 주민들의 신심이 돈독한 메인뿌리 보가온 지역의 마하마야 아카데미, 메인뿌리 나비간지, 칸노즈 바레뿌르 등 집중적으로 한국불교계 지원예정인 곳을 취재했다.

■마하마야 아카데미

YBS가 지은 마하마야 아카데미는 3개 동 6개 교실에서 3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2개 동은 아직 지붕도 없는 상태. 지붕 씌우기와 증축, 학교 앞 1800여 평 법당 건립 등을 위해선 4~5만 달러(한화 5~6천만원)가 필요하다.

인도불교 지원팀이 도착하자 인근 마을 주민과 학생 700~800명은 법륜스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원을 만들며 방문을 축하했다. 동생을 업고 나온 아이, 자전거와 오토바이등을 몰고 온 청년, 지팡이를 짚고 있는 촌로 등은 머나먼 한국에서 온 지원팀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법회는 1부 문화행사와 2부 설법 순으로 이뤄졌다. 문화행사는 개종식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인도 전통춤과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연극 등으로 꾸며졌다. 하지만 행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개종식 무산 소식을 듣고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법회가 끝나자 김태제 분과장은 즉석에서 학생들의 학용품 구입비로 3000루피(한화 100여만원)를 기증했다.

■메인뿌리 나비간지

나비간지는 석가족 6000여명이 운집한 마을로 마을공터에 시멘트로 만든 불상이 있다. 하지만 법회를 볼 법당이 없어 야외에서 법회를 보고 있다. 또한 법당이 건립되면 마을회관으로도 이용할 예정이다.

지원팀이 마을을 방문하자 300여명의 마을 주민들은 임시 천막을 쳐 놓은 공터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을 연상케 하는 마을이지만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확성기 사용을 위해 자가발전기를 돌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 또한 오랜 굶주림에 퀭한 눈과 마른 체격을 하고 있었다.

법회에서 법륜스님은 "한국에서 시멘트와 벽돌 등 법당 지을 재료만 준비해 주면 3개월 안에 절은 당신들이 지을 수 있겠는가. 절이 완공되면 부처님도 한국에서 모셔다 줄 것이고 완공 날짜인 1월 말 경에 수계식을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법당 건립에 동참하겠다는 표시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로 앞다투어 손을 들었다.

김태제 지원분과장은 그 자리에서 불상 봉안을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칸노즈 바레뿌르

바레뿌르 마을은 '비시 스와르'라는 마을 청년이 불교 공원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지난 5월 경 강도에게 총을 맞아 숨진 지역이다. 당시 갑이 총격을 당했던 마을 청년은 아직도 배와 팔에 큰 흉터가 남아 있다.

3,060평의 땅에 조성된 불교 공원은 아직 비시 스와르의 따스한 손길이 남아 있지만 조각 몇 점을 제외하곤 방치된 채 있다. 재가연대에서는 이 지역에 인도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한 임베드 카르 공원과 명상 공원, 비시 스와르 추모탑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200여명의 법회 참석자들 앞에서 김재일 회장은 "당신들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바로 석가모니의 후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도 불교의 중흥을 위해 우리들은 개종식에 쓸 인도어로 된 법요집과 단주, 부처님 사진 등을 준비해 왔다.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마을 주민들은 "부처님 사진을 집안에 모셔놓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법요집을 읽으며 부처님 법대로 살겠다"며 다짐했다.

인도 불교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조용히 낮은 곳에서 석가족을 중심으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려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을 지원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지 우리들의 고향이다.

인도=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도돕기 지원문의 : 02-745-7799
계좌번호 : 조흥 741-04-365950(인도돕기)

석가족 사는 9곳 잇달아 방문…따뜻한 환영

법당·학교 건립…불상 경전 등 적극 지원

1만명 석가족 개종식은 정부 불허로 무산



◇원래 석가족 개종식때 선보이기로 했던 마하마야 아카데미 학생들의 문화공연. 개종식 무산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조촐하지만 다채롭게 펼쳐져 주민들을 기쁘게 했다.

"여기가 한국불교 초전지"

한라산 영실 '존자암' 복원

30년 불사…대웅보전 11월3일 낙성식

주지 법정스님 "세계적 순례성지로 개발"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의 6대 제자 발타라 존자는 불법을 널리 펴라는 세존의 열반게를 듣고, 권속 900나한을 데리고 지금의 제주도인 탐몰라주에 도착하여 '불래(佛來)오름'이라 불리는 한라산 영실에 '존자암'을 건립하고 불교를 전파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같은 내용은 불교대장경(중국 26권)의 법주기(法住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존자암에 대한 고전기록이 남아있는 고려대장경(30권)과 일본 신수대장경(49권), 동국여지승람, 남사록, 탐라지, 남명소승 등에도 '존자암은 제 6발타라존자와 9백나한의 삼주도량인 신령스런 10장생의 이상향' '고 양 부 3성이 발타라 존자와 함께 살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존자암은 한국불교 초전법륜지이며, 제주도민의 시조인 고 양 부 3성의 발원지가 아닐까.

한국불교 역사의 시작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8백년 앞선 부처님 열반 직후 해상을 통해 들어왔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장소로 일부사학자들이 주장하는 현장, 한라산 영실 존자암이 복원됐다.

제주 서귀포시 존자암(주지 법정)은 30여년에 걸쳐 16억2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평 부지에 불사를 완료하고, 11월 3일 오전 10시 대웅보전(31평), 나라의 재를 모신 국성재각(8평), 요사채 법정당(22평) 낙성식을 갖는다.

특히 전국사찰에서는 처음으로 건립된 국성재각은 국성님에게 재를 올리며 나라의 국운융성과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곳을 복원한 것이다.

1971년 복원이 시작된 존자암은 93년부터 94년까지 2차례에 걸쳐 제주대에 발굴용역을 의뢰, 신장상, 청동제 사리탑 뚜껑, 분청, 신오(비각), 사리함 등을 발굴, 95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제주도기념물 제 43호로 지정됐다. 이후 서귀포시에 문화재정비사업을 신청, 2000년 요사채를 낙성하고, 2001년에는 존자암 수행굴을 발굴한바 있다.

법정스님은 "일본 남선사방(南禪寺坊) 영천성산(櫻川城山)스님, 대만 공추천(孔秋泉)박사 등과 존자암 복원후 세계적 성지순례장소로 개발하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며 "존자암 복원을 계기로 근본불교 정신에 바탕한 수행, 세계중심 전법도량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일주문



찬불가교실 개원 음악회
광우 전국비구니회장은 11월 1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찬불가교실과 수화교실 개원에 앞서 음악회를 개최한다.(02)3411-8103



해인승가대 동문회장 유임
세민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해인사 주지)은 24일 해인사에서 열린 총동문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25교구 본말사 주지 연수
일면 봉선사 주지는 11월 8~13일 인도네시아로 성지순례를 겸한 25교구 본말사 주지 해외연수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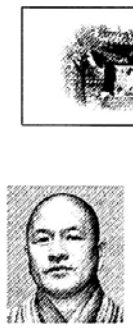
'아름다운 마음…' 주제 강연
혜승 의성 고운사 주지는 18일 의성군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법' 주제강연을 했다.



보살계 수계식 · 만등불사
지허 순천 선암사 주지는 11월 2일 선암사에서 대각국사 탄신 947년 기념 보살계 수계식과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장애인경기 성공기원 효도잔치
정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은 24일 부산시청 옥외공연장에서 아 태 장애인경기대회 성공기원 효도 큰잔치를 열었다.



불화 · 서각반 전시회 개최
범하 통도사성보박물관장은 박물관 문화학교 제4회 불화반, 서각반 작품 전시회를 30일~11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마정수기 수계대법회 봉행
운성 대구 광덕사 주지는 24일 광덕사 대웅전에서 중국 관정 큰스님 초청 마정수기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서 '달마전' 열어
일허 빌양 영천암 주지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달마전'을 개최한다. (051)866-1902



이동 목욕차량 기증 받아
지현 영주시장애인복지관장은 1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중증 재가장애인용 이동목욕 차량을 기증 받았다.



경찰법우회원과 성지순례
성인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은 30일 원주 관음사로 경찰법우회원 35명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난다.



세계불교미술전 서각 출품
혜안 조계종 문화국장은 11월 21~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미술전'(태국 왕실 주최)에 초대받아 서각 10점을 출품한다.



30일 불교TV 이사회
이수덕 불교TV 대표이사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홀리데이인서울 지하 1층에서 제40차 불교TV 이사회를 개최한다.



친목도모 배드민턴 대회
배선혜 대구 영남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27일 대구 우리절 주차장에서 회원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한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인성개발 세미나
김형중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장은 11월 2일 명성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청소년 인성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탑사 등으로 문화 기행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은 11월 3일 영탑사와 대련사, 향천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7-6613



수안스님초청 선서화전
박정석 불교TV 대구지사장은 15~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수안스님 초청 선 서화전을 개최했다.



全 전대통령 내외 "…깨달음" 展 관람

전두환 前 대통령은 23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 주최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회를 관람했다.

전 전대통령은 "불교미술의 새로운 창작세계를 감상했다"면서 "아내와 함께 그동안 불교미술전시회를 자주 관람해왔는데 우리나라 부처님은 중국의 부처님에 비해 매우 잘 생기셨다"고 느낌을 들려줬다. 전 전대통령이 또 차남 재용씨가 미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어보인다고 말하자 부인 이순자 여사는 "금생에는 전혀 미술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생에 닦은 인연과보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안현태 전 경호실장, 이상희 전 건설부장관, 이양우 변호사 등 측근과 전직 각료 부부 등 40여명이 함께 관람했다.

"시간·예산에 쫓기지 않고 보수"

미륵사지석탑 해체 1년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터 석탑(국보 11호)이 전면 해체에 들어간지 31일로 꼭 1년이 된다. 2007년까지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 보수 사상 최대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봉건(사진) 국립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해체 보수를 위해서는 이제 뭐든지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해체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재 3층을 해체 중이다. 지붕돌, 받침돌, 몸돌 순으로 해체할 때마다 부재 하나 하나에 대해 사진과 정밀 실측도 작성은 물론 3차원 영상 데이터를 담아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3000여 개 중 180여 부재를 해체했다."

▲일제가 덧붙여 놓은 시멘트를 떼 내는 데 어려움은 없나?



"시멘트 해체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탑의 원래 부재와 시멘트가 함께 붙어 있는 미세한 부분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해체 이후 복원은 -.

"현 상태대로 6층으로 할 지, 9층으로 할 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1400년 이상 된 부재를 얼마나 그대로 쓸 수 있을지도 확실하진 않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리 나름의 철학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텔레비전 의지하고 사는 할머니

말 벗이라도 있었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도움만 받아 먹으면서 사람은 몰라 본다고 나무라지 마시오."

83세인 정봉연(서울 수색동) 할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입에 뱄다. 늙은이가 빨리 죽지 않아서 젊은 사람만 고생시킨다는 것이다.

정 할머니는 5년 전 관절염이 도져 걷지 못하게 되면서 10년 넘게 해 온 공공근로 일도 이 때 그만 두었다. 그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동무 삼아 그럭저럭 지내 왔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가끔 찾아오는 친구 할머니가 있었건만, 그 친구마저 훌쩍 저 세상으로 가버려 온 종일 말 한 마디 못 하는 날이 부지기수다.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문밖을 나서 보지만 몸이 아파 얼마 걷지도 못한다.

정 할머니는 삼일운동이 끝난 직후인 1920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철이 들기도 전인 열다섯 살에 대전으로 시집을 갔다. 시집도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생선 자판을 매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고, 한 겨울에 떡 장사 등 장사란 장사는 한번씩 해 봤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던 51살까지도 방 한 칸, 땅 한 뙈기 마련할 수 없었다.

"우리 손자가 한 마흔 다섯쯤 될거유. 아마 우리 증손주도 고등학생은 족히 될 거구." 정 할머니는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은 아들을 낳았고, 정 할머니는 손자들이 증손지를 낳은 것도 안다. 하지만 딸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 선뜻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복이 없는 길 이렇게 해, 외로운 것도 한 해 두 해지."라며 자손 걱정이 앞선다.

정 할머니가 사는 방안은 늘 말끔하게 정돈이 돼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살망정 정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단칸방을 닦고 또 닦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소원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등을 박박 한번 밀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목욕은 꿈도 못 꾼다.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알지만 그림의 떡이다. 목욕차가 골목이 좁아 집까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목욕을 제대로 한 날은 손꼽을 정도.

관절염 도져 10년 해온 공공근로도 못해
"따뜻한 물로 목욕이라도 자주 했으면"



◇정봉연 할머니의 친구는 텔레비전뿐이다. 얼마 전 그동안 말벗이 돼왔던 유일한 친구 할머니마저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지나가던 사람이 사놓고 갔다는 감귤을 꺼내 놓는다. "난 많이 먹었다우. 어차피 노인들은 신 음식은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라도 자시구랴."

을 겨울 난방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인 정 할머니지만 찾아온 사람에게는 꼭 대접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하듯, 관절염 때문에 퉁퉁 붓은 손으로 귤을 하나 까서 다정스럽게 내민다.

연락처 (02)376-0716

후원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정봉연 210-000489-01-041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자로서 할일 했을뿐인데…"

자원봉사자대회서 복지부 장관상 이제숙씨

23일 열린 '2002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제숙 씨(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47). 평범한 주부인 이 씨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받을 상을 혼자 받아서 미안할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이 씨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94년 6월. 조계종 복지재단이 실시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현재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 씨는 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96년부터는 부모가 몰래 버린 중증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립아동병원(서울 양재동)을 찾아가, 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일을 매주 1번씩 꾸준히 해 왔다. 최근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중풍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발반사요법 시술도 매주 하고 있다.



"아동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알콜이나 약물 남용 등 부모가 잘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 씨는 이런 불행한 인연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봉산 천축사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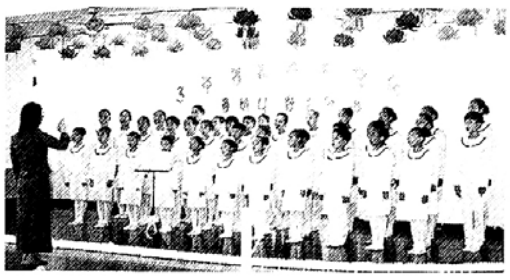
"매주 이틀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협조 때문"이라는 이 씨는 "앞으로 늙어서 더 이상 봉사를 못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논산훈련소 훈련병 위문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4천여명을 위한 위문법회를 열었다. 대한불자가수회 소속 회원 5개팀의 공연과 훈련병으로 있는 불자가수 홍경민 씨의 특별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회룡사 룸비니 합창단 음악회

회룡사 룸비니 합창단(단장 성견스님)은 19일 의정부 자비회관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종호, 성엽, 성환, 지황 스님 등 비구니 스님을 비롯, 좋은일하는사람들모임 윤상국 국장, 다우리모임 오대성 실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회원들 고령화에 신규가입은 늘지 않고…

고참불자들, "직장포교 이렇게"

"회원들은 자꾸 퇴직하는데 새로 가입하는 젊은 회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직장불교단체 회원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는다. 젊은 불자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자꾸만 높아진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신입회원이 들어와야 모임을 유지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직장내 종교활동에 나서는 젊은 직원들은 극소수라는게 문제. 이 때문에 직장단체들의 신입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단체들은 신입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자보 홍보, 큰스님 초청법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의 종교가 불교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면 1대1 면담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어떻게 신입회원을 끌어들여야 하나. 오랜 직장생활을 하며 연륜을 쌓은 직장인불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간추렸다.

직장생활 성실히 임하라

직원들에게 불교와 불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 불자회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직원들에게는 불자회의 모습으로 연상된다.

춘천시청 도반회 정상현 회장은 "사람에게 받은 감동은 오래 남는다"면서 "회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곧 포교로 이어질 때가 많다"고 말한다. 회원들이 회사내 궂은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은연중에 감동으로 남는다는 것. 또 이웃돕기와 봉사활동 등 실천하는 불자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원들 경조사 내일처럼

종교를 떠나 가까운 직원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자상함이 필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당사자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KBS 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4년째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회원과 각 부서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있다. 회원들의 주도로 사무실에서 케이크를 절단하고 나눠 먹는다.

정종철 회장은 "케이크 하나로 불교와 부처님오신 뜻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좋은 포교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불교연구회는 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에는 사내인트라넷을 통해 축하의 글을 전달,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서, 단주로 관심을

불교서적과 단주, 염주 등은 불교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직원들의 생일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불교관련 서적 또는 글을 적어 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차량에 걸 수 있는 염주나 손목에 낄 수 있는 단주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전본사 반야회는 회원은 아니지만 불자인 직원들에게 불교서적을 전달하고 있다.

이순형 구도부장은 "불서를 받는 직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직원들"이라며 "불교를 좀 더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고, 더러는 가입하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상담 요청땐 적극 응해야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나 인품이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불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불교상담개발원 관계자는 직장동료들이 요청해오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권한다. 상담 결과에 관계없이 상담자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피상담자의 경우 상담자의 생활, 사고 등 모든 면에서 닮아가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상담에 응하는 것은 포교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내 전산망 활용 필수

대부분 회사들은 사내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사내 전산망에는 전자결재 뿐만 아니라 회사 동향, 직원 동정, 동호회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사내전산망은 직장불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다. 불자회 소식은 물론 부처님 경구(經句), 명언 등을 올리고, 회원이 아닌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두는 배려도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주경스님은 "직접 불자회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 보다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간접적인 포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1987년 12월 12일, 서울은행내 불심이 깊었던 종성, 금강, 보견, 법선, 현욱, 법공 법우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불교행우회.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따랐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한마음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자부심이 회원들 가슴에 가득합니다.

불교행우회는 창립되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부처님 법을 서울은행내 직원들에게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행이 최대 위기를 겪었던 IMF 한파도 법우들의 변함없이 서울은행을 찾아주었습니다. 이제 안니옥 법사님은 법우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행우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교행우회 법우들은 그아복지시설인 경북 상주의 호암룸비니 작은집과 인연을 맺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편 우리 문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순례를 갖고 있지요. 최근에는 원주 소쩍새마을과 영주 부석사 순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법우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신의 신행을 반추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매월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회원들이 안니옥 지도법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감원 어려움속에서도 15년전통 면면히
매월 철야정진으로 수행 · 친목 도모

불심을 꺽진 못했지요. 1만2천명에 이르렀던 직원이 3천5백명으로 줄었을 때도 권태중 회장을 중심으로 꿋꿋이 모임을 꾸려왔습니다. 물론 직원 감원바람은 불교행우회에도 몰아쳤습니다. 3백50여명에 육박했던 법우들이 1백50여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많은 법우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지요.

불교행우회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법회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파발 거암관음사 안니옥 주지법사의 지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법회 참석인원이 10명이 안되던 절박한 시기에도 안니옥 법사는 늘 법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한 거암관음사에서 철야정진을 갖고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철야정진으로 수행도 하고 친목도 도모합니다. 또 자신의 생활과 내면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하나은행과의 합병문제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법우들은 불자회가 없는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한 포교 계획을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차례 불어닥칠 감원바람도 수행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부처님같은 삶을 살아가는 법우들의 마음은 한결같을 테니까요.

▨오희도 총무(안양 관양동지점)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원자력연구소 성불회는 16일 대전 태전사에서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원자력硏 성불회 · 청도군 공무원 불자회

산사음악회…지역민포교 나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성불회와 경북 청도군 공무원불자회가 산사음악회를 열어 지역주민 포교에 나섰다.

원자력연구소 성불회(회장 김정수)는 16일 대전 태전사에서 '마음을 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 개최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한 성불회는 직장동료들에게 산사의 멋과 정취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음악회는 직장동료들과 가족, 지역주민 300여명이 동참했으며,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의 영산회상, 작법, 창, 청성곡 대금독주 등 불교의례와 국악으로 진행됐다.

청도군 공무원불자회(회장 채장희)는 12일 적천사에서 괘불을 걸고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공무원 불자들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야합창단의 육법공양과 대금공연, 이영희 명창의 남도 민요, 지연스님의 공연 등 지역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봉영 기자

영호남 불자산악인들

지리산으로 화합산행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와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산악회(회장 김치구)는 11월 10일 지리산에서 합동산행을 갖는다. 광주불교산악회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이번 산행은 지난 5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난 8월 남해 화방산 합동산행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산행이다.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같은 길을 걷는 불자들에게 이미영 · 호남이라는 감정은 없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서대문구청 불자회 활동 재개

서울 서대문구청 불자회(회장 김승억)는 30일 오후 6시30분 홍은동 백련사에서 법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한다. 98년 창립 이후 회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서대문구청 불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매월 정기법회 봉행과 이웃돕기 등에 나선다.

교사불자련 경인 · 대구지부 합동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경인지부와 대구지부는 11월 3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합동법회를 갖는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이 법문하게 될 이날 법회는 지역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단체장 동정



봉불 10주년 기념법회

박재진 경찰청 불교회장은 봉불 10주년을 맞아 31일 12시 본청 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기획관리실장 전보

신동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장은 21일 소비자안전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유재라 봉사상 수상

나청자 불자약사보리회 명예회장은 21일 유재라 봉사상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1천만원을 약사보리회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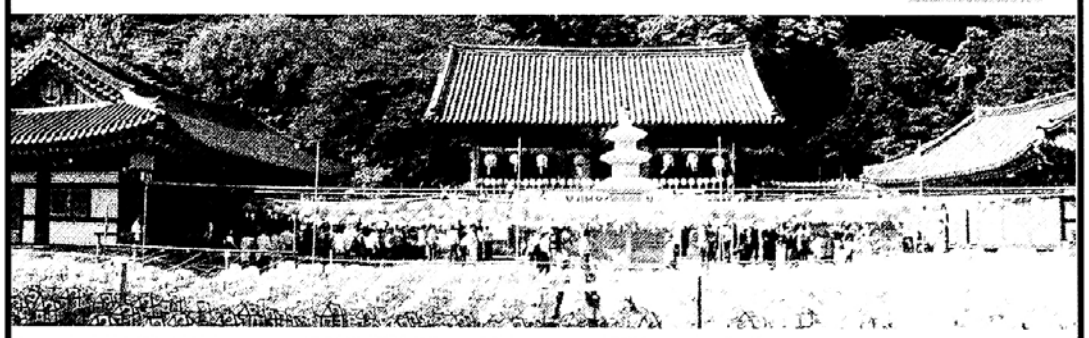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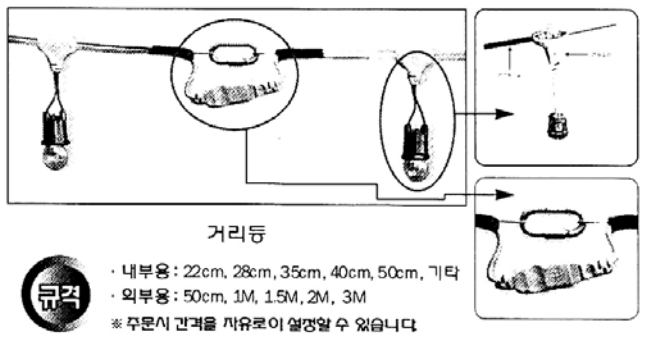
예산 수덕사 참배

민철기 성북경찰서 불교회장은 20일 60여 회원 및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예산 수덕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삼 보 전 기
실용신안등록 제 0190397호
실용신안등록 제 0253853호
의 장 등 록 제 0255777호
등록제품!!
앞선 기술력으로 천년의 생명을 지킵니다


거리등
규격
· 내부용 : 22cm, 28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50cm, 1M, 1.5M, 2M, 3M
※ 주문시 길이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불에 타지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성 사찰과 법당의 규모 및 환경에 따라 최적의 전선을 사용합니다.
내구성 특수재료로 인장력을 강화하여 날씨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경제성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T형 일체식 케이블
◆견고성 - 전선과 소켓이 일체하므로 튼튼합니다.
◆편리성 - 연등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체성 -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외부용[연결고리]
◆외부용은 전선과 와이어를 함께 압출하여 별도의 와이어나 로프가 필요없다.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설치와 철거가 용이하다.
생각하는 기업
삼보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499-4
TEL. (031)972-5056
H·P. 011-327-5056
삼보전기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 · 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 드리겠습니다.

목어

한국정치와 불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어려웠던 시절 숱한 민주투사와 열사들의 희생을 반석으로 한국정치는 발전을 거듭해 왔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시대를 연 지도 어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에 갈채를 보내는 국민은 별로 없어보인다. 형식은 발전된 모습을 가졌을지 몰라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를 두어 달 앞두고 있는 지금도 새로 정당을 만드느라 부산을 떠는가 하면 이해타산에 따라 당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정객들이 정치권을 맴돌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정치란 본디 성인이 아니면 도둑놈이 하는 짓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각설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발맞춰 우리 불교계에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본사 주지를 교구의 구성원들이 뽑는가 하면 중앙종회 의원과 교구 중앙종회 의원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을 상대로 출마와 당선 로비를 벌이는 웃지 못할 풍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예전에는 권승들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자의든 타의든 거의 모든 스님들이 종단정치에 휘말리는 권승의 자리에 넘나들고 있는 셈이다.

종단의 민주화를 위한 부득이한 제도라고 하니 이해하려 애쓰고자 하지만 씁쓸한 입맛을 숨길수가 없다.

진면목의 출가승을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젠 종단 안팎 어디를 가든 어렵지 않게 듣는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 불교 교단은 지금 민주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가?

불자들은 긍지를 느끼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가?

종단의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입버릇처럼 거론되는 수행풍토 조성, 포교, 도제 양성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글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나 하고 비웃을 사람들이 필름처럼 뇌리를 스친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홍성태
상지대 교수
교양과

富 추구보다 빈곤 퇴치 노력을

지난 30년 사이에 이룬 경제성장의 결과로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대변신을 하였다.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벗겨 먹어야 했던 시대는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옛일이 되어버렸다.

지난 200년 사이에 인류는 말 그대로 파천황의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인류는 의료와 영양의 개선으로 엄청난 생물학적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 세상에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적은 없었다. 오직 인류만이 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인류의 생물학적 대성공은 이 별에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의 생물학적 대재앙이기도 하다. 우리의 대성공은 다른 생명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착취한 결과인 것이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죽여 없앤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 매시 마음 속으로 위령재를 올려야 마땅하다.

유엔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17일은 그것이 제정되고 열 번째 해에 이른 날이다.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해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노라면, '풍요사회'의 진정한 실체에 관해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계 인구의 20%인 12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

해마다 600만 명을 넘는 어린이들이 5살도 되기 전에 굶어 죽는다. 1960년에 세계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보다 30배가 많았지만 1997년에 이 비율이 74배로 늘어났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서 빌려온 부채를 갚기 위해 원조 받는 금액의 13배를 선진국으로 보내고 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은 가장 가난한 49개국에 사는 6억 명의 연간 소득보다 많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인류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개조차 전용식당이며 호텔을 드나드는 데, 다른 한편에서는 잡아먹을 개조차 없어서 자기 살을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부유와 빈곤이 한 배에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에 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부유는 후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빈곤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부유한 사람들의 삶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구조와 우리의 의식을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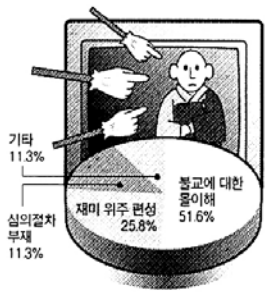
자기만 잘 살려고 하다가는 부유와 빈곤이 맺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없다. 부유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빈곤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그 길이야말로 더욱 살기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들이 조금만 절약하고, 이웃을 생각한다면 매년 600만 명의 굶어죽는 어린이들의 희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나라들이 조금만 인간애를 발휘한다면 오늘도 굶주림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생명체들을 돕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애완동물보다 못한 인간의 삶에 희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인간사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불교 왜곡 방송



최근 불교를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방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총 응답자 94명 가운데 48명(51%)이 불교에 대한 몰이해, 24명(25%)이 재미위주의 과욕 편성, 11명(12%)이 각각 심의 절차의 부재와 기타라고 답변했다. 또한 불교 왜곡 비하 방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45명(48%)이 활발한 모니터 활동, 26명(27%)명이 방송 관계자에게 기초자료 배포, 8명(9%)이 방송법 관련 조항 강화, 6명(6%)이 사법적 대응, 9명(10%)이 기타 라고 응답했다.

"불교에 대한 몰이해 때문" 51%

김두식 기자

열린마당

분야별 효율적 포교 방안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9~20일 김제 금산사에서 지도자 연수를 갖고 지역, 분야별 포교활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팀장급 이상 130여 포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향후 각 분야의 특성이해를 통한 포교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어린이 · 청소년, 군, 교도소, 신행 · 직장직능, 자원봉사 · 상담 등 분야별 대안을 정리한다.

교사불자 어린이 포교에 적극 활용
군포교, 지원단체들과 연계 바람직

어린이 · 청소년

어린이포교의 가장 큰 장애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점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 지도자 육성, 사찰과 신도회의 재정분담 등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어린이포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력 충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불자를 어린이포교에 적극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불교어린이지도자협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교사불자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불교교사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사찰과 신도회,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명숙 대전충청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장

군

군 포교사들은 자비(自費)와 시간을 투자하는 등 많은 부담을 안고 활동하기 때문에 신규포교사들의 지원을 마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인 군포교를 위해서는 종단과 인근 사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포교와, 군포교 지원단체와의 연계, 법회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군신도회의 재정 분담 확대, 신규인력의 군포교활동 의무화, 강원도 지역의 군팀 결성도 시급하다.

강오균 전북포교사단 군포교팀장

교도소

사회와 격리 수용된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에서 포교활동을 펼치는 교도소포교는 인력 · 재정 부족, 통일된 교재 부재, 출소후 신행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 상담, 자원봉사, 홍보팀과 연계하는 법회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 적응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 교도소 외부 사찰에서의 법회 진행,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회견학 등 법회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단순한 법회 보다는 교리, 찬불가, 독경 경연대회 등 효율성을 고려한 법회를 열어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 한다. 조철주 서울경기포교사단 교도소팀장

불교 교리등 효율성 고려한 법회를
지역 신행 · 직장단체간 교류 절실

신행, 직장직능

신행단체와 직장직능단체 포교를 담당하는 팀은 신행 · 직장직능단체 소속 포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 전체모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찰과 신행 · 직장직능단체의 관계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신행 · 직장직능팀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활동하는 팀간의 상호교류가 절실하다.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팀원들의 역량으로는 상시 포교활동을 펴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행단체간 또는 직장직능단체간 외에 신행 · 직장직능단체간 교류도필요하다.

김영석 대구경북포교사단 직장직능팀장

자원봉사, 상담

자원봉사와 상담활동은 팀의 뚜렷한 역할, 활동목표, 추진방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팀 조직의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피상담자와 봉사현장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소재의 활동영역 개발도 시급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군, 교도소, 어린이팀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현장실습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류재창 서울경기포교사단 상담팀장

이렇게 들었다

존엄성 어떠한 것과도 비교 안돼

생명존중

지구촌 곳곳이 폭탄테러로 비상이다. 발리에 이어 20일 필리핀 남부 삼보앙가의 로마가톨릭 성당 인근에서 '폭탄 테러'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발생, 적어도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필리핀에서 이달 들어 네 번째 발생한 폭탄 사고로,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숨지고 220여명이 부상했다. 필리핀에서는 또 지난 18일 수도 마닐라에서 새벽과 밤 2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스라엘 북부지역에서도 21일 퇴근길에 강력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한 14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과 언론들이 전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지역, 나이, 성별, 종교, 빈부, 피부색을 떠나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리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중생들이 법을 등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량없는 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상응부경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 변치 않아서 방편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구호해야 한다. <범망경>

▒국토의 평등이 인간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인간의 평등은 모든 만물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불 로 초 스피루리나는...

미국 NASA 우주국 건강센타 발견 **우주인이 먹는 바로 그 식품**

스피루리나 효능(유엔보건기구 등 세계가 인정한 임상실험)

스피루리나는 세계 선진 20여개 유명 의과대학 및 연구소에서 저나 사람을 임상실험한 결과 각종 성인병 특히병의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한 효능 입증

- ▶ 과음, 숙취, 만성피로 -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면서 그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포함 되어 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함
- ▶ 야간에 일하는 사람 피로가 없음
- ▶ 당 뇨 - 낮은 열량을 가진 고단백식품, 아연(Zn)은 인슈린 홀몬 생산의 중요 역할
  - 60일만에 정상혈당 수준으로 회복된 여러사례 보고됨
- ▶ 빈 혈 - 혈액속의 적혈구는 골수속에서 단백질과 철분의 결합으로 생산
  - 45일만에 빈혈환자들의 적혈구 및 헤모글로빈 수치를 정상화 시켜줌 (동경국립대 의과대학 다께우찌다다야교수)
- ▶ 암예방 억제
  - 베타카로틴(시금치의 40배)이 체내에서 대사되어 생산되는 레탄산은 암을 예방하거나 개선(파리 생루이 병원의 로라보고스 교수팀)
- ▶ 갑상선 페닐알라닌, 라녹신, 등 천연홀몬함유
- ▶ 강장작용
  - 감마티놀렌은 생리활성화 물질인 국소홀몬 프로스티글라딘을 생산하는 기본물질을 스피루닝 1300mg함유(서울농대 교수 임규용 박사)
- ▶ 골다공증 흡수율 95%이므로 골다공증을 메꾸어줌(보통음식 소화흡수율 30%이하)
- ▶ 간질환 메치오닌
  - 고단백, 고비타민 섭취와 충분한 영양공급이 간세포를 회생시켜주며 스피루리나는 더할 수 없는 간의 영양공급원
  - 간복수 ■념
- ▶ 위산과다 및 위궤양
  - 염록소에는 성장세포 촉진제(CCI Cell Croning Facor)가 들어 있어 단시일내 효과
  - 15일 이내 속쓰림 없어짐(동경국립대학 . 야마자기 요시또 박사)
- ▶ 콜레스테롤 정상화 이노시톨 100mg - 염록소에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 1.6% 염록소 함유 (고려대학교 유태종 박사의 식품보감)
- ▶ 심장병(염록소 다량 함유)
- ▶ 산성체질 - 영양과잉에서 온다
  - 강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야채보다 2-3배 높음
  -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90%가 산성체질
- ▶ 수험생 영양공급(커피 먹으면 안됨)
  - 피로감을 덜어주며 염록소와 감마리롤렌산은 두뇌작용을 활성화시켜 추진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므로 수험생의 영양보호식품으로 최적
- ▶ 임신부 - 아이가 강하고 머리가 좋아짐
- ▶ 암예방 및 전이 억제 효과
  - 암의 예방과 억제를 시키는 베타카루틴,비타민E,SOD가 스피루리나에는 지구상의 어느 식품보다 많다.
  - 항암제 치료시 간과 신장기능에 주로 독성 경감시켜 줌
  -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암세포 침입을 억제하고 정착을 억제함(미국립연구소Wolf1922)
- ▶ 다이어트 효과, 변비 ▶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 ▶ 면역활성력 향상(항체를 만드는 역할) ▶ 우울증
- ▶ 고혈압 억제, 혈압 정상화(칼륨 2000mg)
- ▶ 피부가 좋아짐 토코페롤(비타민 E20mg)
- ▶ 신경통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골관절염 핀토렌산(비타민 B 복합체 12mg)
- ▶ 중금속 약품에 의한 신장독감소 시킴
- ▶ 노인성 백내장 ▶ 고혈제 후휴증 ▶ 해독작용

유엔세계보건기구(WHO)의 학자들은 녹황색 야채를 권하는데 현재의 야채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21세기에는 스피루리나가 방사능, 다이옥신, 수은, 납 등을 해독할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계를 각각 정상으로 유지토록 하는(항상성 유지작용)꿈의 천연식품

김 완 수 박사

전미국 워싱턴 대학교 수산연구소 연구원
전서울 대학교 지연과학대학 대학과학 주임교수(대학생 물리)
전미국 워싱턴 대학교 수산내학 객원교수
한국 해양학회 회장 역임
국무 총리 기획 조정실 수산 해양분야 정부시책 평가교수역임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전립선 염 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힘, 자신감이 생깁니다.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잔뇨, 빈뇨,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발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국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

1.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2.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3.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4.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6.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 평소 잠을 자다가 (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험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열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0시 30분(본방) 오후 3시 30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9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 (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북성주	• 위치 : 경기 가평
• 법 당 : 45평	• 법 당 : 10평	• 법 당 : 15평
• 요 사 : 50평	• 요 사 : 20평	• 요 사 : 40평
• 부 지 : 129평	• 부 지 : 18,000평	• 부 지 : 2,000평
• 가 액 : 5억	• 가 액 : 2억 8천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구 함

● 기도, 공부하는 스님
● 작은토굴, 농사 지을수있는 약간의 땅
● 임대해 주실분
019)875-1717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심단 법단 특급시설입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심야전기 온돌

▸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토굴 및 토굴겸 집터안내

● 위치 : 경주 양북	● 위치 : 밀양 매화리
● 부지 : 75평	● 부지 : 약 400평
● 요사채 : 30평(2동)	● 요사채 : 20평
● 매도가 : 4천 5백	● 매도가 : 1억 5천
※ 경주에서 감포방향	※ 버스도로에서 300m 올라감
※ 언덕베기, 바다가 보이는 전망	※ 주산 청룡 백호 안산 만점
※ 뒤는 산 앞은 마을, 차진입	※ 도로 전기 지하수 허가해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상주 옥산
● 대지 120평 법당, 요사채,
● 부처님 다섯분 모셔져 있음
● 내부수리 완료, 10년된 사찰, 뒤에 텃밭있음, 조용한 시골등네 입구
● 가액: 4300만원
019)9756-6961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대로변 5층(엘레베이터 있음)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3)639-3388
011)529-6339
011)820-8314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1)9859-742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포교당
● 위치 : 일산지하철역 100m
● 법당 : 160평, 요사 방4개
● 보증금 : 전세 1억 8천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도심포교당으로 최고의 위치, 최고의 시설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 대지 : 80평, 법당 40평(3층)
● 요사 30평(1,2층)
● 양도가 : 7억(융자가능)
● 오래된 역사의 좋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 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심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덕산 옆
●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 목조 새건축 단청완료
● 대지 : 640평
●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당안내

● 위치 : 북구 주례1동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조 3층 건물의 2층 35평 산불 및 지장보살 산신 용왕불 모심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1000만원 월 45만원
051)327-0477
016)594-6959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 9638-8229

포교당, 선방, 암자 - 가장 싼 가격에 매각

● 양평 지게	● 용인 백암	● 가평 외서
대지 : 330평	대지 : 180평	대지 : 100평
건물 : 90평	건물 : 60평	건물 : 48평
● 안양시안양동	● 고양 성사동	● 대지 120평
18층건물내	7층건물내	대지 120평
2층 40평	5층 430평	건물 : 30평

여직원 구함, 부동산 경험有, 연령제한 없음
大田이북에 걸쳐 물건을 다량 확보 하였으며 확실한 비밀보장으로 스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대교물산 050)2224-3333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법당 : 30평, 요사채 2동(방 6칸)
● 대지 120평 교통편리하며 포교 최적지
● 가액 : 6000만원(전세가능)
063)634-8733
016)441-0097

토굴주택안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명봉사 10분거리
● 대지: 200여평 사용가능
● 건물 2동, 방 4개, 보일러 기타시설 완비
● 부처님 한분 모시고 있음 해발 600고지, 계곡끼고 경관이 수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1500만원(절충가능)
011)541-9457
054)822-7497/054)652-1184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3분거리 수원드림입구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833-359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들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2, 6호선 신당역)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 부지 : 160평(종교용지)
● 법당 : 20평(2층)
● 요사 : 30평(1층)
● 가액 : 3억원
● 특징 : 뒤는 산이며 광안리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도심사찰로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임.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소재
● 부지 : 약 10,000평(전, 대지)
● 법당 : 30평(한옥)
● 가액 : 3억원
● 특징 : 토목공사비만 3억이 소요된 아주 좋은 절터이며 납골당, 실버타운 또는 대작불사를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 220평
● 요사채 : 30평 이상
● 법당 : 23평
● 산신각 : 5평
● 공양간 25평,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1)226-2880

사찰(급)안내

● 위치 :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 내려다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 존농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 목조
● 가액 : 1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이좋은 도량 임 대형차량 진입 됨 주차장 약 200평

017)595-5958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산청, 황매산 서편
● 부지 : 약2천평, 군유지 밤산 약 5정보
● 건물 : 신축버당 30평 요사체 2동그외
● 특징 : 지리산 천왕봉 안대 최고명당 비구니스님 선원자리 최적
● 가액 : 2억 7천만원
016)836-132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소재(극도변)
● 부지 : 대지 350평
● 건평 : 법당 25평(기와 단청판)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30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 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개
● 신신각 및 용왕당, 현역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펜요시 건물 증축가능
※부산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 2억5천만원(감정가 1억 8천만원에서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시 5분거리
●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청 옆 5분거리 4층 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주방, 주지실, 상담실, 화장실별도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 보증금 :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32)652-9384
011)729-6011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음 사찰 100m 앞에는 운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 답사후 절충
018-223-210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월마트 건너편
● 평수 : 23평 방1개, 주방1개, 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52)296-2422
019)419-14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 대흥동 부근
● 건물 45평(쑥뜸방 운영 중)
● 방 2개, 욕실완비, 교통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7)429-0501
042)221-4502

사찰(급)안내

● 위 치 : 서울 포교당 23평
● 보증금 : 400만원
● 월 세 : 35만원
● 시설비 : 약간
● 전철 버스 정류장 앞
● 위 치 : 충남
● 부 지 : 120평
● 법 당 : 9평
● 요 사 : 2동 40평
● 가 액 : 2억 3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1)232-4082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시 대동(김해시청, 부산구포 15분거리)
● 부지 : 종교용지 526평, 임야 13,350평
● 건물 : 요사체겸(복지관) 스라브 72평, 주택(주지실) 35평
● 법당 목조 10평(큰 법당신축가능) (4년전 증축 총공사비 건물, 옹벽, 도로포장, 심야전기, 위생시설 7억 5천)
● 특징 : 100년된 소나무 고불상 앞 뒤 산 소나무 수려
● 사용 : 기도도량, 실버타운, 침애원, 복지관, 고시원, 독서실, 납골당등 다목적 사용가능
● 시가 : 5억 절충가능(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55)335-6574, 011-704-3338 주인직접 매도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민락동
● 대지 : 약 100평 임법당
● 지하철역 5분거리
● 가액 : 3억(절충가능)
011)856-1754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2000평,
● 법당 가건물 :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016)868-5517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근처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25평(임법당)
● 요사채 : 1층 70평, 2층 30평
● 특징 : 교통요지 운영양호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41)337-63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탈 종 공 고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 1동 114번지
○ 사찰명 : 황령산 우암사 ○ 주지 : 하순남

위 본인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으므로 탈종공고를 하는바 금후 일체 연락을 단절합니다.

대한불교 총화종 법하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광안리 지하철역에서 5분거리
● 대지 : 151평
● 대웅전 : 14평
● 요사채 : 18평
● 특징 : 광안리 앞바다와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1)9994-412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 1억 9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 남양주
● 건평 60평
● 브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 시설비 5500만원(조절가능)
● 시설물 : 도시가스, 방2개,
● 사무실1개, 욕실, 공양간, 화장실2개
031)555-406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사찰안내

● 위치 : 안양시내
● 대지 268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가액 7억 7천(융자가능)
● 안양시내를 관망할 수 있으며 대웅전 불사할 대지터 있음
011)530-1975

탈 종 공 고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산 65번지
○ 사찰명 : 원 경 사 ○ 법명 : 일봉(一棒)

위 본인은 귀종단의 종헌 종법이 맞지 않으므로 탈종공고를 하는바 금후 일체 연락을 단절합니다.

불기 2002년 10월 30일

대한불교 총화종 법하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전주시내 전통 한옥 5칸
● 접집, 고가집
● 대지 78평, 건평 65평
● 큰방 3개, 별채 방3개, 전체수리
● 가액 1억2천7백(융자가능)
● 창건을 원하시는 비구니스님 또는 보살님 답사요망
063)287-8481

사찰안내

● 경남 밀양
● 대지 210평 임야 300평
● 신축법당 21평 단청완료
● 흐신불1500위중 800위 남아있음
● 요사채 26평
● 사정상급해서 가액 1억 5천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1)597-1668

토굴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용계동
● 대지 : 150평
● 법당 : 30평 방6개
● 지장보살님 봉안
● 가액 : 전세3000만원 연 500만원
● 매월 지장기도 영가천도 법회 위폐 월 500위
053)962-0503
016-502-152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시설 녹지) 2500평
● 가건물 3동
● 신도가구수 5천세대
● 가액 : 10억
011)597-4453

제 명 공 고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사찰명 : 선원사 자비원 ○ 주지 : 법성 신종학

종헌 종법 제3장 15조 5항, 제7장 34조 3항에 의거하여 제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23일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회의장 황 관 능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448-1144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011-732-6933

북한산 노적사
화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 도 (음)매월 7일 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X 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형립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354-7900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봉황산 미륵암
(영통철학관)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사봉면 마석리 남마성
055)759-5119

영장산 극락도량 **성 보 사**
사찰이전 개산법회
2002년 11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7-149
031)753-3360
주지 영인스님 합장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수도사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법 회 안 내
여래사 약사만다라 대법회
일시 : 2002년 11월 2일(土)
오전 10시30분
서울 성북 성북동 168-100
02)3673-3881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영장산 극락도량
보 현 정 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608동 102호
031)969-6937~8

북한산 용암사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51번지
02)387-3216

참선 관음기도 자비도량
반 야 선 원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3리 764-1
031)766-8723

달 마 선 원
초하루 보름법회 오전 11시
경기도 토당동 888-13 성보빌딩
031)973-0100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581-0770

소원성취기도도량
재단법인 성운사
정기 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촌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지장기도도량
김포큰절 무량사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1리 산269-16
031)989-751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같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은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031)641-6311 www.wonkyungsa.com

영 가 천 도
영가천도 말이 필요없습니다. 양평 정도사로 오세요.
http://myhome.naver.com/jto339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 1리 대한불교조계종 정 도 사
031)771-0227

모십니다
신세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합아버지 합머니를 모십니다
041)952-4197
016)9311-4103
02)996-3813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02)225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영탑사
031)867-4131~2
018-370-4133

부전스님 구합니다
▷ 조계종 스님
055)552-5111

사찰운영하실 스님 구함
▷ 경남 창령군 남지읍
011-9801-343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30~45세
011-558-6221

부전스님 · 어린이 법회선생님 모십니다
031)266-6526
018)357-6526

사찰 사무원(女) 구합니다
▷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50세 이상
02)3216-7141
017-206-0789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054)976-8116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017)260-3310

한 식구와 같이 지내실 공양주를 모십니다
011-244-0265
031)286-0265

산세 수려한 조용한 사찰입니다.
같이 기도 하면서 지낼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254-5125
011-565-55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인제군
033)461-7294
011-710-7294

사람을 찾습니다
성함 : 범옥균 성별 : 남 나이 : 56세 키 : 165cm
특징 : 언어 청각 장애가 있음
전남 옥과 성륜사에 계셨는데 어떤스님이 모시고 가셨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음 가족이 애타게 찾고있습니다
017-653-1077/011-9723-1043

사무를 함께보실 공양주와 기도수행하실 신도님을 모십니다.
018-587-236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정릉
02)914-6187

공양주 보살님 구함(충주)
산세좋은 조용한 암자 비구니 스님 1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실 분 구합니다
043)855-7127
011-711-7127

기도 및 공부할 수 있는 인연 사찰 연락바랍니다
011-9253-911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분당
031)719-0408

조용한 산사에서 수행정진 기도하실 스님과 행자 각 1명을 구합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5747
011-722-3418



사주 오행 쑥뜸
냉증, 만성질환자
퇴직자 부업 상담
031)447-8090
안양 인안구청 / 명학역 앞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해인서림
www.hoedang.or.kr
02)942-0127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6·7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 안내
첫째주 수요일 : 불교교리 및 경전
둘째, 넷째주 수요일 : 정토선 염불 정진
셋째주 수요일 : 절수행 강좌 / 청견스님
문의 02)722-1050

감사의 말씀
2002년 10월 19일 의정부 자비회관 3층에서 공연된
의정부 룸비니 어린이 합창단 작은음악회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룸비니 합창단 단장 합장
019-246-1679

(사)한국여성불교연합 사무실 이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번지
상깰러리 4층 401호
사무실 내 연꽃교육장(40석) 연중개방
02)737-5586/5568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국제포교사고시 11월 10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
접수기한은 11월 1일까지.
02)720-7060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국청회 '천수경 강좌'
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 정각스님
초청강좌 - 매주 수요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
02)730-1249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참마음 수련 심전 대광사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033)435-3166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윤진공예
대표 최윤구
053)954-2410
011-504-8845
701-806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96-1

조양향단
대표 박규점
031)571-3091
017-226-6462
471-08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82-6

성일양초
대표 박정하
053)851-7024
016-568-8000
성일양초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초를 만듭니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성화불교전시관
02)2209-0080-1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오래된 해소 천식에
효과좋은 토종약초 있습니다
▷ 약사여래포교원
043)645-7604
011-748-7604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챔차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낙화 (민속촌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승복 · 한복
유 마
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02)730-9994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Mo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연지플라워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불자님께 최신형핸드폰을
최고 25%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016-838-1787

현 대 자 동 차
자동차의 모든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011)284-3361



특별합니다!! body wash cream 올파소
선덕빛소금(1000℃ 약용소금)+키토산(고분자) + α = 합성크림
강력한 삼투압작용(해녀 손소제거, 노폐물제거, 피부세포재생)
이런분께 권합니다
★각질제거, 미백효과
★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로 고통받는 분
★주부습진, 무좀, 아토피성피부염
★출산후 부기나 부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 탁월한 효과
★부부가 같이 쓰시면 특별합니다
★건성, 중성, 지성피부어 다 좋습니다.
50g 6개(1set)=25,000원
(고가의 화장품과 비교해 주십시오)
품질인증 및 소금 함량으로 특허출원 신청 심사를 통과하고 기술이전을 받았다. 본 제품은 미국FDA에서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유황소금과 키토산의 합성크림으로 부작용이 전혀없고 항균성과 보습효과가 있어난 제품입니다.
(주)올파소 특판사업부 02)942-5470~1 소장 : 임현택
사업자등록번호 209-05-88613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49 벤처타운B/D 202호

한국목탄연구소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325-0300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붓다 예술원
단청, 탱화, 개금
대표작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일주문, 종각 단청
곡성 태안사 대웅전, 극락전,
천불전 단청
대구 염불선원 대웅전 단청 이외
130여 사찰 단청 및 탱화, 개금 시공
30년의 전통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불사를 임하겠습니다
원적암 혜원(스님)합장
011-509-0124

동성불교사
개금 천불 · 범종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천막 법당으로 시작 내원정사 창건 30돌

부산일대 교육·복지불사 선도

11월4~5일 기념법회 등 행사 다채



◇내원정사 유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아교육의 명문으로 통한다. 사진은 유치원생들이 '옛날시장 먹거리장터놀이'를 체험하는 모습.

1972년 구덕산 자락의 천막법당으로 시작했던 부산 서대신동 내원정사(주지 정련)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교육 및 복지불사를 선도하는 대가람으로 성장했다.

11월 5일 창건 30주년을 맞는 내원정사는 11월 4~5일 30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와 만등불사 회향법회를 열어 보다 내실있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자리를 갖는다. 1972년 5000평 대지에 시작된 1차 가람불사를 통해 대웅전, 관음전, 요사채, 종루 등의 크고 작은 당우 12동의 불사를 완성한 내원정사는 1885년 내원정사유치원 건립의 첫 삽을 뜨면서 교육불사를 시작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내원정사유치원은 정련스님의 과감한 투자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로 유아교육의 명문이 되었다. 입학을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물론 내원정사유치원에서 발간한 '우리얼 싹 틔우기 자료집'이 경기지역 유치원 공동 교재로 채택되었고 7차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의 교재로도 발췌 수록되었을 정도다. 특히 1300평의 야생화꽃밭, 1500평의 농장을 활용한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통한 생태교육은 생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전인교육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참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육뿐 아니라 석암장학회를 통한 중,고,대학생 학비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불사. 선사이자 율사였던 석암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장학회는 2000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처님 법을 세상에 펴는 포교 방편으로 진행된 내원정사의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설립과 동시에 몰운대종합복지관 위탁받은 내원정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불사에 돌입했다. 합지골청소년수련원, 장애인시설 반야원, 중구청소년문화의 집, 부산사하자활후견기관, 내원시니어클럽, 합천군청소년수련원 등 무려 7곳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위탁 받아, 산하단체 직원수만도 16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인수한 거제도 장애인복지시설 반야원은 부산경남에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최초의 장애인복지시설로 2003년 완공 예정으로 증증장애인시설 신축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은 "실천하는 불교, 실천하는 불자를 키워내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이었다며 "앞으로 복지, 교육, 포교를 통해 부처님법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가꾸는 중심 사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전통문화바탕 교육개발-유아교육 명문

청소년에 장학금·부경 첫 장애인시설도

부산 아태장애인대회·제주 전국체전서도

불교 서포터즈 맹활약 '예약'

불교계의 서포터즈 활동이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제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는 삼광사 감로사 용호복지관 불교TV염불공양모임 등이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도 약천사 법화사 금붕사 보현사 등 22개 사찰이 각 도 선수단의 경기관람 및 응원, 음식지원 등 선수단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개금복지관과 영주암은 스리랑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며 부산불교복지관협의회 소속 복지관과 사찰들도 각국의 서포터즈로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 8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종교화합의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천미희 기자

"종교갈등 태고 원융사상으로 해결"

김용표교수, 실천원리·방법 개발 필요"

태고보우의 원융사상으로 현대 사회의 갈등을 풀어 보자.

태고학회(회장 무공 스님)는 25일 '현대 사회의 갈등과 태고 사상'을 주제로 제5차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나눠 열린다.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종교간 갈등의 해법을 태고의 원융 사상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태고의 사상은 교리나 전통의 차원을 뛰어 넘어 다른 종교사상과의 본질적인 원융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대립의 극복을 위한 원리를 현실에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준 교수는 "태고보우는 왕사나 국사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당시 봉건사회의 특성상 임금이 불교적 왕도를 실천하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화엄사 사리장엄구등

13건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엄사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사진, 보물 1348호) 등 1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또 ▷태안사 동종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 괘불탱 화엄탱 영산회상탱 청동은입사봉황문향완 ▷초조본아비달마계신족론 권하 ▷초조본현양성교론 제삼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유일하게 완본이 전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삼국유사 권1~5〉는 보물 지정과 함께 국보로 승격하기로 하고 지정 예고했다.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기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4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권형진 기자

노인 300여명 초청 경로잔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흥겨운 놀이마당

효녀 심청이가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열었다는 잔치가 이러했을까?

1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마련한 한마음경로잔치에 참석한 영도구 동삼1동 일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공양을 대접받으며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노인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는 공양에 이어 지원장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놀이마당을 열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환하게 열어놓았다.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혜도스님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공간이 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19일 개최한 경로잔치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일대 노인 3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어르신들이 장고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이천 용학사는 23일 납골추모관인 목련관 준공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단풍 물든 산사서 음악회

11월3일 남양주 봉인사, 9일 해남 미황사

붉은 단풍으로 뒤덮인 산사에서 잇달아 음악회가 열린다.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수련원인 자광전 개원 3주년을 맞아 11월 3일 오후 2시 경내에서 '제3회 산사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혜국스님(남국선원 조실) 법문과 가수 임지훈씨의 산사 콘서트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 임지훈씨는 이날 산사음악회에서 '사랑의 썰물' 등 10여곡을 부를 예정이다. 또 노래꾼 손병휘씨가 특별출연해 '속눈썹' 등을 들려주며 사물놀이패 온시미로와 법고연주가 하유스님도 찬조 출연해 흥을 돋운다. (031)574-5585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1월 9일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괘불제와 작은 음악회를 연다. 오후 1시 보물 1342호인 미황사 대형괘불 아래에서 바라춤과 나비춤 등 의식을 선보이는 괘불제와 금강스님의 종문양 탁본 시연이 열린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서울대 이애주 교수가 '미황사 창건 서사시'를 춤으로 풀어낸 춤사위, '우수영 부녀농요' 팀이 들려주는 들노래, 명창 정기열 판소리, 땅끝마을 어린이들의 '동요부르기', 지역부녀자들의 '군고(群鼓)' 시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061)533-3521

박봉영 기자

1천기 납골 '목련관' 준공

이천 용학사, 삼존불상 점안 법회도

이천 용학사(주지 혜봉)는 23일 1천여 기의 납골을 봉안할 수 있는 목련관 준공 및 삼존불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선망부모 조상영가 천도법회도 함께 봉행됐다.

목련관은 연건평 108평규모로 지상1층은 납골추모관, 2층은 법당이다. 이날 혜봉스님은 "목련존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납골 추모관인 목련관을 준공하게 됐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31)632-4885 강유신 기자

해남 대둔사 명칭

대흥사로 일원화

해남군청과 대흥사는 23일 사찰명칭을 대흥사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해남군 도로와 관광안내판의 사찰명도 통일하기로 했다.

92년 3월 산의 옛 이름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대둔사(大芚寺)'로 사찰명을 바꾼바 있는 대흥사(大興寺)는 명칭이 혼용돼 두 개의 사찰로 오인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김원우 기자

영남불교대 '좋은인연' 법인설립

복지사업 본격화, 3일 복지관 개관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이 사회복지법인 '좋은인연'을 설립,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나선다.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인근 여관을 매입, 11월 3일 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영남불교대학 불교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연건평 400평)로 노래방, 강당, 노인휴게실, 사무실, 탁아방, 개별상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는 영남불교대 불교간병인회, 불교상조회, 포교사단, 전화상담실, 무료급식 장학회 등 신행봉사단체, 연화봉사단 등의 단체가 활동을 벌인다.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님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한자리에서 수행과 정진을 할 수 있는 종합수행 복지시설의 원력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계속해서 유치원 건립 불사 등을 진행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김영세(왼쪽에서 세 번째) 씨가 심곡암을 참배하는 불자들에게 관음굴 산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탱화·달력 등 그림으로 불사"

심곡암 산신도 그린 김영세 작가

"북한산 산신은 여신이에요. 고고하고 단아하며 자비로운 여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 무척 고민했어요. 수수하고 영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돌가루 물감을 구해 썼구요. 아교를 중탕으로 녹여서 붙여 입체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

북한산 심곡암 관음굴 안. 산신탱화에 대해 설명하는 젊은 보살의 모습이 진지하다. 이야기를 듣는 불자들도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처음 볼 때부터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산신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숨겨진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표정이다.

'여산신탱화'에 대해 설명하는 보살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김영세(佛母行 32)씨다. 산신도는 김 작가가 작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며 하루 16시간 넘게 그림 그리기에 매달린 끝에 완성시킨 것이다.

보통 여신도들을 '보살'이라 부르지만 심곡암 주지 원경스님은 김영세 씨를 '김 작가'라고 부른다. 김영세 작가는 현대미술을 전공하고 개인전도 몇 차례 개최한 현직 화가이기 때문이다.

95년 무렵 김 작가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는 평범한 미술학도였다. 김 작가는 우연한 자리에서 미국을 방문중이던 원경스님을 알게 됐다. "그 때 스님이 하시는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참되게 살려면 불자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 작가는 한국으로 돌아와 자연스럽게 심곡암 신도가 됐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는 심곡암에 찾아온 김 작가는 이 때부터 사중에서 하는 일 중 그림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나 손길을 내민다.

심곡암이 매해 개최하는 산사 축제에도 김 작가에 의해 한결 멋진 축제가 되고 있다. 불자들을 초대하는 초청장이나 팜플렛에는 어김없이 김 작가의 그림이 들어간다. 또한 매해마다 심곡암이 만드는 달력도 김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만든다. 일반인들이 호응이 좋아 매해 마다 달력을 구하기 위해 작은 소동이 일어날 정도다. 올해에는 아름다운 한국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예쁜 엽서까지 제작했다.

"한국 사찰들은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유산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 불교 미술은 너무 획일적이에요. 제주도 사찰 단청이나 강원도 사찰 단청이 매 한가지죠. 그래서 불교 미술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작가의 손끝에서 한국 불교 미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강유신 기자

산사축제 팜플렛 등 제작에도 도움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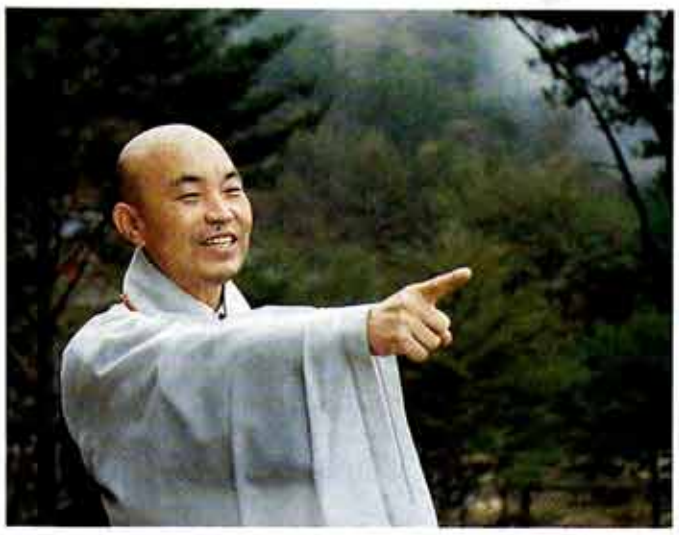
추천의 말

원경스님 심곡암 주지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부처님 은덕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갚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김영세 작가는 자기 재주로 부처님 공덕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심곡암은 매년 한국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산사축제를 개최하고, 달력을 제작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재주를 이런 일에 쏟아, 산사축제와 달력 불사 등 심곡암 행사를 원만하게 회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가와 불자로서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은 불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도락산 64만평 성지화… '世界一花' 도량 선다



"상구보리·하화중생위해 많은 불사 일으키겠습니다"

광덕사 대작불사 여념없는 혜인스님

부처님께서 "너는 왜 출가를 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혜인스님의 답변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발원하옵건대 상구보리하고, 또 하화중생을 위해 많은 불사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혜인스님은 시쳇말로 불사의 귀재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귀중한 볼거리의 하나로 자리잡아 외국인은 물론 신혼부부들까지 꼭 들러 참배하고, 적어도 관람하는 명소인 대 도량 약천사를 세워 조계종에 등록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약천사 불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사규모에 콧방귀를 뀌거나 비웃는 눈길도 있었지만, 지금 약천사는 하루 평균 버스 80대 정도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절이 된 것입니다.

스님의 불사관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명분을 갖는 부처님 심부름을 하자. 그 원력으로 추진해 마침내 이루어지면 회향이고, 또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전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은 오늘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작불사의 경우 보람이 큰 만큼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스님이 늘 견지하는 '성공철학'이 있습니다.

"뜸이가 맞아야 더 잘돕고, 열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녹으면 물의 양도 많아지듯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않고 후퇴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다."

한편, 스님의 수행 정진 이력은 투철하다못해 무서울 정도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들 합니다. 불사 추진력도 기도 정진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출생해 15세에 불교에 입문하고 16세에 계를 받아 스님이된 혜인스님은 18세부터 참선 정진에 주력했습니다.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동안거를 시작으로 제방선원에서 효봉스님, 금오스님, 동산스님, 향곡스님, 경봉스님, 성철스님, 서옹스님, 일타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수행 하였습니다.

이후 교학을 겸비할 뜻을 세우고 늦은 나이에 해인승가대학에 입학해 18회로 졸업하였습니다.

"역사와 함께 빛날 값진 '문화유산' 만들터"

부산~강릉 걸식도보…200일간 100만배 정진

강원과 선방을 두루 섭렵한 스님은 보행정진을 통한 만행을 결행합니다. 21세에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걸어서 걸식을 하며 마침내 강릉 보현사에 도착해 100일 동안 묵언정진하면서 하루 3천배씩 100일 기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그후 성철스님의 가르침으로 해인사 장경각에서 매일 5천배씩 2백일 동안 100만배를 성취 회향하게 됩니다.

광덕사 불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스님은 현재 중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축원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광덕사 스님 처소 앞마당에 서있는 특이하게 생긴 소나무들이 바로 그 교재입니다. 열정어린 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보이는 소나무, 중년 부부의 모습을 한 소나무 두그루, 노년의 부부 모습으로 효심을 떠오르게 하는 소나무… 스님은 이들 소나무에 사랑송(松) 화목송(松) 효도송(松)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이들이 이처럼 되라고 늘 축원합니다.

단양 도락산 광덕사 '금동대불 백만불전'



◇도락산 정상 가까이 자리한 극락전.



◇11월2일 기공식에서 공개된 '금동대불 백만불전' 조감도.

세계인이 함께사는 법계도량 '단양 제9경'

연건평 3천평…복장 등에 1백만불 봉안

옥상에 33m 금동좌불…어깨까지 108계단 올라 참배가능

충북 단양 바위산으로 유명한 도락산(道樂山)에 세계인이 함께 수행하며 살 이른바 '사해일가 세계일화(四海一家 世界一花)' 도량이 들어섭니다.

광덕사 회주 혜인스님이 1천고지 64만평을 성지화하고 '금동대불 백만불전'을 건립합니다.

연건평 3천평에 들어설 백만불전은 법당내 엘리베이터 4대가 설치되며 꼭대기인 6층 옥상에 높이 33m의 금동좌불이 봉안되고, 부처님 좌대부터 어깨까지 108계단이 설치돼 직접 올라가 참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만불전 안에는 방사가 100개가 들어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넉넉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인종 국가 민족 성별 신분을 초월해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수행정진하는 산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만불전이 완성되면 이미 들어선 산정상 인근에 위치한 극락전과 함께 도락산 덩어리가 하나의 법계도량으로 장엄한 면모를 드러내 단양의 팔경에 하나를 더 보태 '단양 제9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1월2일 마침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가는 도락산 광덕사는 지금 한마디로 불사중입니다. 산아래 백만불전 자리에는 포크레인이 터를 닦느라 분주하고 정상 가까이 극락전까지 도로포장 및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도락산이 새롭게 20세기 불교성지로 거듭나는 역사의 현장 그 자체입니다.

광덕사 불사의 착수는 아주 간절하게 10여년 품어온 회주 혜인스님의 원력에 마침내 시절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낙산대불보다 더 거대한 불사를 일으켜 민족이 화합해 통일되고 세계인이 부처님 품안에서 어울려 살며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원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0년의 일입니다. 혜인스님은 은사이신 故일타스님을 모시고 35일 동안 중국성지순례를 다니던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산 대불을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현지 안내원으로부터 낙산대불이 조성된 유래와 공덕을 듣게된 것입니다.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난데다가 괴질마저 돌자 낙산 주민들은 앞다투어 고향을 떠날 때,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방법을 찾고자 산신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원님 꿈에 산신이 나타나 '내 힘이 부족하니 이 산에 큰 부처님을 조성해 그 원력과 공덕으로 세상을 구하라'고 현몽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신심과 기도의 가피력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민족이 분단되고 지역갈등 가치관 혼란 등 편안치 못한 우리 현실에 가슴아팠던 저로서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 분명 우리나라에도 낙산대불보다 더 큰 대불을 조성하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남기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행하다가 가야한다는 뜻을 굳게 다졌던 것입니다."

귀국후 스님은 전국 방방곡곡 명산을 돌아다니며 대불을 조성할만한 큰 바위산을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국립공원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광덕사가 자리한 단양 도락산이 64만평 큰 바위산이라는 소식을 듣고 노력 끝에 매입하였습니다. 더구나 도락산은 우암 송시열선생이 글로 남겼듯이 애국애족하는 우국지사, 현인 달사들이 산수를 즐기고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라니 수행의 필수요건인 도량으로서는 최적지였습니다.

불사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면서 혜인스님은 젊은 시절 효봉스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사해일가요 세계일화이니라(四海一家 世界一花)"라는 법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서양은 한집안이요, 세계는 아름다운 인류의 한송이 꽃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언젠가는 실현하고 싶어 가슴깊이 묻어두었던 꿈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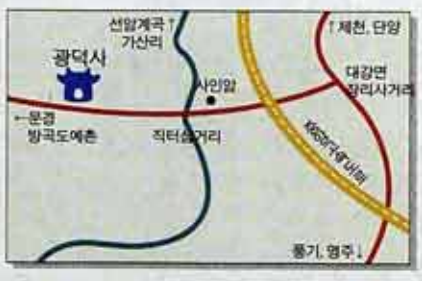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건립될 백만불전에는 세계각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수행하며 법담과 덕담을 나누고 마음의 벽을 허물며 한집안 한형제처럼 지내는 법계총림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수 있는 수행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참배하는 모든 이들이 감명을 받고 신심을 낼 수 있는 불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지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공덕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 수행하고 참배하기에 적합하고 다시 찾게끔 하기 위해 규모면에서나 기능면에서 특유한 법당으로 건립됩니다. 영산 도락산은 세계불교를 향한 한국불교의 산실 광덕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주 혜인스님은 종파에도 매이지 않고 비구 비구니에 착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나 모든 사부대중이 맘 편하게 함께 기거하며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운영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는 비구니 스님들과 신도들에 의해 공개 운영됩니다.

혜인스님은 또 "광덕사는 외국어를 잘하는 스님을 방장스님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또 원력에 부응하는 스님, 능력있는 불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밀어주고 협조하는 위치에서 수행하고 싶습니다."고 밝힙니다.



광덕사 오시는 길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호법 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남원주에서 중앙고속도로→제천I.C→단양방면으로→대강→사인암에서 3Km 지점 우측에 광덕사 위치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북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통기I.C→제천 단양 방면→대강에서 좌회전→사인암→방곡도예촌 방면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통기I.C→제천 단양 방면→대강 좌회전→사인암→방곡도예촌 방면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서울 청량리역에서 기차로 단양역 도착→사인암에서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로 단양터미널 도착→사인암에서 3Km지점에 광덕사 위치

금동대불 백만불전 11월2일 기공

법요식 이어 경노잔치 · 불자 노래자랑 행사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고마움은 한없이 내린 눈 보다도 더 많이 쌓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장 하옵고 기도드리오니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성취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11월2일(음9월28일 토요일)을 맞이하여 이곳 도락산에 '금동대불 백만불전' 기공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분향을 올려주신다면 더욱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삼가 초청하옵니다. 나무시방 불법승

광덕사 회주 혜인 합장

■기공식 안내

1부 법요의식

2부 경노잔치 및 전국 불자 노래자랑

■일시:2002년 11월 2일 오후 2시

■장소: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신축현장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터리 산30, 043)421-5604

금동대불 백만불전 불사 동참하세요



'평생축원' 자동가입혜택

★평생축원에 가입하신 불자님에게는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 평생동안 매월 음력 보름날마다 기도 축원 드리며,
- 사후에는 49재 불공시식 올리고
- 만년위패 봉안하며
- 동참금은 금동대불 백만불전 건립불사에 사용되고
- 동참자 명단은 금동대불 복장에 모시게 되며
- 비석에 영원히 새겨 역사와 함께 빛날 것입니다.

★백만불전의 대들보나 기둥불사 그리고 금동대불 조성 동참자는 평생축원에 자동 가입됩니다.

- 대들보: 오백만원
- 기둥 : 이백만원
- 금동대불 조성 : 일백만원

★불사에 동참하실 불자께서는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농협 749-01-340572 예금주: 봉찬회 광덕사

우체국 60064-02-038450 예금주: 봉찬회 광덕사

★문의: (043)421-5604, (043)421-4701

대전광역시 지법남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강남포교원 노인불자 공부모임

선우회





청춘을 부끄럽게 하는 늙음

못 말리는 순수와 열정

21일 오후 1시 강남포교원 3층 선실(禪室). 원장 성열 스님이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원전을 읽어가며 그 속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의 진지함 못지 않게 10여 명 학생들의 수강 태도는 말 그대로 모범적이었다.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불법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해탈했다. 어리석다는 생각도 알으키지 않고, 일체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불법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불법이 황금보다 더 귀한 건 분명하지만 그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되면 '황금 감옥'이 돼 버립니다. 불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스님의 강좌가 계속 되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앗!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려앉은 걸로 봐서 일흔은 족히 넘었을 것 같다. 무슨 학생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걸까?

노인불자공부모임 '선우회(禪友會)'. 매주 월요일 강남포교원에는 62세~84세에 이르는 거사 불자들이 책가방들을 들고 모여든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진

선우회 공부모임은 6년 전 처음 시작됐다. 노인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참선을 하고, 11시~12시 오전공부를 한다. 한 주일은 승가대 종범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또 한 주는 노자 주석서 강의 테이프를 듣는다. 일종의 자율학습인 셈이다. 하지만 자율학습이라고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는다. 의문 나는 점들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토론을 벌인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다시 성열 스님께 조언을 구한다. 12시~1시에는 포교원의 공양간에서 점심을 먹고, 1시~2시까지 성열 스님과 함께하는 오후 공부가 시작된다. 그동안 학생들은 육조단경, 선종영가집, 전심법요, 달마혈맥론 등을 공부했다.

학생들의 과거사는 '학생'의 반대편. 대부분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이다. 문학박사 · 철학박사 · 공학박사에, 대기업 중역도 있다. 젊은 시절부터 불이회, 구도회, 교사불자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불교교양대학, 한국불교연구원, 성천아카데미 같은 곳을 거쳤다.

이 학교(?)에서 60대는 햇병아리(?)나 다름없다. 그래서 60대 초반인 이성기, 민경식 거사는 자연스럽게 차(茶) 심부름을 도맡는다.

웃지 못하는 일은 이 뿐이 아니다. 스승인 성열 스님은 학생들보다 훨씬 아래인 50대 후반이다.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외국에 나가는 일 외에는 공휴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쉬자고 해도 노인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죽을 지경이예요. 어떤 때는 외국 책을 읽고 좋다고 번역해 와서 읽어보라고 내밀고, 또 어떤 때는 불교 논문 초고를 만들어 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생들로 골치 아픈(?) 성열스님

역시 학구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노인 학생들의 말.

"불교원전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이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잘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성열 스님은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다들 모이게 됐습니다. 원전해석에 불교의 여러 이야기와 가르침, 그리고 참선 지도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불교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매긴 성적표는 어떨까.

조홍식(82세) "공부도 하고 좋은 도반도 만났으니 이보다 더 알찬 성적이 있을까."

◇"나이를 묻지 마세요. 불법 공부하는데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입니까"라며 활짝 웃는 노인 학생들과 성열스님(사진 맨 오른쪽).

김해인(78세) "그저 열심히 정진해 나갈 뿐."

장기성(77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대해 반성."

스스로 자신을 평한다면

유병국(75세) "입문에 불과하고, 아직 부족."

문범주(74세) "자연과학을 기초로 불교 이해하려고 노력 중."

김병렬(74세) "간신히 따라감."

김동연(74세) "할수록 어렵고 끝이 없다."

류기동(73세) "불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 공부해."

이재순(69세) "교리에 대한 이해부터 단단히 하려고 함."

이창식(69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성기(64세)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민경식(62세) "즐겁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분 "초년생이어서 할 말이 없다."

글=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사진= 임민수 기자 jmnsoo@buddhapia.com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 너무 많아요"

생명 사랑 실천 이정덕 교수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이정덕 명예교수(65 · 동국대 가정교육과)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 9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연 '생명의 집'에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왼쪽 뒷다리가 잘려 나간 검둥이 '로또',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얼굴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던 '백구' … 모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지만, 일단 이 교수의 '작은집(?)' 식구로 들어오면 존귀한 생명체가 된다.

현재 '생명의 집'에는 1백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있다. 이 교수는 바로 이 생명체들을 돌보는 '엄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보기에 징그러울 정도로 심한 피부병이나 진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생명의 집'으로 옮겨진 식구들을 자식처럼 감싸안는다.

'집에서 7년간 키웠던 강아지 '로망스'가 집을 나가 길을 잃고 죽은 것이 계기가 됐어요. 충격이 컸지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잃은 슬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슬픔에 휩싸인 이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법정 스님(길상사 회주)에게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법정 스님은 업(業)이 달라서 모습이 다를 뿐 생명의 뿌리는 같다면서, 그렇게 괴로우면 49재를 지내주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지요" 곧바로 이 교수는 인연 닿는 절에서 정성껏 49재를 지내 주었다.

그때부터 이 교수는 길을 헤매거나 거리에 버려진 개와 고양이, 또 보신탕 집에 끌려가기 직전인 개들을 자기 아파트로 데려다 키웠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근 이웃들로부터 '개들이 너무 짖어 애들 공부에 지장이 많다', '불결하다'는 원성이 들려오자 아예 용인에 땅을 빌려 '생명의 집'을 세웠다. 요즘 '생명의 집'은 늘어나는 운영비 때문에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병든 개와 고양이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용인에 '사랑의 집' … 집잃은 개 · 고양이 돌봐

이 교수는 "인간의 사랑이 메마르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모자라 학대받고 버림받는 동물들이 우리 이웃엔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명체라도 돌보고 보호해 줌으로써 생명존중의 정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집'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집'은 꼭 살려야 할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 힘주어 말한다. 031)704-6315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생명의 집'을 운영하는 이정덕 동국대 명예교수가 식구(?)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다.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엮음
변형 A4판/147쪽/값 10,000원

"우리시대 불교미술" 한자리에

국내 최초 근현대불교미술 집대성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고작가 불교소재 작품 수록!

김복진(근대 최초 조각가) · 정종여(근대 최초 유화가) 부터 노상균(베니스비엔날레 수상작가)까지 대가의 다양한 불교미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은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 불교미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하여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궁극적 가치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신라 고려의 미술가들은 신앙활동의 하나로 미술작품을 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진솔하고 격조가 있다. 하지만 현대 작가의 경우는 예전과 입장이나 여건이 다르다. 불교미술이란 영역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불교미술의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험난한 판인지 이해된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깨달음까지 보태지는 미술, 이는 불교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

– 윤범모 (미술평론가 · 경원대학교교수)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 경주전 2002년 11월 2일 – 11월 19일(아트선재미술관) ■ 속초전 2002년 11월 22일 – 12월 1일(속초시문화회관) ■ 여수전 2002년 12월 초 (여수문화회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7층 Tel : 02)725-1132

여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릴레이 수행일기

"극락가면 뭐하나" 낙심 며칠간 계속

목터져라 부처님 외치자 환희심이…

차봉기 <上>
경주 동산한의원장



2년전 금강경독송회와 인연 맺기 전에는 마음 공부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점은 고친다"는 상식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것은 너의 생각일 뿐이니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부처님을 향해 부지런히 공경심을 연습하여 그 공경심으로 올라오는 마음을 바쳐보라. 그래야지 너의 업장이 닦인다"는 가르침을 알게 된 것은 독송회를 통해서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내어본 적이 거의 없었으나, 이 가르침대로 즐겨 피우던 담배를 끊어 보기로 했다. 담배가 건강에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고 피우고 싶은 마음이 날 때마다 "그 마음에 대고 미륵존여래불(독송회의 마음 바치는 방법)"염해 보니 담배 생각이 가라앉기도 하고 올라 오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정진을 계속했다. 처음엔 며칠을 반복해도 잘 안되었는데 이유는, "부처님께 바치면 그냥 해탈" 하리라고 입으로는 '미륵존 여래불'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정신차려 최대한의 공경심으로 바쳐보니 이번에는 그 마음이 쑥 빠져나가 버렸다. 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담배 끊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마음조차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며칠 후에야 깨닫고 바쳐보니 이번에는 그 자리에 시커먼 구멍이 하나 생겨서 계속 눈앞에 불어 다녔는데, 나는 이것이 다 끝난 자리인가 생각했고 나중에 지도해 준 김 모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아이구! 그 시커먼 구멍을 부처님께 드려야지"하시며 아쉬워했다.

"올라오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잘 들여다보고 닦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하는 그 마음도 하고 올력을 통해서 복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내 나름대로 노력 봉사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에도 참여하였다.

어느 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죽어서 극락가면 무얼하나?"로 시작해 온갖 짜증스런 마음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베풀었던 여러가지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엊저녁보다 더 심한 상태로 가슴이 미어질듯해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죽을 것 같이 답답한 마음에 대고 '미륵존 여래불'을 바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순간적으로 "부처님!"하는 공경심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시원해졌고, 부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환희심, 공경심이 샘솟듯 계속 올라 왔으며 그 마음을 계속 바치고 있으니 마지막에는 고요하고 평온해지더니 그냥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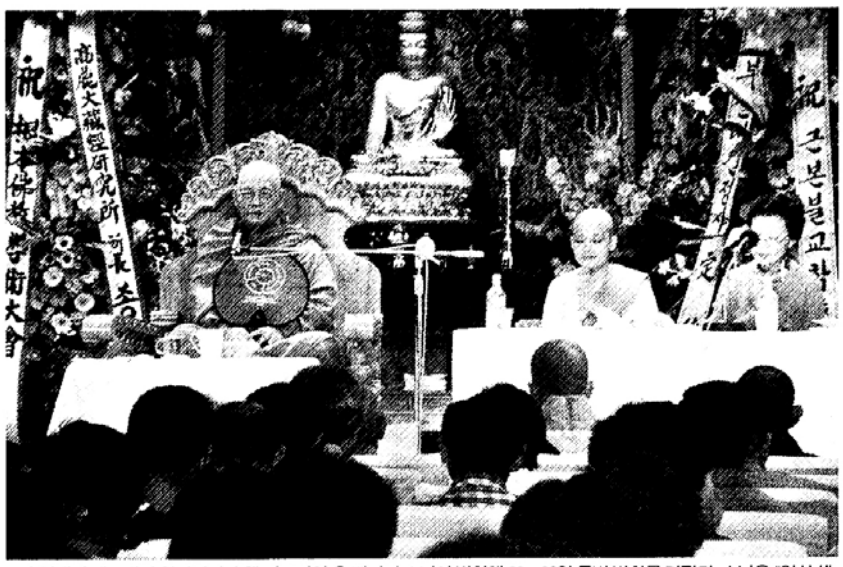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우 빤디따스님 위빠사나 강연

'사띠' 통해 번뇌망상 차단

일상가운데 마음의 평안 얻는것이 수행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을 그대로 보라"



◇현대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 지도자인 우 빤디따 스님이 방한해 20~22일 특별 법회를 가졌다. 스님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상에 마음을 밀착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번뇌가 들어올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요일인 지난 20일 서울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3층 대법당. 쌀쌀한 날씨에도 법당 안은 열기가 가득했다. 미처 좌석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통로 여기저기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다. 미얀마의 고승 우 빤디따(72) 스님 초청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우 빤디따 스님은 남방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이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알려진 위빠사나를 현대에 맞게 체계화한 미얀마의 마하시(1904~1982) 스님의 수제자. 1988년 한국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스님이다. 사단법인 근본불교 수행도량(이사장 원명 스님) 초청으로 18~23일 네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스님은 19일 근본불교 학술대회에서 기조 법문을 한 데 이어 20~22일 특별 법회 시간을 가졌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을 주제로 법문한 우 빤디따 스님이 시종 강조한 것은 수행과 일상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 스님은 "부처님 당시 여성들은 집에서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면서도 행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 불과(佛果)를 얻었다"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바른 방법을 알고 작은 것이지만 실제 행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스님이 말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란 무엇일까?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방일(不放逸), 즉 삼가야 할 일을 삼가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마음에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려 자신을 지키는 것, 곧 사띠(sati)를 통해서 번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염된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방법을 일러주겠다"고 운을 뗀 스님은, "지금부터 허리를 곧추 세우고 편안히 앉아 눈을 지긋이 감아라"고 주문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과 같은 움직임에 마음을 일치시켜 대상을 알아채라는 것이다.

"대상을 알아채고 본다는 것은 대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말이다. 노력이 있어 대상에 밀착됐을 때 탐진치 같은 나쁜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다. 바로 번뇌가 제거된 순간이다. 이런 게 1초, 2초 …, 1분, 2분… 이어질 때 사띠(sati)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감각적인 욕망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의 시작이다."

위빠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행방법. 그 중에서도 마하시 계통의 위빠사나는 배의 움직임 관찰을 강조한다. 우 빤디따 스님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쉬운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가장 쉬운 것은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곳에 마음을 기울여 보라. 몸과 마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몸이고, 그 중에서도 배다. 그래서 배의 움직임에 마음을 기울여 보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 빤디따 스님은 "여러분은 오늘 위빠사나 수행의 ㄱ, ㄴ을 배운 셈"이라며 "학교에서도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하듯 오늘 배운 ㄱ, ㄴ을 통해 깨달음과 그 결실을 얻었으면 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띠란?

마음지킴·주의집중 의미

탐진치 일지못하게 막아

위빠사나 수행의 출발은 사띠(sati)이다. 사띠는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상태로, 때로는 위빠사나 수행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띠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대념처경〉과 위빠사나'를 주제로 열린 근본불교 학술대회에서도 사띠의 번역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가장 많이 쓰이는 '마음챙김'이나 '마음지킴', '(수동적인) 주의집중'이라는 말 외에도 '알아차림'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기조 법문을 하고 종합토론에도 참여한 우 빤디따 스님은 사띠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렸을까? 스님은 "사띠 자체가 꼭 그런 뜻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굳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고른다면 '마음지킴'이 좀 더 가깝다"고 답했다.

사띠는 우리 마음이 대상과 일대일로 밀착돼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는 탐진치 등 번뇌가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즉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 탐진치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마음지킴'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깝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 빤디따 스님은 사띠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는 사마띠(samadhi, 마음집중)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마띠의 힘이 있어야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그래야 바른 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띠(sati), 사마띠(samadhi)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된다. 즉 정신적 현상과 육체적·물질적 현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더 나아가 생겨남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범부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위빠사나의 지혜이다.

수행 캘린더

■깨달음의 강좌=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2시, 저녁 7시30분~10시30분 서울 정토회관에서 '깨달음의 강좌'를 열고 사념처관에 따른 관법수행을 지도한다. 10월 30일 관신부정(觀身不淨)-마음을 안정시키는 법, 11월6일 관수시고(觀水是苦)-마음을 알아차리는 법, 11월13일 관심무상(觀心無常)-마음을 살피는 법, 11월20일 관법무아(觀法無我)-마음을 깨닫는 법. (02)587-8993

■참선 입문=조계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주간반) 또는 오후 7시(야간반) 수행원에서주지 지홍스님의 지도로 참선입문 시간을 갖는다. (02)720-1390

■선어록 강좌=부산 무심선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장경각)의 저자 김태완 부산대(철학) 강사와 함께하는 선어록 강좌를 연다. (051)515-7226

■주말 잠깐 선방=서울 금강사는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주말 잠깐 선방'을 개원한다. 금강사 참선회(조실 정일스님)는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5시~오후 5시 제불보전에서 참선법회를 연다. (02)993-3744

■금강승선관무 수련=금강승 선관문회 중앙수련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일요일 오후 2시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수련을 실시한다. 금강승선관무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법. (031)598-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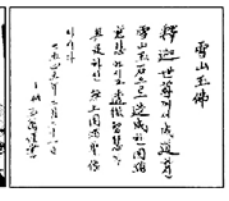
■6개월 단기출가=대구 영남불교대학은 재가자를 대상으로 6개월 단기출가(주말 자유시간) 과정인 '불교 사관학교' 제1기생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참선 및 경전 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를 하게 된다. (053)474-8228

■참선수행회 수련=부산불교교육원 참선회는 매주 월·화 오후 7~9시에 108정진법, 화두참구법, 생활참선법, 좌선법 등을 배울 수련생을 모집한다. (051)466-4080

■열흘 집중수행=보리수선원은 11월 4~15일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우 만달라(미얀마 마하시센터 수행 법사) 스님을 초청, 열흘간의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02)517-2841

■원각경 공부=서울 선재마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원각경〉을 강의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는 참회와 정진 시간도 갖는다. (02)518-0845)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부처님나라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864-8834 부산(051)637-2333
FAX 서울(02)839-2186 부산(051)637-6868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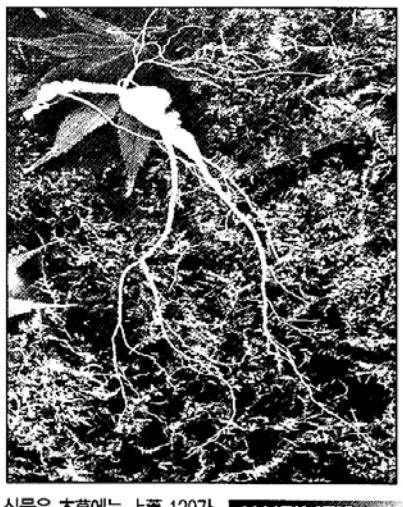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바라밀현장

백련암 **7일7야 기도현장**

3천여불자 8만4천배 정진

초등생서 70대 노보살까지 면면다양

절하다보면 하심·인내심 저절로 생겨



◇18일 백련암 고심원에서 불자들이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절 삼매'에 빠져들었다.

성철 큰스님(조계종 종정 역임)이 우리 곁을 떠난지 아홉해가 지났지만, 매년 전국 각지에서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백련암을 찾는 신도들은 늘어만 간다. 성철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스님의 주석처였던 백련암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란 주제의 7일7야 참회기도법회가 열렸다.

18일 아침 6시, 버스에서 내린 50여 보살들은 걸음을 재촉해 곧장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했다. 60~70대는 족히 되어 보이는 노보살들의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 뒤따르자니 숨이 차오를 정도다. 백련암 마당에는 정갈한 회색빛 법복으로 갈아입은 10여명의 거사와 보살들이 이미 간단한 선체조나 차담을 나누고 있었고, 고심원 법당에서는 염불과 죽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18일 오전 7시에 입재한 법회는 7일 낮 7일 밤 동안 연인원 3천여명의 불자들이 쉬지 않고 8만4천배를 올리는 참회기도로 진행됐다. 참석한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70대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면면도 다양했다. 백련암 고심원에서 절을 하고 있는 신도들은 무아경에 빠져 일배 일배 올리는 등안 비오듯 땀을 쏟아냈지만 얼굴엔 환희심으로 가득했다.

왜 절을 하느냐는 질문에 백련암 신도회장 천진성(71 · 부산 거제동) 보살은 대뜸 3천배 해 보았느냐고 되물었다. 아무리 달고 맛있는 과일이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리라.

1천배는 여러번 해 봤다는 대답에 잠시 후, "절을 하다보면 저절로 하심이 생겨 미물조차 함부로 보이지 않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나'라는 아상을 가지고는 일체중생을 위하는 수행정진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먼저 하심을 일깨우기 위해 절을 시킨 큰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매년 참회기도 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천배를 처음 해본다는 김보광(29 · 부산 부산진구) 거사는 "절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어 부처님이니 자비니 하는 말보다 지옥의 고통이 먼저 떠올랐다. 그러나 절을 자꾸 하다보니 저절로 하심과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며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3대의 한 가족이 참회기도에 참석한 보현화(69 · 대구 수성구) 보살은 아들 내외, 초등학교 2 · 4학년의 두 손자와 함께 2시간여 동안 1천배 정진을 했다. 보현화 보살은 "아범이 작은 손자 나이 적에 처음 큰스님을 뵙고 3천배를 했었는데, 30여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손자들이 함께 백련암을 찾아 절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3대에 걸친 3천배의 인연을 떠올린다.

이번 참회기도는 7일간 2시간마다 1천배씩 8만 4천배를 진행해 25일 성철스님 사리탑에서 3천배를 하는 것으로 회향됐다.

백련암=박원구 기자

성철스님 법문에 큰 감명 그날로 신도…30여년 흘러

정혜사 신도회장 **자비심** 보살



"백련암에 가면 서예작품과 볼명, 화두를 준다고 해서 도반을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3천배를 하고 접한 큰스님의 법문이 너무 감명깊어 그날로 백련암 신도가 됐는데 벌써 30년이 흘렀어요."

자비심(70, 대구 평리동) 보살은 성철스님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30년을 한결같이 3000배와 아비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자비심 보살은 성철 큰스님의 기일이 다가올 때 마다 가슴이 저며온다. 좀 더 젊은 나이에 스님을 친견했더라면 더 많은 정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항상 일체중생을 위해 쉬지 말고 정진하라는 스님의 유훈을 지키기 위해 8년전 인연닿는 보살들을 모아 대구에 정혜사라는 수행도량을 세워 참회정진을 해오고 있는 자비심보살은 정혜사 신도회장을 맡아 도반들의 정진을 이끌고 있다.

매일 정혜사에 들려 장궤합장을 한 채 '옴아비라 훔 캄 스바하' 하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외우는 아비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자비심 보살. 성철 스님이 처음 준 '삼 서근(麻三斤)' 화두를 가슴에 품고 참회기도와 3천배를 하다보니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心 마음비추기

무조건 사랑은 못된 습성 키울 수도…

수행처에서 동물을 기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들어와 키우게 되었다. 영리한 애완견과 토종견의 피가 섞였는지 하는 짓이 반반이다. 음식을 함부로 먹고 이무데서나 일을 보고 지저분한 곳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 흔한 말로 영락없는 똥개이고, 생김새나 사람에게 아양을 떠는 모습을 보면 방안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다. 그래도 불쌍한 마음에 목걸이도 채우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뼈다귀까지 얻어다 먹이면서 무척 귀엽게 키웠다.

그런데 이놈 하는 짓이 일견 사랑스러우면서도 미운 것은 하루 종일 주인인 내 마음에만 관심을 둔다는 데 있다.

새벽부터 문가에 앉아 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치면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벌렁 누워 배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앉아있으면 으레 옆에 와서 비비적댄다.

밤중에 방 안에서 보면 제 집은 그만 두고 창문으로 녀석의 그림자가 방 쪽을 향해 있다. 온종일 애정결핍증에 걸린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예뻐해 주기만을 바란다.

개의 이런 습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나중엔 성가시다 못해 밉살스럽기도 하여, 야단을 치거나 나무라면 이내 삐져서 쪼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며 청승을 떨었다.

나중에는 이런 개의 모습이 권태롭고 짜증이 나서 아예 본체만체 밥만 주고 말았더니 급기야는 일을 저질렀다. 찾아온 손님이 이런 곳에 개가 있다고 하면서 가까이 가자 다리를 물어뜯은 것이다. 짐작컨대 저에게 보인 무관심에 불만을 품고 평소 안하던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참으로 이대로 두면 개꼴도 사람꼴도 안 되겠다 싶어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은 생명에게 매질을 하지 말라 하셨지만 목걸이를 사다 묶어놓고 막대기로 적지 않게 때렸다. 그리고 밥을 줄 때마다 꾸중을 하면서 못된 습성을 꺾게 했다.

이젠 주인인 내 마음엔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달았는지 밥을 주면 꼬리나 흔들고 조용하게 지낸다. 사람들 성격도 다양하지만 짐승들 성격도 다양하다. 같은 개인데도 진돗개나 셰퍼드 같은 명견은 주인이 결정되면 그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다. 주인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제 할일 하면서 굳건히 주인을 지켜준다. 비유를 개에다 해서 뭣하지만 사람 중에도 애완견과 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랑과 관심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받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려 하지 않고 더더욱 달라고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과 양보와 배려가 필요치 않다. 자신의 못된 습성만 더욱 키워주는 꼴이 되고 스스로는 물론 남들까지도 죄를 짓게 한다. 무리가 가더라도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 못된 습성을 꺾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역화보살이 행하는 자비일 수 있다.

寂然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일상에서의 참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자기 점검

'善 철저이행' 중선봉행 발원 담겨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일원이기도 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좋은 아빠였는지', '직분에 충실했는지',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등 일상의 언행에서부터 마음가짐까지 모두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기 점검은 끊임없이 참나로 향하는 마음이 될 때라야 가능하다.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불법공부의 첫출발이 되는 이유이다. "절에 다니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는 회사원 박소영(34 · 부산 남천동)씨의 말처럼 일상의 참회는 자기 관찰에서 시작된다.

박씨의 자기 변화는 '회사에 출근하면 직장 동료에게 먼저 인사하기'로부터 시작됐다. 동료의 태도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먼저 살피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와 마음가짐이 달라져 대인관계도 원만해졌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가정이나 신행에까지 이어져,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점검의 방편이 되는 참회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식의 억지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절실히 느끼고 인정하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다. 철저히 모든 선을 행하겠다는 '중선봉행(衆善奉行)'의 발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한 참회는 나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문제들까지 확장된다. 원인을 자신에서 찾으려는 환경운동,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닌 마음에서 행하는 복지불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산 미륭사 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장인 장일선 회장은 양희라는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비와 약값 몇백만원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참회를 생활화 한다.

"6살된 어린 아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니, 그 아이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장회장은 "내 한 몸 편하다고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땐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것이 강 회장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든 생명체를 대신해 참회를 발원하게 된 동기이다. 인도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나 잘못까지 모두 참회하겠다는 철저한 보살심이 발현한 것이다. 마산결핵요양원, 성우원, 구치소, 인도결핵환자 돕기 등으로 분주한 장 회장의 일상은 진정한 참회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천미희 기자



◇'남의 잘못을 대신 참회하고 그 고통을 나누겠다'는 장일선(가운데) 보살은 성우원 장애인들을 위해 간식 후원은 물론 함께 놀아주며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

지도자여! 무소의 뿔처럼 쉼없이 포교하자!

동심으로의 여행 오세암

제34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 애니메이션 '오세암' 시사회와 함께 합니다. –

행사개요

일 시 : 불기 2546년 11월 16일(토) 오후3시 ~ 11월 17일(일) 오후3시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소재)

연수참가비 : ※해외거주자는 무료

구 분	기본과정	특별과정 레크리에이션	비 고
미리 접수	45,000원	55,000원	레크리에이션
당일 접수	50,000원	60,000원	자격검정비 3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부대	30,000원	40,000원	참가비와 별도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달력)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dongja.org - 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 본회 사무국 (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심방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 신청서 및 참가비 마감 : 11월 11일 까지

(기한내 참가비 미납 시 당일 접수 참가비를 내야 함.)

일정표

기본과정	• 어린이를 위한 부처님 말씀- 사성제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원 실광선상담연구원 원장
	• 어린이의 신행활동 지도 및 평가	성일스님 신흥사주지 저서)어린이불교학교지침서 등
	• 겨울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법명스님 향림사주지청소년지도사 1급
	• 모둠별 토의 - 겨울불교학교 프로그램 기획	
	• 모둠별 토의 결과 발표	
	• 만화영화 '오세암' 시사회	(주)마고21
	• 경전상에 나타난 동화의 소재	강 성 희 신당1동 어린이집원장, 숙명여대, 동국대 강사
	• 찬불가와 율동	정 유 탁 풍경소리
특별과정	•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법당놀이	(사)한국여가교육협회
	•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야외놀이	(사)한국여가교육협회
	•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전래놀이	법명스님 향림사주지 청소년지도사 1급
	• 레크리에이션 2급 자격검정	(사)한국여가교육협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총재/정관 ·부총재/혜총, 철오 ·회장/정여 ·상임부회장/운성 ·부회장/각만, 덕신, 덕진, 원행, 원혜, 인성, 지광, 지현(가나다순) ·감사/성형, 박장식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계미년 "연꽃동자" 달력을 보급합니다.



문의 및 주문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051)808-4570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2동 333-2 · 팩스(051)865-4821

http://www.buddhagaya.co.kr

은리인 우 체 국 ▶ 600353-02-035836

부산은행 ▶ 040-13-000388-2 (예금주 : 김주환)

※ 사찰명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⑲ 분별공덕품 제17

겸행6도·정행6도의 공덕

말세 불제자는 스스로 배우고 닦아야

무리하지 말고 차츰차츰 믿음을 깊게

여기서 겸(兼)이라고 하는 것은 6바라밀을 모두 겸하여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설법하는 행과 겸하여 6바라밀도 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6바라밀 모두를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라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석존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무리한 것을 권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차츰 수행을 쌓도록 인도하고 있다. '방편품 제2'에서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에서부터 들어와도 된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를 쌓아 불탑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조차도 부처님의 길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설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그러므로 이 '분별공덕품'에서도 신앙에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해 차츰 그 신앙을 깊게 하는 순서를 무리 없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를 천태대사가 정연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재세(在世)의 4신(四信)'과 '멸후(滅後)의 5품(五品)'임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앞에서 '일념신해(一念信解)'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마치 5바라밀을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요소가 된다. 또 앞에서는 5바라밀이었던 것이 여기서는 6바라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석존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분이며 위대한 지도자였으므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감사하다'라고 신해하면 그것만으로도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5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석존의 불혜(佛慧)에 의해서 직접 지도되었던 것이므로 수행의 진척도 바람직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석존으로부터 직접 받고, 그 지혜에 기인하여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을 수행하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수행도 석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격자 아래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밤낮으로 감격과 법열 가운데 실행되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다음의 불제자들, 특히 말세의 우리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배워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에 관해서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가운데서 자기가 그것을 찾아서 회득(會得)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비해서 지혜행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된다. 그리서 '멸후의 5품'의 설법에서는 5바라밀에 지혜를 더하여 6바라밀을 행하도록 설하고 있다. 여기에도 부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여서 참으로 머리가 숙여짐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단계의 신앙인은 6도를 행하는 것도 그 사람의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다르고 그 정도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부분적으로밖에 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수지·독송·설법을 겸하여 행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상태이므로 이것을 겸행6도라 한다.

다시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6바라밀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에게는 큰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은 천태대사의 주장이었고, 원전인 범본에서는 "하물며 아지타여, 어떤 사람이 이 법문을 기억하면서 보시에 의해 보살행을 완성하고 지계에 의해, 인욕에 의해, 정진에 의해, 선정에 의해, 지혜에 의해서 보살행을 완성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이 불지(佛智)에 인도되기보다 더 많은 무량 무변·무수한 복의 형성을 낳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앞에서 지혜를 제외한 5바라밀을 장기간 수행하므로써 생기는 복은 '여래수량품'에 대한 한 순간의 고귀한 지향(일념신해, 一念信解)에서 생겨나는 복의 형성의 백 천 만 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언명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법화경〉 기억 위에 보시 등 6바라밀행을 부가함에 의해 비로소 보살행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그 어떤 행보다도 더 큰 복은 〈법화경〉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들려주고 문자화하고 문자화시켜 경권 공양을 하는 등의 창도에 의한 복의 형성이 허공계와 같이 무량 무변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후대에 〈법화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부가된 것이 아닐까" 하고 일본의 법화종 정심사 주지 가리야(刈谷玄翁) 박사는 주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㉜

일없는 것이 좋다

"헛된 이름을 진실로 여겨 집착하지 말라"

도(道) 공부하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시간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法)은 전부 자성 自性)도 없고, 생겨나는 성품도 없고, 다만 헛된 이름[空名]일 뿐이다. 이름 또한 헛된 것인데, 그대들은 오로지 저 부질없는 이름을 진실하다고 여기니,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설사 무언가 있다고 하여도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니, 보리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삼신불(三身佛)이니 지혜니 보살이니 부처니 하는 것들은 모두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이다. 그대들은 의지하여 변하는 경계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 나아가 3승(乘)과 12분교(分敎)는 모두가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낡은 종이요, 부처는 허깨비며, 조사는 늙은 비구이다. 그대들도 또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라는 마구니에게 붙잡히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라는 마구니에게 결박된다. 구한다면 모두가 고통이니, 일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온갖 이름과 모양은 마음의 바다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다.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란 늘 물결들을 분별하고 헤아려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짓이다. 그런데 물결이란 것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으로서,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물이 있어서 여러 인연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실재하는 것은 오직 물일 뿐이고 물결은 헛된 것이다.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되지 않지만, 진실로 실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결은 겉으로는 이름과 모양으로 분별되지만, 그저 이름과 모양뿐이요 실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다시말해 실재하는 것은 물이지만 물은 이름과 모양으로 뚜렷이 드러나지는 아니하므로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으며, 물결은 이름과 모양으로 뚜렷이 드러나 의식적으로 파악되지만 실재가 아니라 헛된 것이다.

마음공부란 우리 자신 즉 우리 마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저 생기고 멸할 뿐인 이름과 모양의 헛된 물결 위에서 헛되이 분별하고 번뇌하는 것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부수어버리고, 본래 자신은 생기고 멸함이 없는 진실한 물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바로 지금 마음의 물을 경험해보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은 물결일 뿐이므로 물결을 통하여 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마음의 물이 전혀 인연에 응하지 않아 거울처럼 잠잠히 있다면, 의식이 활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을 경험하려면 인연따라 일어나는 의식의 물결을 보되 인연따라 달라지는 모양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인연의 모양으로 물결을 치든 그 모양에는 상관치 말고, 그저 쉼 없이 움직이는 물결이 곧 물임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 의식의 물결 위에 다양한 모양의 글자가 나타나 지나간다. 이제 종이 위에 새 글자가 나타나면 즉각 즉각 반응하여 나타나는 의식의 물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라, 바로 지금,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오는 곳이 없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물결은 나오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찾으면 물결뿐이지만, 찾지 않으면 늘 물을 경험하고 있다. 물결이 바로 물이므로, 찾으면 의식으로 떨어지지만 찾지 않고 쉬면 한 순간도 모양 없이 출렁이는 마음의 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 없이 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김태완·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 정 화) http://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⑳

지구촌은 좁은 세상

인드라망 세계관 온몸 체득해야

우리는 '그물코' 해당…전체에 영향

한동안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라는 놀이(여섯 다리만 걸치면 인간은 모두 다 아는 사이라는 속설을 반영한 놀이)가 널리 유행했다. 이 놀이의 규칙은 아주 단순하다. 이 배우와 함께 출연한 다른 배우와의 관계를 1단계라고 했을 때, 관심 있는 미국 배우들이 케빈과 몇 단계만에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아보는 놀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미국 배우들이 여섯 단계 이내에 케빈과 연결되었고, 이는 미국 영화계가 생각보다 매우 좁은 사회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코넬대의 던컨 와츠와 스티브 스트로가츠도 이 점을 엄밀히 증명하여 '좁은 세상 그물망(Small World Network)'의 동역학이란 이론을 98년 6월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전체 배우 225,226명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각각 61명의 주변 사람들하고만 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는 단지 몇 가닥만이라도 불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어 연결할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평균 3.65단계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몇 가닥 불규칙적인 연결이 국소적으로 집단화된 '닫힌 사회'를 손쉽게 '열린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이론을 비단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응용하기 시작했다.

보기를 들면 교통체증으로 시달리는 대도시의 경우 균형이 깨진 도로망 전체를 대폭 수정하지 않고도 '좁은 세상 이론'을 바탕으로 단지 몇 가닥의 새로운 연결도로를 건설하여 도로망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제석천의 궁전을 꾸미는 그물'을 뜻하는 인드라망은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온 세상으로 펴지는 법계(法界: 진여 진리 그 자체의 현현으로서의 현실 세계)를 뜻한다. 이 인드라망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물코만 잡아당겨도 온 우주에 두루 펼쳐진 그물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보석이 너무 밝아 균형을 잃게 되면 인드라망 전체의 조화가 깨지게 된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구촌(열린 좁은 사회) 사람들이 이러한 인드라망의 세계관을 온몸으로 체득해야 한다. 사실 그물코의 보석은 우리 각자를 상징하며 그물코 하나에 불과한 각자의 움직임이 인드라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문병성

끝으로 '부분인 동시에 전체인 참나(그물코의 보석)'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되어 관련된 〈무문관〉 제45칙 '타시옥수(他是阿誰)' 공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산의 오조법연 선사가 말씀하셨다. 석가도 미륵도 모두 그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자! 말해보아라, 그란 뉘신가?' 우리 이웃 가운데 그(他: 참나를 체득한 스승들이 쏟아져 나와 바람직한 인드라망을 구성할 때 지구촌은 일시에 더불어 함께 하는 인간 세상이 되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고침 392호 과학과 불교 원고중 '전기장의 양(음)' → '전기장의 음(양)'으로 바로잡습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깹데기를 골라 내어 까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흰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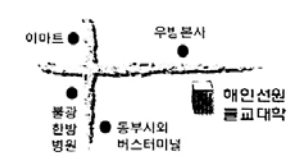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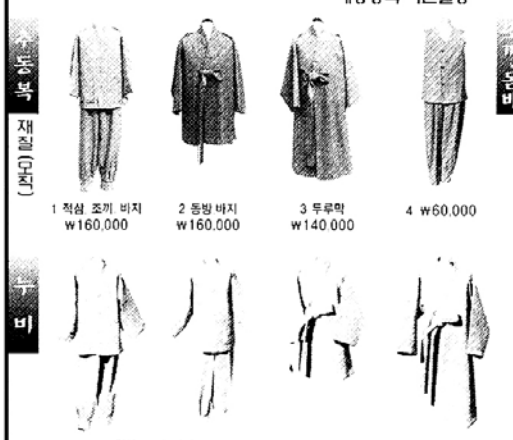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중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동복 재질(면직) 춘추복



1 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5 적삼 조끼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50,000
6 동방 바지 모직누비 ₩320,000 순면누비 ₩220,000
7 두루막 모직누비 ₩250,00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셔츠

8 서초 ₩50,000 (차이나칼라 리폼드림) 바지 ₩60,000
라운드형 차이나형 ₩30,000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견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국제원효학회 등 11월 국제학술대회 집중

외국불교학자 방한 줄이어…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


◇로버트 버스웰 교수


◇슈미트하우젠 교수

'불교에서 보는 채식' 슈미트하우젠 발표 관심

기무라 교수, 불교학 연구회서 기조 강연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슈미트하우젠 교수,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쯔루미 대학), 로버트 버스웰 미국 UCLA 교수….

이름만 대도 중량감이 느껴지는 세계 불교학계의 석학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는다.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11월 12~13일), 제5회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국제학술대회(11월 13일),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11월 18~19일) 등 국제학술대회가 11월에 집중적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국제학술대회뿐 아니다. 성철선사상연구원, 불교학연구회 등 국내 학계의 정기학술대회에도 외국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한다.

가장 큰 관심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슈미트하우젠 교수에게 몰려 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이름 자체로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식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의자. 1963년 24살의 젊은 나이로 박사학의를 받은 그는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티베트어 번역, 한문 번역 등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한 문헌학적 연구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11월 18~1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다. 슈미트하우젠 교수 외에도 초기불교 연구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인 노리토시 아라카미 오타니 대학 교수, 인도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제 저명 학술지에 등록된 〈저널 오브 다르마〉지의 편집장인 어거스틴 도타가라 인도 다르마람 대학 철학부 학장, 중관학 전공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마크 시더리츠 교수, 인도 바나라스 힌두 대학 K.K. 미슈라 학과장 등이 방한한다.

발표 주제들도 흥미로워 슈미트하우젠 교수가 '불교에서는 채식주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아라카니 교수는 '전쟁-평화, 경제-환경, 세속-정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중국 불교사상사 중에서도 화엄사상의 대가이다. 국내에도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기초 구조〉라는 책이 번역 출판돼 있을 정도. 지난 7월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도 참여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기무라 교수는 11월 9일 '불교와 다원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11월 12~13일 열리는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대회는 〈원효전서〉 영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의 원효학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자리다. 〈원효전서〉 영역 사업에는 주제 발표를 맡은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비롯해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ECAI) 회장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버클리대) 등 국내·외의 불교학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다 로산 일본 고마자와 대학 교수 등 천태 분야 학자들은 11월 13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열리는 제5회 천태 국제학술대회에서 모인다. '〈천태사교의(天台四敎儀)〉의 종합적 고찰'을 주제로 장 노엘 로베르 파리 국립고등학원 교수, 존 요르겐센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등이 발표 예정.

이에 앞서 30일 성철스님 탄신 90주년 기념 성철선사상연구원 학술회의에는 중국선종사 연구의 권위자인 일본 고마자와 대학 이시이 슈도 교수가 참석해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사상'에 대해 발표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종조 혜능으로 해야"

법산스님, 선학회 학술대회서 제안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를 도의(?~825) 국사가 아닌 중국 선종의 육조(六祖)인 혜능(638~713)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선학회 제21회 학술대회에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사진)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법산 스님이 문제 삼은 것은 '조계종'이라는 종명과 종조, 종통, 종지 사이의 혼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종조와 종지의 불일치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단법령집〉의 '종헌' 전문과 제1조, 제6조에는 도의 국사를 종조로, 보조지눌(1158~1210)과 태고보우(1301~1382) 국사를 중흥조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산 스님은 "〈조계종사〉 등을 보면 조계종의 종지는 보조의 종지임을 알 수 있다"며 "종조의 정신이 곧 종지인데, 도의 국사가 종조이면 그에 맞는 종지를 선양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다.

"종명·종조·종통·종지 사이에 혼란"

종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선맥은 육조 혜능의 양대 제자인 청원행사(?~740)와 남악회양(677~744) 가운데 남악회양을 계승한 마조도일(707~786) 계통의 선법을 잇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종의 5가가 골고루 전해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법산 스님은 "한국에서의 조계는 곧 육조 혜능을 의미하고 조계종은 곧 선종이라는 대명사다. 그렇다면 종조 역시 혜능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고문서 파손예방대책 절실

프랑스 보존과학 전문가 3명 내한 강연

문화재 보존은 문화적 관단의 결과지만 보존하는 방법은 이제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보존과학의 수준은 아직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예산이나 인력, 기술면에서 뒤쳐지는 게 사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선진 보존과학 기술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경기도박물관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와 공동으로 25일 '한 불 보존과학의 만남'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를 열었다. 수해문화재 보존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지역보존연구소(ARC-Nucleart) 자크 뒤센 소장, 고문서보존과학연구원 베르트랑 라베드린느 원장, 프랑스 박물관연합회 연구복원센터 미셸 므뉘 연구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조명·열·수분계측기·건물요건 등
적절한 전시·환경 요소 파악 필수적

특히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고문서의 효율적인 보존처리 기술과 예방대책을 소개한 베르트랑 라베드린느 원장의 발표였다. 라베드린느 원장에 따르면, 해충 구제의 문제는 프랑스에서 사실상 해결된 상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곰팡이류 퇴치나 산화 방지에 대한 문제는 완전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작품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파손예방정책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더 적절한 전시, 보관 환경 조건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자체의 재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명, 열 및 수분 계측기, 공기의 질, 건물 요건 등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미셸 므뉘 연구부장은 핵물리학을 이용한 이온빔을 사용해 그림이나 칠보, 청동제 발굴품의 재질을 분석하는 루브르기초분석가속기(AGLAE)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방법은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을 시료의 표본추출과 같은 파괴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정밀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크 뒤센 소장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증앙연구기관만 박물관협회 연구복원센터를 비롯해 3개가 있다. 또한 20여 개의 복원 전문 지역단위 센터가 있어 문화재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국내 전문가들의 부러움을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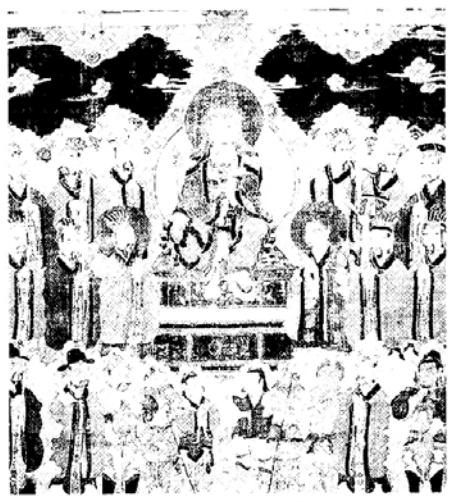
이번 국제학술강연회에선 김규호 호암미술관 연구원 등 4명이 국내의 보존사례를 발표했다.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⑸

민간불화의 등장

고려불화와 조선불화의 차이.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려불화의 경우 궁중 및 귀족 발원의 불화인 반면, 조선불화는 궁중 및 귀족 발원뿐만 아니라 민간 발원의 불화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전통회화에 상류 계층에서 향유한 일반 회화가 있고 민간인들의 취향에 맞춘 민화가 있듯이, 불화에도 왕족이나 상류계층에서 발원한 불화가 있고 민간인들에 의하여 조성된 민간불화가 있다. 궁중 혹은 귀족 불화에서 민간 불화로 확산되어 불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불교 판화와 16세기 마(麻)에 그린 불화에 나타난 이 불화의 민간적인 특징은 먼저 바탕으로 삼은 마에서 느껴지는 거친 질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친 마에 그리다 보니 붓질이 원활치 못해 정교한 장식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형상의 표현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등신의 짤막한 몸매에 부리부리한 눈조리가 그것이다. 이 불화의 권속들은 유난히 눈에 힘이 들어가 있다. 어떤 상은 사천왕상처럼 눈이 튀어 나왔고, 어떠한 상은 날카로운 눈매를 간직하고 있다. 다만 지장보살의 인자한 눈과 동자의 따뜻한 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상을 찡그리면서 강한 눈빛을 발산하고 있다. 그런데 매서운 눈매에서는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그 과장된 모습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된다. 역시 민간 발원의 그림이라 해학이 그 형상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지장시왕도(1586년, 일본 코쿠분지(國分寺) 소장). 짤막한 몸매와 매서운 눈매가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민간불화이다.

해학 하면 우리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떠올린다. 김홍도의 '서당'을 보면, 서당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점잖은 훈장 어른조차도 웃음을 참느라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풍속화도 기본적으로 서민의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궁중과 귀족의 화려한 취향과 달리 민간의 질박하면서도 자유로운 조형으로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질박·자유로운 조형… 새로운 美感
조선초 '지장시왕도'엔 해학 넘쳐

1586년에 조성된 지장시왕도(일본 코쿠분지(國分寺) 소장)가 조선초기 민간 발원 불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불화의 대시주자는 김돌이(金乭伊), 채색 시주자는 오손애(吳孫愛)이다. 김돌이는 돌자가 이두식 표현인 점으로 보아 양반 집안은 아닌 것 같고, 오손애는 여자로 보인다. 이 불화의 시주자는 일반 서민들인 것이다. 이는 이전의 불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기존의 왕실 또는 귀족 발원의 불화에 민중 발원의 불화까지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민간 미술의 전면에 걸쳐 드러나는 특징이다. 궁중 회화와 민간 회화, 사대부 회화와 민간 회화를 구분 짓는 특징을 들라면 무엇보다도 해학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궁중 회화에 충만한 근엄함이나 사대부 회화에 풍겨나는 아취는 보이지 않지만, 민간회화에는 자유분방함이 넘친다. 대부분의 민간 회화는 우스꽝스러운 변형, 재미있는 표정 등을 통해서 민간 특유의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연 인-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밝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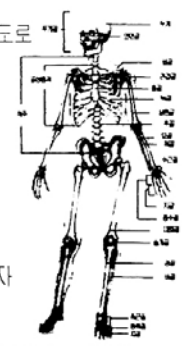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이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의원오피스텔 202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연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배워 두시라 -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구하게 되리라!
난치병 및 괴질 조정, 지도자 모집
서울과 부산에서 전격 지도자 양성 : 속성반 개설
앞으로 에이즈 보다 더한 괴질까지도 약 침 氣 등의 도움엇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므로, 당신 스스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것이다 이법은 예언된 학문이며 지도자를 양성할 시기가 되어 전수 하는 것입니다.
대 상
◆ 본 능력을 전수 받고자 하는 분
◆ 先見之明의 지혜를 가지산 남, 녀 및 제질병을 사전에 예방 하고저 하시는분
◆ 가족의 난치병 간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분
교육과정
◆ 비만조정법(부작용없음) ◆ 난치병조정법
◆ 속효조정법으로 고난도 핵응함방법
◆ 항생제로 통제 불가능한 괴질등 속효조정법
본 학문을 전수받고 난후 당신의 능력은?
1. 하루 1시간씩 6일을 조정해주면 OK.
2. 제아무리 거구의 비만일지라도 살이 쭉쭉빠져 옛날에 입었던 옷을 꺼내 입는다.
3. 감기도, 전신무력증도, 암도, ?도 같은 맥락에서 원상회복된다.
4. 공해로 변형된 비성상 세포가 몸밖으로 나가는 것을 스스로 알게된다.
※ 자연의 순리에 의한 노화는 어쩔수 없겠으나 그외 외부의 인연에서 오는 치료불능의 제질병 및 괴질까지 당신은 능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므로 당학회와 좋은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문의처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608-1
051) 805-3568~9 019-831-8351
高次元治癒에너지 人體適用硏究學會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晳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다시 만나는 청담 큰스님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
혜자스님·이상균 지음
생각의 나무 / 9천8백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청담스님(1902~1971)은 열반하기 하루 전 이화여대에서의 마지막 설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과연 우리들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출가에서 열반까지 청담스님의 모든 것을 담은 평전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봉암사 결사, 6비구 할복 사건, 정화불사. 청담 스님 하면 떠올리게 되는 몇가지 대표적인 이야기 외에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스님의 숨은 면모들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청담 스님은 평생을 마음 찾기에 나섰던 구도자였다. 그런 까닭에 '마음'은 항상 스님 법문의 중요 주제이자, 법문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리에게 본래 마음 찾는 공부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셨던 스님이었다.

수행하는 곳이 화려하거나 아늑해서는 안된다며 토굴에 들어가 기약없는 안거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 종교가 가진 특성을 견지하면서 공통의 가치인 사랑·평화·정의와 같은 윤리관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종교협의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불교 내부 혁신을 통한 현대화, 중생교화, 종교 간의 대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보인 청담 스님. 그러한 스님의 면모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된다. 아니, 비춰보아야만 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청담스님을 평생 곁에서 시봉한 혜자스님은 이렇게 회고한다.

"청담 큰 스님은 한 사람의 종교인을 넘어 전 중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던진 '보살'이었다. 청담 스님은 일찍이 설령 금생에 성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건지겠다고 선언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현재를 일구어 내신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의 탄신 1백주년을 맞아 펴낸 이 책이 불교정화의 선봉장이라는 부분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행자로 살다간 청담 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이 책은 중간 중간 청담스님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빛바랜 흑백사진을 보는 재미도 톡톡하다. 부록으로 청담 스님의 시봉을 맡았던 시자스님들의 회고담도 마련해 놓았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출가서 열반까지 '스님' 생애 담은 평전
행적 담은 흑백사진 현대 한국불교사 증언

"문학 속에 용해된 禪의 세계"

인터뷰 '이규보 불교시' 펴낸 강석근 박사



이규보의 불교사상과 시적 변용과정 담아

"스님들의 선시가 시로서의 가치보다는 선적가치가 더 크다면, 문학적 기량을 인정받는 이규보의 시는 선이 문학 속에 용해되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문학적으로나 불교적으로 절정에 달했을 때의 그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국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강석근 박사는 최근 〈이규보의 불교시〉를 펴냈다. 〈동국이상국집〉 〈백운소설〉 등을 남긴 고려시대의 문신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이규보(1168~1241)에 대한 전부다.

"이규보는 총 290제 403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룬 적은 있었지만, 책 전체를 통해 그의 불교 시를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은 지난 97년 박사 논문 '이규보의 불교시 연구'를 다듬고 보충해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이규보의 불교관과 불교적 행적, 그리고 불교 사상의 시적 변용과정과 문학사적 의의를 담았다.

"한국 문학사에서 선시를 본격적으로 창작한 이가 승려 혜심(慧諶, 1178~1234)이라면, 이규보는 승려에 의해서 주로 창작되던 선시와 불교 시를 일반화시키고, 불교적인 사유의 세계관을 문학에 도입해 새로운 시적 경지를 개척한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불교 시는 불교적인 논리나 사상이 앞서지 아니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시적인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고려시대 최고 지성 이규보의 불교 시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을 이 책에서 펼쳐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불교시〉(이회 刊, 1만2천원)외에 강씨는 신라 말기 최치원에서부터 이규보, 이장용, 조선의 무학대사까지를 관통하는 여러 작가와 작품론을 다룬 〈한국불교시연구〉(이회 刊, 1만5천원)도 함께 펴냈다.

새책소개

'운문선 연구'
원공 지음 도반 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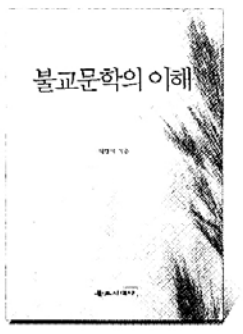
원공 스님의 박사학위논문 〈운문선 연구〉를 보완·정리한 책이다. 운문종의 종조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생애와 가르침, 운문선의 전승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값 1만5천원.

'올바른 불교이해…'
서명산 편저 신문각 刊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1편 '불교의 이해'에는 불교의 정의와 목적, 삼보의 뜻과 본존의 비교, 불자가 지켜야할 계율 등의 내용을 담았다. 2편 '불교예절'에서는 사찰에서의 예절, 스님을 대할 때의 태도에서부터 합장과 차수의 뜻과 절하는 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밝혀놓았다. 값 6천원.



'불교문학의 이해'
서영애 지음
불교시대사 / 1만 8천원



'불살개를 잡음에
부처님 앞의 등(燈)을 고쳤는데
그 등불의 심지는 수미산(須彌山)이요
등불의 기름은 큰 바다를 이루었네
향은 법계(法界) 다하도록 하며
향에 마다 법의 공양으로
법계에 가득 차신 부처님!
부처와 부처들에 두루 공양하옵저
아아! 법공양(法供養)이야 많지만
제(자신)을 체득(體得)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공양이어라!'

문학의 입으로 '진리'를 노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너무도 아름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한 고려시대 향가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이다. 균여스님이 지은 것으로 우주 법계에 가득한 모든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의 깊은 의미를 함축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을 부처처럼 공경하고 공양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양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일본 오오따니(大谷)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영애씨가 펴낸 〈불교문학의 이해〉는 이처럼 문학의 형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낸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은 불교 문학의 연원과 성격을 소개한 개설서다. 제1부에서 불교예술과 불교문학의 개념 및 정의, 불교문학관의 경향과 문제점을 소개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인도의 고대문화와 고전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제3부에서는 불교경전에 대한 소개와 그 문학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불교문학의 발달과 장르를 분류했으며, 제4부에서는 한국불교문학 작품과 그 해석을 실었다.

이은자 기자

불교문학·불교경전의 문학성 탐구

해외불서 — 족첸 수행 입문



티베트의 불교 명상 수행 법인 '족첸(Dzogchen)'은 일상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족첸 수행 입문(The Dzogchen Primer)〉은 이러한 족첸 전통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저자인 마사 슈미트(Marcia Schmidt)는 오랫동안 이 방면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불교 입문자들에게 체계적인 수행법을 제시한다. 또한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샨티데바, 쵸감 트룽파, 툴쿠 우르겐 등 티베트 고승들의 가르침도 소개한다.

'족첸'이란 말은 우리의 신념과 지식구조, 일상적인 견해를 넘어선 곳을 의미한다. 족첸 마스터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제거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경험은 경험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니다. 거기에는 형상도, 소리도, 색깔도, 맛도 없으며 오직 텅빈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샴발라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이뭐꼬	성철스님	김영사
2	화(Anger)	틱낫한	명진출판사
3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4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용옥	통나무
5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레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7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예문서원
8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설오스님	효림
9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10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고향찾는 나그네
신국판, 224쪽, 값 : 6,800원
보덕현호 시집

푸른 한울이 되어
신국판, 152쪽, 값 : 5,500원
보덕현호 시집

생활속의 명상시
신국판, 184쪽, 값 : 6,500원
법안명상 시집



도서출판 정화사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 비 (면솜 100%) —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 비 (혼방) —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 복 (회색, 밤색) —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우리 숲 산책'
차윤정 글·사진
웅진닷컴 / 1만원

아름다운 계방산 자락·고성 산불현장 등
우리 숲의 역동적인 모습 감동적으로 그려

숲에서 생명의 기운 찾는다

"단풍 고운 가을날, 아름다운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숲이냐고요? 아주 가깝습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요, 조금만 시간을 내면 몇 년치 산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윤정의 우리 숲 산책〉이라는 책의 숲입니다."


◇선운사 부도밭. 부도를 배경으로 한 숲의 생명력이 영원을 상징하는 듯하다.

이 책은 친근한 언어로 자연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산림학자 차윤정 박사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산림〉지에 4년간 연재한 글을 묶은 것이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숲이 좋아 때마다 가방을 둘러매고 우리 숲을 찾아 헤맨 저자의 발걸음과 땀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어디를 가든지 독특한 지형과 특성을 보여주는 우리 자연이야말로 감동적이라는 저자는 우리 땅의 아름다운 숲을 찾아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에서부터, 파헤쳐지고 짓밟힌 땅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피워 올리고 있는 위대한 생명의 현장, 원시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장백산의 자연까지 이 땅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무엇보다도 자연의 모습만 보고도 그들의 감정을 온 몸으로 느끼는 저자의 감수성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도 남는다.

남도의 서정을 간직한 완도의 갈문리 숲, 단풍이 아름다운 태백산맥 자락의 계방산, 동백의 붉은 비가 어지럽게 내리는 선운산 등은 우리에게 그저 여행하기 좋은 곳일 뿐이었지만 저자의 눈과 귀와 손을 통해 생생한 자연의 감동이 살아 있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사람들의 이기로 무참히 훼손되었지만 검은 재 위에서 가녀린 둥글레가 초록의 싹을 틔우고 있는 고성 산불현장, 산불로 날려버린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새를 이고 살아가는 아픔을 간직한 유명산 억새 밭 등을 흉물로만 여겼건만 저자의 눈을 통해 훼손된 자연이 보이고, 저자의 가슴을 통해 훼손된 삶을 위협받는 식물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저자의 손끝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고된 노력들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쌀쌀한 찬 바람에 마음마저 스산해지는 가을날, 산림학자 차윤정 박사와 우리 땅의 아름다운 숲을 거닐며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자.

저자인 차씨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산림환경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네스코 장백산 생태계 조사단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숲 탐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
웬델 벨리 지음 / 정승진 옮김
양문 / 8천원

현대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



현대 문명은 '삶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무책임한가?

환경과 문명의 문제에 천착하며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 웬델 베리는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에서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책의 제목이자 맨 처음 글의 주제인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없다'에서 웬델 베리는 우리 시대 문명의 이기를 대표하는 컴퓨터로부터 시작해 자연과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산업사회의 부작용을 고발한다. 이를 통해 문명의 진보나 기술 혁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실행 가능한 실천적 노력이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나는 컴퓨터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평화나 경제적 정의, 생태적 건강함, 정치적 정직, 가족과 공동체의 안정, 선한 노동,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웬델 베리는

자연스러움 파괴하는 산업사회 부작용 고발

이 책을 내놓기 전 한 잡지에 '나에게 컴퓨터는 ·'를 발표한 후 많은 이들로부터 그 글에 반대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웬델 베리를 바보나 지나친 이상주의자라고 했고, 아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녀의 인권을 유린한 불한당으로 취급했으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줄 모르는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웬델 베리는 결코 컴퓨터를 사지 않을 것이다. 컴퓨터는 대형 전력 산업과 기술 산업에 의존하게 하고, 기존의 유익한 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현대 문명을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웬델 베리는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각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 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육체와 노동에 의존하며, 가정과 지역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기 등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명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웬델 베리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가 일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단지 몸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야생의 자연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은자 기자

몽골제국이 남긴 최초의 세계사

전문가 서평

'부족지'
라시드 앗딘 지음/김호동 역주
사계절출판사 / 1만원

몽고인 정체성 확립 위해 역사 정리
"간략한 종족 지도 실렸으면…" 아쉬움



역사를 전공하는 전문가나 역사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독자의 가슴을 동시에 설레게 할 역사학의 명저가 면밀한 주석 작업과 함께 번역되었다. 몽골 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에 번역된 외국학자들의 저서에서 늘 주요 참고문헌으로 등장하는 '집사(集史, 또는 史集 – 연대기의 집성)'라는 책과 함께 라시드 앗 딘이란 이름을 접해 보았을 것이다.

라시드 앗 딘의 이 저술은 대체로 세계의 어떤 다른 문명권에서도 가져보지 못한 세계 역사에 대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면서, 세계의 역사를 기술하려는 명백한 의도에 따라 기획되고 서술된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서아시아에 원정하여 일칸 국을 일으킨 훌레구의 증손자 가잔 칸이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정책 실천의 중심에 있던 라시드 앗 딘에게 몽골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역사의 정리를 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가잔 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초고를 접한 그의 동생 울제이투 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 제국의 경영자적인 안목에서 세계 각 민족의 역사를 제2부로 삼고, 세계의 지리를 제3부로 삼아 집필을 계속하라고 라시드 앗 딘에게 명한다. 그 결과 〈집사〉는 제3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 전체와 제2부의 제2권만이 현존할 뿐 제3부는 소실되어버렸다. 이번에 번역된 〈부족지〉는 그 제1부의 1권으로, 〈집사〉 가운데서도 가장 사료적인 가치가 뛰어난 부분이다.

라시드 앗 딘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유태인 출신의 무슬림(이슬람 교도)으로 의사이면서 모든 학문에 능통한 박물학자였다고 한다. 그는 칸의 명을 받고 몽골제국의 시조 칭기스 칸 일족이 궤에 넣어 두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비서(秘書)인 〈금책(金冊 : 황금 먹으로 적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과 〈원조비사(元朝秘史)〉, 그리고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베이니가 쓴 〈세계정복자사〉를 참고로 하고,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볼라드 칭상의 도움을 받고, 각 부족의 전승을 수집하여 역사를 정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아시아의 무슬림답게 주요한 포인트마다 알라에 대한 찬미와 축복을 곁들이면서, 칭기스 칸 일족을 중심에 둔 전 유목민을 넓은 의미의 투르크 족으로 분류하였는데, 투르크 족은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야벳의 후예라고 하였다.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수많은 종족들의 이름에 잠시 현기증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칭기스 칸의 제국 건설에 협조했던 공신들이 속한 종족과 거기에 적대했던 종족들의 명칭들이 일화와 함께 상세히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 그 하나 하나를 모두 정리하며 읽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때로 뜻하지 않게 재미있는 발견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발견한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다.

"칭기스 칸 일족은 섣달 그믐날 밤에 대장장이의 풀무와 화로와 석탄을 준비하고 열마간의 쇠를 달군 뒤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서 길게 늘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역자 김호동 님의 주를 보면, 이런 기록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마도 궁정 내부에서 황실 일족들이 치르던 비의였던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제국을 건설한 칭기스 칸 일족은 몽골의 초원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전사 집단만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고대부터 쇠를 다루던 키야트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독점하면서 그것을 기초로 특별한 결속력을 자랑하던 일족이 아니었을까. 그런 지적 집단이었기에 세계 제국 건설이라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언저리에 이르면 필자는 거의 낭만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 수밖에 없단다. 하여튼 이 책에는 이런 상상의 자유를 허락하는 다양한 일화나 종족에 대한 소개가 잔뜩 들어 있다. 가령 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말로써 피보다는 '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의식은 같은 몽골족에 속하는 신라인의 진골(眞骨), 성골(聖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샤먼을 신봉하는 종족에 대한 소개도 재미있다.

복잡한 종족들의 지리적 배치나 관계 같은 것을 간략한 지도로 그려준다면 역사 애호가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감히 말하건대, 역자 김호동 님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조예와 학문적 깊이, 엄밀한 고증의 노력이 절절이 전해져 옴을 느꼈다.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양억관/ 번역가

〈부족지〉는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했던 여러 군주들의 연대기를 종합하여 그 계보를 총체적으로 밝힌 책이다. 다양한 일화를 통해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조망하는 이 책은 사료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초원 유목민의 생활과 관습, 그리고 부족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다.(사계절 刊, 2만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측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도처 자광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지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롱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출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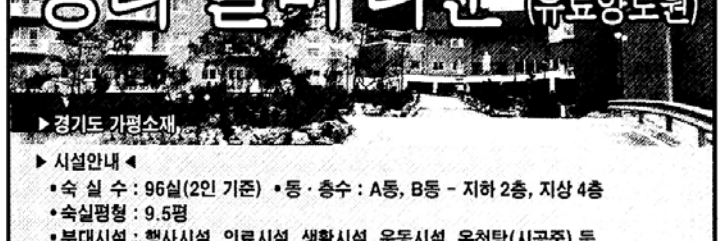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선불교 대중화' 3국선사 간담회

무차선 법회가 끝난 후 서옹, 진제, 정혜, 종현 등 3국의 선사들은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의 사회로 한국 중국 일본 조사선의 전통과 현재를 점검하고 선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무여 스님=오늘 삼국의 큰스님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차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불교는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사님들께서 조사선이 세계인들에게 보편화, 대중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하여 주십시오.

선불교는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
참사람만이 인간구제·불법완성
3국선사들 생활선 닦는 계기 열어

◆서옹 스님=한국의 조사선은 고려말 태고보우 스님과 나옹 화상에 의해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탄압을 받아 산중에서 어렵게 법맥을 이어왔고 조선말 서산대사에 의해 다시 중흥되었으며, 현대에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욕망으로 타락하고 서로 투쟁하므로,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직 조사선의 참사람만이 인류를 구제하고 불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진제 스님=참나를 바로 알면 이 몸 가운데 모든 진리가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함 없는 법문과 덕성을 갖춘 이 몸으로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조사선을 보편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신앙심과 인과 관념, 양심, 도덕심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스님=엄격한 스승 아래 참선을 닦아 좌선 삼매에 든다면 조사선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전 해운정사에 도착해 대불전과 관음전 등 도량 곳곳에서 참선중인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 조동종에서는 주지 진산식이 있을 때만 법거량을 합니다만, 조사선의 대중화를 위해 자비심을 갖고 차를 나누는 일상성(日常性)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혜 스님=임제종의 무위진인은 언제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기에, 생활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즉각'(當下) 깨달아 무위진인을 장악할 수 있다면 성불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한국 민족의 솟아 오르는 정기와 차분한 심성이 느껴져 생활선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년전 선어록에서만 보던 법거량을 오늘 법회에서 직접 보니, '이것이 바로 거량종풍이로구나' 생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무차선회에서 3국의 선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든 인류가 생활선을 닦는 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둘이 아닌 도리로서 공존 공생하면 인류화합의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3국의 네 선사는 조사선이 인류문명을 구제할 최고의 정신문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대에 맞는 '생활선'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운데는 간담회 사회를 맡은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 알림=기사넘쳐 '스님이야기' '불교공부ㄱㄴㄷ'은 쉽니다

"참사람운동 펴지 않으면 인류문명 구원하기 어려워"

서옹스님 법어



서옹스님(92·백양사 방장)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을 거쳐 1974~79년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했다.

건강 악화로 참석이 불투명했던 서옹 스님은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92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선지식의 할 바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스님은 갑자기 내려간 기온과 우천 관계로 야외에 마련된 법단에 오르지 못하고 상선원에서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한 후 혼신의 힘을 다해 "참사람운동이 아니면 인류문명을 구원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법어를 내렸다.

동양의 조사선(祖師禪)에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생사도 없고 죄악도 없는, 활발발 자유자재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은 사람을 참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람은 능동적 주체로서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합니다. 이 참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영원의 생명체입니다. 참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복덕을 지닌 참다운 생명입니다.

이 참사람은 자유자재하고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람주의로 인류가 세계평화를 창조할 때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참사람은 대자연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잘 보호하여 사랑하며,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협조해서 투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세계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래 세계역사는 인간주의가 아니라 참사람주의이므로 멸망하게 된 인류를 구제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역사를 창조합시다.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인류는 위태로우니(天下大亂 人類危),

참사람의 정도로 중생을 구제할지니라(眞人正道 濟衆生).

몸은 뜬구름 같고 마음은 청풍이라(身似浮雲 心淸風).

세계평화는 만세토록 영원할지어다(世界平和 萬歲永).

할(喝)!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무차선대회'에서 선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여명등 사부대중 1만2천여명이 참석했다. 수좌대표가 일본의 종현스님에게 법을 청하는 삼배를 올

眞人의 正道로 중

한·중·일 국제무차

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선사들이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에서 선법을 펼쳤다.

'21세기, 선(禪)으로 참나를 찾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무차선법회는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참사람 무차선 법회'를 계승하고, 조사선(祖師禪)의 선양으로 인류 정신문명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

"하늘과 땅은 나와 한뿌리 만물은 나와 한몸이로다"

진제스님 법어·법거량

서옹 스님의 법어에 이어 등단한 진제 스님은 상당(上堂)하여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 치고 이르기를,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天地與我同根),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로다(萬物與我同體).

설사 이렇게 하여도 한 관문이 가리어 있습니다. (주장자를 또 한번 치고)

선(禪)을 선이라 하면, 똥 위에 똥을 더함(屎上加尖)이요, 선을 선이라 아니하여도 30방(棒)을 맞음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

쇠를 녹이는 큰 솥에 '정미로운 금'(精金)이요, 맑은 못에 밝은 달이로다.

진제스님의 법문이 끝나갈 무렵, 법회장 앞에 있던 미국인 금하 스님이 법문중인 스님의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마이크를 치우려하자, 진제스님은 "억! 이 여우같은 놈!"이라며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돌발 상황에 법회장은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긴장과 미처 예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무차대회의 '본래 면목'을 보여주며 내내 대중들의 이목을 붙들었다.

이윽고 연단위 내빈석에 앉아 있던 보림선원 주지 묵산스님이 막 법문을 마친 진제스님 앞으로 나가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인 선문답이 시작됐다.

"오늘 이 대법회가 무슨 법회요?"

"만 천하에 가득합니다. 소승의 허물이."

"입을 열 적에 그릇쳤다. 내려와!"

"차나 한잔 자셔요."

"내려와!"

"억!"

"내려와!"

"억!"

"이 법회는 무차법회가 아니다."

"한 가지 더 묻겠다"는 묵산 스님에게 진제스님은 "한 분이 한 가지씩만 물어달라"고 청해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삼배를 마친 또 한 스님은 "급하게 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답해주셔도 좋습니다."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임제스님의 사빈주(四賓主: 임제종에서 학인을 교화할 때, 학인(賓)과 스승(主)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눈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임제 사빈주 가운데 주중주(主中主: 스승이 선사로서 갖출 역량을 제대로 구비한 경우)의 도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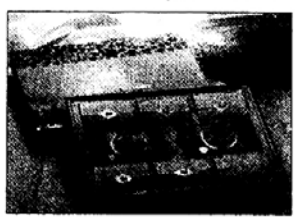
진제 스님(71·동화사 조실)은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대표적인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

"구중궁궐(九重宮闕)에 처하니 일천 부처님도 보기가 어려움이로다."

이어서 납자는 "스님이 한 대답을 대중이 다 들었으니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해 보시오. 스님의 답을 인정할 수 없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제스님은 "들어가"라는 말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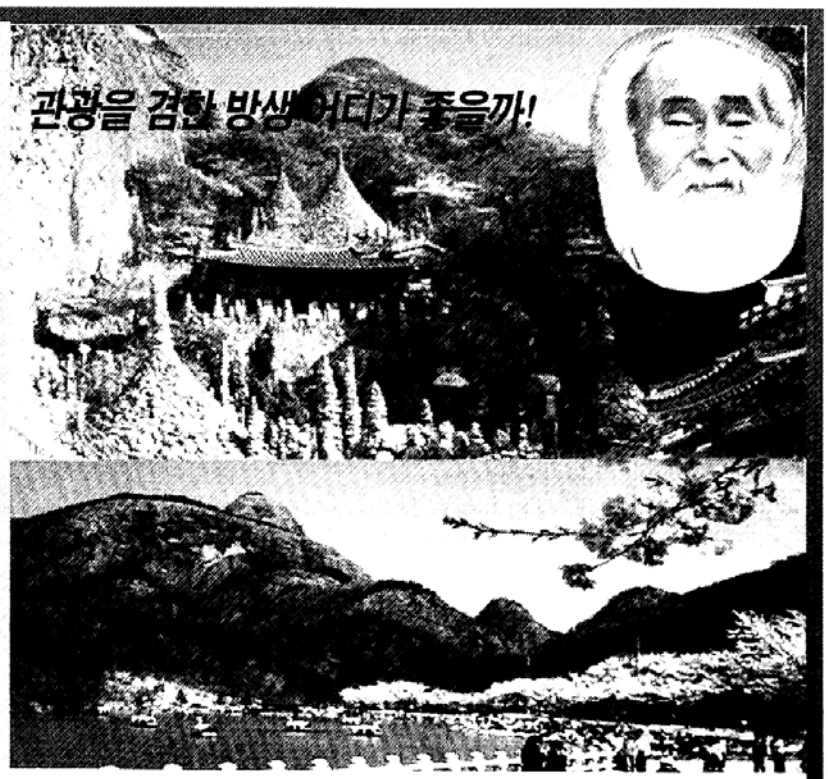
매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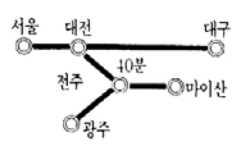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이 한자리에 모여 차별없는 선법을 펼쳤다. 이날 법회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스님 1200

을 구제할지니…

국 선사 대법회

2000여명의 불자들이 법당과 사찰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린 이번 무차선 대법회는 오전 10시 법요식을 시작으로 서옹 스님이 법회장 옆 상선원에서 법어를 내리면서 차별없는 법의 세계를 펼쳤다. 대회의 법주를 맡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眞際) 스님과 중국 조주원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宗玄) 스님은 30분씩 법어를 한 후 납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법거량 시간을 가졌다.

응답을 대신했다.

: 한 스님이 나섰다.

선사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 |에 선사님께서 조주 스님을 대신하였 남전 스님께서 상서로운 상을 봤느냐 을 때, 뭐라고 이르시겠습니까?"

산승이 그 조주 도인의 사미가 되었던 동쪽에서 몇 걸음 걸어서 서쪽에 섰다 다시 서쪽에서 몇 걸음 걸어 동쪽에서 았다."

|제스님은 법거량에 앞서 법문에서 조 사미승과 남전 선사 사이에 오간 문답을 해주며 "대중은 남전 도인과 사미승의 알처를 알겠느냐?"고 물은 바 있는데, 대 이 아무 대답이 없자 "묻는 것은 답하는 있고, 답은 묻는데 있음이로다" 했다.

사시 질문이 이어졌다.

"어떤 것이 향상(向上)의 진리입니까?"

"만리에 백골(白骨)이 즐비함이로다."

"향하의 진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대지(大地)의 산과 물이로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담았습니까?"

"한마디도 담을 바가 없소."

"그 소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간 바도 없는데 온 바가 있겠어?"

"지금 그 소리는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억!"

"끝도 없는 광야에 세월 또한 무량광에 흔적도 없는 나는 무입니다. 소리가 없는 자리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만들어서 써 버리는데, 본소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장자를 내리쳤다.

예정됐던 네 명의 질문이 끝났지만 재가자에게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다.

"부처와 중생, 마음은 차별이 없다했는데 증명해 보십시오"

"차별이 없다 해도 30방을 맞아야 해."

"조주스님이 머리에 짚신을 이고 나간 도리나 일러 보지."

질문자가 스님과 대중을 향해 절을 하자, 스님은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해" 라며 단상을 내려갔다.

"불성은 진정한 자아·귀의처 인간정토 건립 최후의 근거"

정혜스님 법어·법거량



중국의 정혜 스님(70 · 조주 백림선사 방장)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으로 '생활선' 운동을 이끌고 있다.

점심공양 후 이어진 오후 법문은 중국의 정혜스님과 일본의 종현스님 순서로 이어졌다. 통역으로 진행된 오후 법회는 한 차례 법거량이 오간 후라 중국과 일본 스님들의 법거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정혜 스님은 '인성을 끌어올려 불성으로 돌아가자' 는 주제로 법문했다.

"현전하는 한 생각은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부처와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성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며 우리의 귀의처로서, 선종에서는 무위진인(無位眞人), 본래면목(本來面目)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은 중생이 해탈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하고, 인간정토를 건립하는 최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불성을 등지고는 개인은 해탈을 얻을 수 없으며, 사회 역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재적인 마음의 평화가 없고서는 외재적인 평화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한 생각을 잘 잡아쥐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문이 끝난 뒤 정혜 스님은 "오늘 오전 법문과 법거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러한 선문답은 마음의 교류인데 우리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문즉답(卽問卽答)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혜스님에게도 질문이 나왔다.

"옳다 해도 맞지 않고 그르다 해도 맞지 않다. 옳고 그름의 참 진리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억!"

"지금 '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님은 이미 법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 쓰면 우리도 부처님같은 청정법신"

종현스님 법어·법거량

마지막으로 일본의 종현 스님의 법문 차례.

운문(雲門) 선사의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 법문을 소재로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만민화락(萬民和樂)의 극락정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스님은 "조용히 호흡을 고르면 브이게 된다" 고 스스로 답하고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하나, 둘, 셋"을 세며 대중들과 함께 호흡을 이어갔다.

이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쓰고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들이 부처님과 같은 청정법신"이라고 미리 준비해온 한국말로 법문을 마무리 했다.

한 재가자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챙기느냐?"고 묻자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평상심으로 '이것이다' 하면 된다"는 말로 답했다.



일본의 종현 스님(54 · 후쿠오카 숭복사 조실)은 일본 임제종 최대 계파인 묘심사파(妙心寺派) 법사자(法嗣者)로 인가받았다.

김재경 · 천미희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진제 스님과 거침없는 선문답을 나눠 법회장을 깜짝 놀라게 한 묵산 스님은 서울 정릉 보림선원에 주석하고 있다. 82세의 노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법거량에 나선 묵산 스님은 한국 거사불교의 큰 봉우리로 평가받는 백봉 김기추 거사와 도반이자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의 조카 상좌이다. 묵산 스님은 이번 무차대회와 관련, "무차대회는 부처님도 입을 열지 못하는 무서운 자리"라며 "진제 스님이 거룩하게 무차대회를 베풀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묵산스님은 "앞으로 안목과 용기를 지닌 많은 선지식들이 제방의 선원에서 무차대회를 활발하게 열어달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1946년 제주 황룡사에서 금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과 효봉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으며 백양사, 대각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35년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보림회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82세 노구에도 불구 선문답 사자후

묵산스님 법거량 화제의 2인 금하스님

마이크 제거 시도한 외국인 스님



진제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막 법거량이 시작될 무렵, 순간적으로 단상에 뛰어올라 탁자를 치고 진제 스님의 마이크를 치우려 한 외국인 스님은 뜻밖에도 진제 스님의 유일한 외국인 상좌인 금하 스님. 진제스님은 "억! 이 여우같은 놈!"라며 웃음으로 받아 넘겼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법회장은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어, 진행된 선문답은 어느 회 무차법회보다 선기 번득이는 법거량이 오고간 무차법회의 서막을 알렸다. 금하 스님은 주한 미군 출신으로 태국에서 계를 받은 후, 봉선사에서 다시 비구계를 받았지만 진제스님 문하로 건당해 유일한 외국인 제자가 됐다. 금하 스님은 평상시 제방 선원에서 용맹정진해 왔으며, 진제 스님은 항상 매우 엄하게 금하 스님을 지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하 스님의 행동은 일종의 법거량이었고 진제 스님은 이에 대해 '크게 틀렸다' 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차선대회 이모저모

김 대통령 축하 메시지

○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김상남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정신문명 세계의 모색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참된 인간성, 불성을 깨닫고 추구하는 선(禪)사상은 21세기 새로운 정신문명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수좌회 등 적극 동참

○ 이번 무차대회에는 전국선원수좌회와 비구니선문회 소속 스님들이 적극 참여했다.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과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을 중심으로 수좌들이 무차대회를 준비해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부의장 종산스님, 원로의원 동춘스님 천운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1200여 비구, 비구니 수좌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처음이자 마지막 국제대회

○ 진제 스님은 대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3국의 깨달음의 수준을 점검하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무차법회 역시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는 한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덕높은 선지식들이 무차법회를 계속 열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불교TV, TV-인터넷 생중계

○ 불교TV는 울산대 철학과 박태원 교수의 사회와 동국대 선학과 종호스님의 해설로 케이블TV와 인터넷(해운정사 및 btn)을 통해 법회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재가자 '발심계기' 한목소리

○ '화두선 정진을 위한 발심의 계기가 됐다' 는 것이 재가자들의 반응. 젊은 시절 향곡 스님께 '이뭣고' 라는 화두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소식을 얻지 못했다는 김보명행(80, 부산시 기장군 좌천) 보살은 "죽기 전에 만사 제쳐두고 화두공부를 해야지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부산지사
051-632-0064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硏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읍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구)반도제약해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22일 우면산 천태종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식에서 범패음악에 맞춰 헌다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

"茶禪一如' 운치 느껴보세요"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기념 헌다의식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운치를 느껴보세요.'

22일 우면산 천태종 관문사 1층 로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신도들이 정좌하고 앉아 정성껏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기품과 절도 있는 모습에 약간의 긴장감마저 흐른다. 바로 천태종이 차(茶)를 체계적으로 연구 ·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만든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창립기념 들차회 현장이다. 들차회란 다인(茶人)들이 준비해온 차도구를 감상하며 잘 우려낸 차(茶)와 다식(茶食)을 지인들과 함께 음미하는 자리. 행사장을 찾은 장민자 보살(56 · 강남구 개포동)은 "차를 많이 마셔봤지만 이렇게 다례법에 따라 공양을 하기는 처음"이라며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시니 마치 참선할 때와 같은 고요함이 생겨난다"고 좋아했다.

이어 4층 옥불보전에서 '차와 국악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다도발표회'에서는 범패의식에 맞춰 말차와 잎차의 헌다의식이 거행됐다. 조선시대 복식을 갖춘 6명의 신도들이 헌다례를 한데 이어 부산 삼광사, 울산 정광사, 안산 월강사, 경주 청강사, 진주 월경사 등 5개 지방 말사 다도연구회팀들이 참가해 생활다례 시연을 펼쳤다.

이혜자 관문사 다도 지도교수(성대 생활과학대학원는 '다례는 옛부터 국중혼례나 외국사신맞이 등 국가적인 의례에서 종교의식, 민간의 손님맞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행해지던 주요 예법이었다"며 "특히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심신을 맑게 하고 정신수행을 하는 방편으로 사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태다도연구보존회'는 창립법회를 열고 춘광 스님(관문사 주지)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의천스님 차사랑정신 계승"

초대회장 춘광스님



"천태종의 시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수 많은 차시(茶時)를 통해 번뇌를 끊는 수행자의 진실한 벗으로 차(茶)를 표현할 만큼 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습니다. 이에 의천 스님의 차 사랑 정신과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천태다도의 계승 발전을 위해 연구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천태다도연구보존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춘광 스님의 창립 취지다.

89년 부산 삼광사 주지시절 다도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던 춘광 스님은 천태 조사들의 다선일여 수행을 재조명하고 잊혀진 천태다도의 역사를 복원해 내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춘광 스님은 11월 16일 관문사에서 한국다인연합회, 한국차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국 차 역사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다악'은 차의 정취를 우리 가락으로 표현한다.

음악으로 만나는 차

11월1~2일 다악페스티벌

한국창작음악연구회는 11월 1일 오후 7시와 2일 오후 5시 서초동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다악 페스티벌 2002-차로 이어지는 겨레, 숨결'을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회원들이 민족세시기에 느끼는 차의 정취를 우리 가락에 맞춰 창작한 곡들을 들려준다. 이종구 교수(한양대 작곡과)의 '설날, 미풍에 실려온 미향의 미소', 김성경 교수(추계예대 교육대학원)의 '삼짇날, 삼화령', 박인호 교수(추계예대 작곡과)의 '단오, 25현 가야금을 위한 수리', 박일훈 실장(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의 '칠석, 은하의 합멸 · 할배', 이준호 씨(경기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의 '동지, 밝누리' 등이 이번에 연주되는 레퍼토리다.

다악 연주에 이어 반야로차도문화원,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지부, 한국차인연합회에서 펼치는 행다시연도 볼 수 있다. ☎2272-2152

자연의 4계절 유화전

영인스님 31~11월4일

염불하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영인 스님(영천 거동사 주지)이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3층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일출', '겨울풍경', '연', '산천', '계곡' 등 사계절의 자연을 그린 유화 그림 50여점이 선보인다. ☎730-5454

'한국불교미술' 주제 세미나

불교문화산업기획단 26일 가나아트센터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26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조명하는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의 일환으로 한국불교미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윤범모 경원대 교수, 최태만 서울산업대 교수의 발표 내용을 요약 · 정리한다.

한국불교미술의 특성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

불교미술은 목적성을 지닌 장엄의 미술이다. 장엄이란 말은 잘못 들으면 일반 순수미술과 큰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미술은 본질적으로 장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문제는 목적성이다. 이런 목적성의 문제는 종교미술이란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납득된다. 다시 말하면 불교미술은 발원의 미술이요, 요청의 미술이란 특색을 지닌다. 또 불교미술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자비와 지혜에 바탕을 두고 이룩된 조형활동이다. 불세계의 중중무진한 세계를 화엄에서는 화엄찰해라 하고, 이는 세계일화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측소된 표현이 가람배치라 해도 좋다. 따라서 가람배치란 시대에 따른 불교미술의 종합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자비와 지혜 바탕으로 한 조형예술

한국불교미술은 분야별로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조각과 건축에 있다. 그러므로 가람 역시 조각과 건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불상과 불탑의 봉안처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예배 대상이자 불교미술의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가람배치에서 오는 주변 산수와의 조화, 나아가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창안된 아름다움, 이 자연스런 아름다움은 천진무구한 불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불성의 반영이란 불교미술이 지닌 장엄과 발원의 특성 속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그것은 경주 남산의 삼화령 미륵세존 조각상, 토함산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근현대미술과 불교 (윤범모 경원대교수)

20세기의 불교미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전시회의 주제이자 의의다. 한국에서 불교미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찰의 불사(佛事)다. 하지만 20세기는 사찰의 불사현장과 미술계가 상호 무관한 시기였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교계의 관심과 무관하게 불교사상과 소재로 작업을 수행한 미술가가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작업 시급한 때

이번 전시에 선보여진 김복진, 정종여, 오지호 장욱진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중 근대 최초의 조소예술가인 김복진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은 수려한 자체와 온화한 분위기, 안정감 있는 비례 등에서 뛰어난 수작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채묵화가였던 정종여의 '진주 의곡사 석가여래좌상 괘불' 또한 유려한 필치와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구도 그리고 색채가 선명하다는 점에서 전통 괘불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불교사상을 기저로 제작한 현대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강의 윤곽이나마 설정하려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더불어 근대미술의 경우, 사찰 봉안의 미술가 작품을 발굴해 미술계에 공개한다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이런 가운데 김복진, 정종여, 오지호 등과 같은 거장들의 빼어난 불교미술품을 소개하는 행운도 있었다. 이번 불교미술전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인 불교미술의 현대화 작업에 박차가 가해졌으면 한다. 아울러 불교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에서도 현대미술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다.

한국불교미술의 과제 (최태만 서울산업대교수)

우리 나라 국보와 보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불교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제작된 불교미술 중에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할 만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작품이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무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대불교미술이 처한 현실이다. 심지어 현대불교미술의 부재를 통탄해야 할 지경이다.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기술적 숙련성이 탁월한 공예적 회화나 조각은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현대불교미술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당혹감을 느낄 정도다.

지금은 불교가 정신세계는 물론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갔던 시대와 다른 시대이므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20세기나 21세기가 남겨놓은 물건 중에서 국보를 지정할 때 현대의 불교미술을 대상으로 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제작된 불교미술품 중에서 꼭 국보급의 훌륭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급한 것은 '보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이 아니라 지리멸렬해 졌거나 사업으로 '전락'한 불교미술이 종교라는 유력한 '시장'을 겨냥한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으로서 자기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불교미술이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살아나기 위해 전통의 계승 못지않게 불교의 교리나 사상에 부응하는 미술로 거듭나기 위한 심가한 검증과 고민을 필요로 해야 할 것이다.

상품 아닌 예술품으로 위상정립해야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 나라사랑 캠페인 나서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광주서



◇지난 4월 13일 대구 패션몰 베네시움 앞에서 열린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라사랑 캠페인'의 거리 풍물공연 모습.

"우리가 단지 배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해요"(박옥련, 84)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공동체 '나눔의 집(원장 능광)' 할머니들이 손수 그린 그림과 관련 사진을 들고 '나라사랑 캠페인'에 나섰다. 일반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벌이는 이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전주를 시작으로 4월 대구를 거쳐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 전남지역에서 펼쳐진다.

캠페인은 거리 사진전과 그림전, 할머니들의 강연회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을 무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영화 '낮은 목소리' 상영, 풍물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진다. 일일찻집에서는 위안부 문제 사죄 촉구 및 일본의 역사 왜곡반대 서명운동과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 행사도 겸한다.

능광 스님은 "처음엔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운동' 기금마련의 일환으로 전국 순회를 기획했지만 위안부 피해에 관한 산 역사전달을 위해서 캠페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개원 4년째인 '나눔의 집'은 현재 생존해 있는 전국 13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실 '나눔의 집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인 이들 할머니들은 대부분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전문 요양원을 지어 할머니들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모시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5천만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양원을 건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주제로 열리는 제3차 '나라사랑 캠페인'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진다. 29일 광주 무각사를 시작으로 30일 정광고등학교 법당, 11월 1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백홀에서 강연회가 열린다. 11월 2일에는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무각사 연다원에서 열리고, 오전 10시 무각사에서 열릴 '조국평화를 기원하는 특별법

'실천하는 불교·행동하는 여성' 세미나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2돌기념 11월 26일

세미나 후 기념법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한국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실천하는 불교, 행동하는 여성'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역할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혜숙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가 '여성 불자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를, 방송작가 이윤수 씨가 '불교여성운동의 흐름'을,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장이 '불교여성개발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과 이현옥(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박수호(중앙승가대학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씨가 참석한다.

세미나 후 5시 30분부터는 창립 2주년 기념법회가 열린다.(02)722-2101

"위안부 문제 일본 정부 사과 받아내야"

거리 그림전·일일찻집 … 요양원 기금 마련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개관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 정부로부터의 성의 있는 답변과 사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날로 쇠약해지시는 할머니들의 건강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의 사과와 요양원 건립을 위해 할머니들과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인권 보호와 나라사랑'을 주제로 열리는 '나라사랑 캠페인'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진다. 29일 광주 무각사를 시작으로 30일 정광고등학교 법당, 11월 1일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백홀에서 강연회가 열린다. 11월 2일에는 전문요양원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무각사 연다원에서 열리고, 오전 10시 무각사에서 열릴 '조국평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에서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이 법문을 할 계획이다.

한편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백홀에서 열리는 그림전시회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순정', '못다 핀 꽃'을 비롯해 3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된다.(031)768-0064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모과·유자차 만들기 좋은 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생각나게 만드는 때다. 요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철 과일로 겨울 내내 마실 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칼슘과 칼륨, 무기질이 풍부한 모과차는 전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므로 온몸이 나른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좋다. 또 모과의 신맛은 사과산을 비롯한 유기산으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그밖에도 신경통, 요통, 근육경련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도 있다.

비타민C가 레몬의 세배나 들어있는 유자는 겨울철 복병인 감기에 특히 좋다. 유자의 신맛은 속 처진 몸과 정신을 맑게 해 준다. 변비에는 유자 껍질까지 먹어야 효과가 있다.

모과차 칼슘·무기질 풍부 … 피로회복에 효과 탁월

모과 3개, 설탕 2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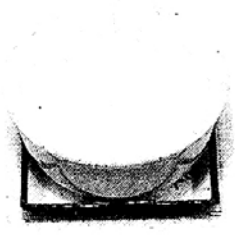


1 모과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후 4등분 해 씨를 빼고 약 2mm 두께로 썬다.

2 썰어놓은 모과와 설탕을 번갈아 담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5~7일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복통, 설사, 이질 등에는 생강즙을 한 숟가락씩 더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유자차 비타민C 듬뿍 … 감기에 좋고 정신 맑게 해

유자 10개, 설탕 3컵, 설탕 시럽



1 유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물기를 잘 닦는다.

2 유자를 4등분 해 속알맹이를 떠낸 후 따로 분리해 눌고 씨는 빼버린다. 껍질은 가늘게 채 썬다.

3 유자 속과 껍질은 따로 그릇에 담아 설탕 1컵 반씩 넣어 버무린다.

4 병에 3을 각각 눌러 담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산초장아찌



산초 600g, 진간장 3컵, 집간장 1컵, 소주 약간

1. 산초는 파랗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을 골라 먹기 좋은 크기로 갈라놓는다.

2. 산초를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담고 끓는 물을 부어 6~7시간 정도 담갔다가 찬물에 헹궈 건져둔다. 이때 향이 너무 강하면 중간에 물을 갈아준다.

끓는 물에 담그는 대신 데쳐내면 산초 특유의 아삭한 맛이 사라진다.

3. 진간장과 집간장을 섞어 끓였다가 식힌 후 산초가 잠길 정도로 붓는다.

4. 5~7일 정도 묵힌 후 간장은 따라낸다. 간장에 물을 조금 붓고 다시 끓여 식힌 다음 소주를 섞어 산초에 다시 붓고 한 달 정도 묵힌다. 장아찌는 먹을 때 조금씩 꺼내 건지가 촉촉히 잠길 정도로 제 간장을 부어낸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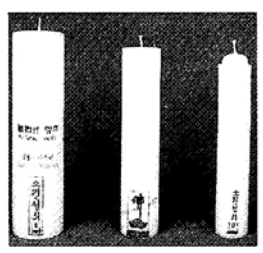
그을음·냄새없어 실내 정화 도움

식물성 양초

야자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왁스와 일반 양초 성분인 파라핀 왁스를 혼합해 만든 식물성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양초는 탈 때 그을음과 냄새가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또 연소 시간이 일반 양초보다 약 20~30%정도 길다. 값은 크기에 따라 700원, 2600원, 4800원.



건강단신

노인 300명 무료 건강검진

30일 은평노인복지관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30일 오후 1시 서울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일반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기초검사를 비롯해 소변 및 혈액 검사, 간기능, 당뇨병, B형간염 검사와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도 실시한다. (02)2601-7161

연령별 소아 건강진단

서울 삼성제일병원은 생후 9개월부터 3세까지의 유아건진, 취학 전 소아를 위한 소아건진, 초등학생을 위한 소아건진,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건진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예약은 전화나 팩스로 3일 전에 해야 한다. (02)2000-7200 팩스 (02)2000-7000

매주 목요일 당뇨교실

서울 중구청은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무료 당뇨교실을 연다. (02)2250-4404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면 해당국수가 나타나 그 날 그 국수를 펼치면, 1년의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사항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250,000원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묻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 (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더 나이들기 전에 봉사해야죠"

윤평희·서갑희씨 '사랑의 미용실' 7년째

17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각현). 계단 통로에서부터 퍼머약 냄새가 진동한다. 큼지막한 거울과 의자 두 개, 퍼머용구들과 약품들이 가지런히 놓인 이곳이 바로 '사랑의 미용실'이다.



◇"할머니 오랫만에 오셨네요"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이·미용 봉사를 하는 서갑희(왼쪽), 윤평희 씨가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이 미용실에는 유난히 단골손님이 많다. 5년째 '사랑의 미용실'에 다니고 있는 황인화 할머니(63)는 미용실이 열리는 날에 맞춰 40여분 넘게 버스를 타고 달려왔다. 돈 내고 미용실 갈 형편이 안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곳에서는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른 미용실은 늙은이라 신경도 안 써주고 머리 손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오면 마음도 편하고 머리도 마음에 쏙 들게 손질을 해 줘요"

미용사들이 머리를 마는 동안 고무줄이며 머리 마는 종이를 순서대로 건네주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이야기, 주말에 소풍 다녀온 이야기까지 그동안 미뤘던 이야기보따리를 풀기에 여념이 없다.

7년째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미용실을 꾸리고 있는 봉사자들은 바로 윤평희, 서갑희(56) 씨. 20대 초반,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사귄 동갑내기 친구다. 대전에서 서울로 자리만 옮겼을 뿐 30여 년 넘게 우정을 간직해온 두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사회사업을 하자"던 약속을 절반만 지켰다. 각자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평희 씨는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산증인이다. 처음 센터를 세우던 1991년부터 노인무료 경로식당에서

월2회 할아버지·할머니들 머리손질

거동불편한 노인들 위해 출장미용도

주방일과 청소를 도맡아 하고 주말이면 이·미용봉사까지 해온 윤 씨는 웬만한 복지사들보다 이곳 사정에 밝다. 올해로 봉사활동만 12년째. 송파노인센터뿐 아니라 용인의 노인요양원과 안성 효문화원에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다. 남편이 안성 효문화원에 근무하는 탓도 있지만, 매일 이곳을 찾아 주방일과 미용봉사활동을 한다. 주말에 짬짬이 품을 들인 주말농장에서 수확한 고추며 깻잎, 호박 등을 센터로 나르는 것도 윤 씨의 몫이다.

서갑희 씨는 5년 전 미용실을 접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친구따라 강남 가는 격으로 한다"지만 짬날 때마다 윤 씨와 함께 지방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출장미용'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질 때면 미용도구들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비탈길, 골목길을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처음엔 '집 안에 머리카락이 날린다'고 투정을 부리던 어르신들이 '머리를 자르니 기분도 시원하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쏙 든다'며 칭찬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서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무조건 짧은 머리, 퍼머머리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말한다.

매일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는 이들에게 황 할머니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니라"고 충고하자 두 사람을 입을 모아 말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65살까지만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부처님 가피가 어디 있겠어요?"

글=여수령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행복한 황혼

◆심리극 공연=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11월 2일 오후 3시 10분 센터 3층 강당에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주제의 가족 심리극을 공연한다. (031)455-0551

◆치매강좌=한국치매가족협회는 11월 8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신문사 중강당에서 '부산지역 치매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고신의대 유봉구 교수, 더불어사는공동체 신명자 원장 등이 강연한다.(051)805-6400

◆1일 찻집=대구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코리아나 예식장에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1일 찻집을 연다.(053)474-9748

◆무료강좌=서울 은평구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은평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세란병원 임재현 과장의 강의로 '아픈 허리 건강한 허리' 무료강좌를 연다. (02)350-3610

◆건강검진=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가 환절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혈압과 비만도, 스트레스 검사는 무료이며 소변검사와 간·심장기능검사, 심전도와 안압검사 등이 포함된 전체 검사비용은 5만9,460원. (02)2601-7161

◆치매·중풍 예방교육=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11월20일 오후 1시30분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치매·중풍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02)929-7950

'그 사람'이 아니라 '아무개'로 기억하세요

행복쪽지

성공을 위한 처세법으로 '이름 외기'라는 것이 있다. 사무적 관계로 만난 사람을 우연히 또는 일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확히 이름을 불러 주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딱히 처세의 기술 차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요즘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명함'이라는 걸 갖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명함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처음 만나는 사이라는 뜻일 텐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주머니나 지갑이 넣고 만다.

명함을 받으면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예의다. 너무 바쁜 상황이라면 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다시 만나고도 '누구시더라, 어디선가'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름을 외고, 다시 만났을 때는 이름을 불러 주자.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짓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개종문제

인간의 삶은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개종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50대의 한 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20여 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부인은 그 후 불교에 귀의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자신의 종교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고 한 생을 살다간 그녀의 남편은, 남겨진 가족에 의해 마치 종교전쟁을 치르듯 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하더군요. 부인은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듯 몹시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서 있던 나무가 제 눈앞에서 두 갈래 세 갈래로 찢겨 지더군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가지가 찢겨졌는데 그 나무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로 겪은 가족 간 갈등이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음을 부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간 다른 종교로 갈등 겪는데…

평범한 소시민의 행복을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부인은 큰 아들이 원하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가씨라 부인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보니 대수롭지 않을 것 같던 종교문제가 결코 대수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가족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며느리는 늘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행이나 등산을 같이 가도 며느리가 절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 예불을 드리는 일도 며느리가 있으면 불편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들 내외를 1년 정도 데리고 있다가 분가를 시켰습니다. 분가를 시키자 큰아들까지 교회에 따라 나가게 되어, 큰아들까지 이제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큰 아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한 부인은 둘째 며느리만은 잘 봐야지, 했는데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도 아예 성당에서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혼배성사를 할 때 신부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결혼 후 바로 아내와 함께 성당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두 오빠들한테 배신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딸은 결혼 상대도 자신과 종교가 같은 사람을 택해 딸과 사위는 불교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들보다는 딸과, 며느리들보다는 사위와 심정적으로 가깝게 지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식들의 이질적인 종교가 갈등을 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딸과 사위는 딸과 사위대로 자신들의 종교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러야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장례의식을 자신들의 종교의식대로 집전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적대감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장례를 치른 후부터는 형제들이 거의 불목하다시피

부인의 말을 듣고 있는 제 머릿속에는 긴 기차길이 떠올랐습니다.

윤회를 반복하면서 성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생의 생은, 거기에서 만나는 인연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그건 긴 기차길 위에 세워져있는 간이역 같은 것이 아닐까요? 긴 여행길에서 잠시 만나 함께 가다가 내려야 할 간이역에 닿으면 뿔뿔이 헤어지는 승객 같은 것, 가족 역시 그런 것이라면 차질 없이 목적지에 닿으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했던 승객이 내린다고 해서 목적지 가는 일을 접어두고 같이 따라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化緣 (02)704-3577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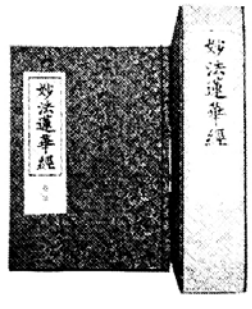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사경용 寫經 법화삼부경 출간

경전중에 제왕이며 범부가 범부인채 부처가 되는 길을 설하신 법화삼부경(사경용)이 출간되었습니다.

한지(韓紙)를 주문생산하여 법화삼부경 한문 부분 8만여 자를 엷게 인쇄하여 한글토를 달아 누구나 사경하고 독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화경 사경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오역죄인 제바달다가 성불의 기별을 받은 것은 무거운 악업소멸은 물론 볶은 종자가 싹이 튼 경우라 하겠습니다.



법화경 한 자 한 자는 바로 법신불 자체이며 우주생명 그 자체입니다.

정성과 공덕으로 장엄한 법화경 사경을 권합니다.

▣ 탑속에 장엄용과 법보시는 할인하여 드립니다.

■가 격 : 1질 9권(국배판) 100,000원
(무량의경 1, 묘법연화경 7, 보현보살행법경 1)
■재 질 : · 표지 · 케이스 – 비단 · 본문 – 한지
■구 좌 : · 농 협 821112-51-000803 삼 불 사
■안 내 : · 삼불사 (055)583-3107
· 도서출판 삼 보 각 (051)804-5714
(구 위음왕)

3일 안에 깨닫는다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칠나(돈오)에 깨치는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도 비약드 테크닉(방편)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생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 천도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총마음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오늘 남 도와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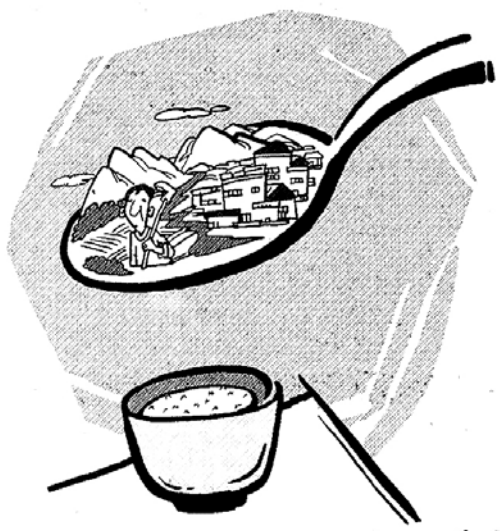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392호에 이어서)

▲스님: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예를 들어서 묘법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그놈이 입거 일동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을 커버하고, 모두 이끌어 가지고 가는 어떠한 회사의 중역일 뿐이지,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소임을 맡았다고 그래서 전체 회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묘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면 홱 돌아서 바로 구정물이 생기게 돼있고, 또 한생각이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신 것도, 공부한지 일년이 됐다, 오년이 됐다 십년이 됐다, 또는 몇 달이 됐다는 이런 생각도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것도 그러한 욕심을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발자취 붙잡지 않고 그냥 걸어갈 뿐

▲질문자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그러니까 꾸준히, 꾸준히 그냥 자유인이 되겠다는 아주 소박한,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이다 하면 부처라는 이름인데, 구태의연하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유스럽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꼭 돼야 세세생생에,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를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닥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떤 분들도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궁암이 너무 심한데도 어려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냥 하혈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병원에서 수술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여럿이고 집 한칸 변변히 없어서 셋방을 얻어 사는데 남편이 벌이를 해서 조금씩 들여오는 것도 근근히, 육신을 놀려서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사랑한다면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 하고 부부지간이라 해도 얘기 못 하는 그 슬픈 마음이야 말로 어디다 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가면서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선 울더니 쓱쓱 씻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저거 했겠습니까?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식구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울죽거려야 자식들과 살 수 있으니까 그 몸으로 울죽거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더러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만 자식들은 길러내야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이거죠. 허허허.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식을 꼭 길러야만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길러야 한대는 거죠. 그러고는 스님, 제가 주인공! 할 땐 더불어 같이, 스님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부릅니다. 나는 그 빽밖엔 없습니다. 아, 그러고는 쓱쓱 닦고 그냥 나가고 뭐 오래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어? 애들 길러내지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가더니만 아, 다리가 나아서 정중정중 뛰어다니니까 인제 등한시하는 거지. 등한시하니까 그것 봐라! 그렇게 하니까 다시금 다잡아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야. 그러니까 당신도 신날도 안 꼬았어! 지금 100% 하면 20% 30%밖엔 안 갔으니까, 한순간에도 100% 될 수가 있어.

▲질문자2: 그래서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밤에 보여주시기를 저의 시어머님이 닭을 두 마리 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몸 하나 한마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데 이 애를 가져서 낳으면 똑바른 아이를 낳을까, 이 세상에 낳아서 또 엄마가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우지 못한다면 이 애를 안 낳으리라 마음을 먹고….

▲스님: 아이구! 믿지 못하는 반면에 그러는 겁니다. 하하하. 모두가 믿지 못하는 게 그냥 그렇게 많으니 그게 나을 수가 있나요.

▲질문자2: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먹고사는 것도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창피하지만 3개월 동안은 아이를 가지면서, 정말 이 세상에 바른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일도 감수하겠다 하고 창피하지만은 법회 때 스님께 질문을 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꼭 물리가 터져야 된다, 나를 깨닫는다는 공부를 꼭 하고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 법회 있을 때 질문하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 왔는데 또 다행히 저만 왔어요. 남편이 왔으면 싫어할 텐데 … 그래서 법당에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떠한 채찍이라도 정말 바른 엄마가 될 수 있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그렇게 잘하면 돼! 하하하. 그렇게 진짜로 믿어봐! 이거는 내가 말뿐이 아니야! 진짜야! 그 맛을, 그 맛을 알면은 너무도 좋을 거야. 그 맛을 알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백 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땅을 치고 백 번을 웃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열심히 ….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뭘 그렇게 꽉 잡고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짊어지고 애를 쓰느냐는 거야. 그렇게? 응? 아! 그냥 걸어올 뿐이지. 그 발자취를 뒤로 마음으로 또 왜 그걸 뭉쳐들고 다녀?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살림살이 살아나가는 거는 우리가 걸음 걷듯이 살고 가는 거야, 지금. 발자취를 놔버린 채 걸어다니는 거와 같은 거야. 내일 살 걱정하지 말어. 하루살이로 그냥 살어. 그냥 하루살이로 살란다고 해서 또 다 갖다 팔아먹고 (대중 웃음) 끓여먹고 이러지는 말고. 하하하. 다 맡기고, 내게 가진 게 뭐 있어! 내 몸뚱이도 가진 게 없어! 내 몸뚱이도 내게 아니야!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그런데 뭐 거기에 있다고 그냥 그걸 붙여 잡고 쩔쩔매? 좀 그렇게 놔봐! 오늘 중으로래도 그렇게 놓고 살아봐. 절을 하는 것도 세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축소하세요.

인의롭고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용기와 믿음으로 공부한다면 어떤 병고도 대처할 힘 생겨

▲질문자3: 저는 선원에 여러 권의 책과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부처님의 도를 깊고도 지극하게 가르쳐주시는 스님의 법문에 너무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 때로는 눈물 방울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질문을 수 차례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대중들과 저를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디를 가거나 혹 절 앞을 지날 때에는 불전에 참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참배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하는 겁니까? 또는 부처님도 내 한마음에 계시며 나와 다르지 않으며, 바로 나의 실상이니 주인공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부처님께 원력을 주십시오, 하는지요. 부처님께 참배를 하면서도 주인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게 간단해요. 만(萬) 개의 사찰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 와서 참배를 올릴 때,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 있죠? 그거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하면은 모두 전체가 하나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 하면은 그냥 부처, 나, 모두 일체가 다 하나가 돼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놓으면은 그대로 그 부처 마음도 거기에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하하하.

말과 행을 함이 없이 해야하고 내고 들이는 것 철두철미해야

▲질문자3: 식사를 할 적에 합장을 하는데 이럴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지요.

▲스님: 주인공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까? 어때요? 예? 그래요! 지금 이 몸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共食)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뭡니까? 농사지은 사람서부터 누구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손길이 가고, 밥 지은 사람 뭐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에요. 그러니 공식(共食)했는데, 그래서 공식하게 되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전부,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 한 그릇은 되 남더라 이런 겁니다. 예! 되 남아서 또 올리고 또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가 먹어도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절에서 공양하셨어요? 이러죠. 밥 먹었소? 이러지 않고 공양 하셨어요? 하는 겁니다.

▲질문자3: 그런데 끌고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끌고 다니는 것이지 하고 거기다 다 그냥, 이런 고통을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해도….

▲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돼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당신이 구정물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눌 때하고 다 누고 나서 밑을 씻어야만이 모든 것이 깨끗해지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자3: 잘 알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형제 법우님들이 공부가 부진해가지고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나는 그대로 자는 게 없고 낮에도 여러분 못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질문자4: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올라왔습니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질문이 마지막 막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지원이 개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의 큰 원력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온 한마음선원 신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해요.

▲질문자4: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장문의 편지로 스님께 올렸습니다. 단, 제 마음자리가 아직 부족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좀 튀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말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이 잘되면 그걸 진득이 잘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스님: 아니요! 이런 묘법이 있어요.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면 그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않고, 또 행을 하되 함이 없이 행을 한다면 아무 데도 누설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내놓는 것만 알지 들이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되듯, 모두가 내놓고 들이는 것이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음파라는 것은 통신이 여기에서 달나라에를 가도 그냥 요기서 저 문 밖에 통신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두루. 이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은 그건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함이 없이 한다는 것만 알고 하면 말입니다.

▲질문자4: 감사합니다.

▲질문자5: 스님. 제가 유월 경에 뵙고 한 5개월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월 경에 스님을 뵐 때는 아주 저 자신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을 때 뵈었습니다. 그때 저의 집사람에 골리다시피 해서 뵙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를 다 죽이고 왔다고 스님께 고백을 했습

☞ 26면으로 계속

가끔은 언덕을 넘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25면에서 계속

니다만, 그때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믿고 맡겨라, 공부해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오 개월이 지난 오늘날 저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부부간에 갈등도 없어지고, 가족 간의 화합도 생기고 사업도 상당히 번창해서 이제 연간 매출액이 몇 십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기반도 다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후일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깨움이 부족한 분들에게 사례로 발표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러면 주인공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설법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그간의 의심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욕심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 돼



그림 · 최주현

저희 인간은 우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들이 자신과 능력을 잘 찾기 위해서는, 우주와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깨닫게 됨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스님께서 우주와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또 여기 힘이 있다면 그 에너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구라는 가설은 본래 돼 있기에 근본에 맡겨놓고 인의롭게 대하면 가족 모두 밝아지게 돼 있어

▲스님: 만약에 우주가 발전소라면, 이렇게 대치를 해보는 겁니다. 우주가 발전소라면, 발전소를 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은 바로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아니 되고, 소비자가 없어도 아니 되고, 그 소비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능력 그 자체가 없어도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될 수 있게끔 용도에 따라서 골어쓰는 데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에너지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에너지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은 발전소라면 거기에서 그 전력을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쓰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사람의 그 능력과 발전소와 둘이 아니게 같이 직결이 돼있으니까 자유자재로 꺼내 쓸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꺼내 쓰고 크면 큰 대로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꺼내 쓸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한치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요.

▲질문자5: 잘 알겠습니다.

▲질문자6: 오늘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바보가 여기 나와서 스님을 뵙습니다. 오늘 질문에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4일 전에 열반에 드신 조계종 이성철(李性徹) 큰스님의 81년 1월 달 종정 취임 때 제 일성으로 하신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체 삼라만상이 모두 다 법신체(法身體)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법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도 인연이 다하시어 이제 열반의 길에 드셨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인연이 다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는 불현듯 나를 되돌아보기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큰스님의 깊으시고 지극하신 자비 밑에서 20년을 선원의 수위로서 지내왔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인연이 다 되어 가시는 성철스님의 열반을 보고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스님의 밑을 떠나서 인연이 다 되어갈 때는 틀림없이 나는 지옥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가 2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으로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사 하고 여쭙겠습니다.

하나, 우리 중생들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현실 속에서 물질에 매달려가지고 허상에 매달리고 쫓기고 찾고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또, 저희들이 바깥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으뜸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선지식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그 계기를 뚜렷이 가질 때 공부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기를 용케도 오늘 잡았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계기로 하나 찾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는 스님께서 이 무지중생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진리를 한마디로 요리를 해서 딱 깨우쳐줄 수 있는가, 맛을 내게 넣어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두 번 째 계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보다도, 나는 20여 년을 스님 밑에서 공부해 왔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님을 뵈옵고 좋은 가르침 받고 했는데, 오 년 전에 온 아우님이나 6개월 전에 온 아우님이 그만 주인공을 맞을 보았다 하니, 전 그만 걱정이 태산같고 이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중 웃음)

몸도 마음도 내 것 아니니 쩔쩔매지 말고 놓고 사세요

스님께서는 항상 이 한마음의 도리로써 저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 생명이요, 그리고 공존의 생명이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인간을 초월해서 신령하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무(無)다. 항상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놔라. 그리고 여여하게 되돌려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저는 20년 간 듣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항상 스님의 말씀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모두 내 도반들의 말로 들리지 제 말로는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세 가지 계기를 잡은 김에 스님께서 너는 인연 없는 자식이니 이제 수위 자리도 그만두고 나가서 죽든지 떠나든지 . . 이 말씀을 오늘 한마디 해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죽지 않고 달아나기 싫으면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좀 크게 꾸지람 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본래 말입니다. 본래 인생은 온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누구 말마따나 서까래는 서까래대로 쓸 수 있고, 기둥은 기둥대로 쓸 수 있고, 포함해서 새끼손가락도 없으면 병신이듯이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한생각을 잘 하셨다면 그대로 해나가시면 되겠죠. 뭐 그 길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고, 또 오래 됐고 오래 되지 않았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니까 그저 ..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자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질문자6: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다 유리하게끔만 하시지 지어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7: 스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십 년 간 다녔지마는 불교의 진수를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광로보다 더 확실하게 놓고 갈 수 있는 주인공 자리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가족이 지금 손녀까지 여섯 명입니다마는 저는 마음자리를 놓고 잘 돌아가는데 딴 식구들은 어떤 때 보면, 나가 볼 때에 아직까지 좀 걸리는 부분이 보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조용할 때 한번씩 가솔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마는 아직 제가 아마 도량이 부족해서 제 마음을 가족들한테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 그릇을 좀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여쭤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항상 식구들한테도,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하든가 빗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즉 말하자면은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이 돼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공에다가 놔도 그 상대방 마음자리까지 다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모든 거를, 저 사람이 저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놓고 난 뒤에는 인의롭고 부드럽게 말을 해준다면 상대방도 아주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질문자7: 그리고 제가 참 스님 앞에서 뭐 나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일갑자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과거는 한생각에 다 놓았습니다. 오늘 스님 앞에 와서 이 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이 편안한 마음을 내세에도 가지고 갈 수 있을런지요?

▲스님: 만약에 오늘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거운 겁니다. 그런 인연을 맺었다면은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빈 손으로 모두 돌봐주게 돼 있습니다. 없는 손이 와서 돌봐주게 되고,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둘이 아니게 포함이 되고 또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봐주게 되는 겁니다. 가고 오는 족족 그렇게 돌봐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체가 다 음파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끔 하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들에게 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다가오고, 죽을 병고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하세요.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 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명상전생 특강 내용

(1) 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薦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魂)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명상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명상 파동요법
사랑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 (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魂)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불교 이래서 좋다

이영란 르·메이에르 사원

"아함경 심취… 불교=내생활"



내가 처음 접했던 불교는 사실 종교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관망의 대상이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다니던 절은 나에겐 놀이터 그 이상은 아니었고 커가면서 나에게 절에 가는 일은 곧 고뇌였다.

나 스스로 자신있게 '내 종교는 불교'라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불교를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말에 의해서다. 당시 불교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천주교 집안이었던 자신도 종교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다며 불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자신은 성경 속에서 종교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다면서….

그 얘기가 나에게는 너무도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제대로 된 불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어린이용 부처님 생애와 각종 설화들은 읽어봤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저 동화같은 얘기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불교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대학에 들어가 선배가 권유해준 고익진 선생의 〈아함경〉을 읽었다.

〈아함경〉으로 나는 불교의 참맛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뜻도 모르고 외워댔던 〈반야심경〉이나 〈천수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에게 다가온 경전이 바로 〈아함경〉이었다.

사실 한문 경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아함경〉은 너무도 재밌으면서 내 생활에 빗대어 고개를 끄덕거리게 해주었다.

그렇게 불교는 내 생활이 되어 버렸다. 어디가서도 불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만큼 난 불교가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어쩌면 난 지금도 부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만화축제 즐기세요"

11월 15~17일,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야외무대



◇만화축제는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만화축제 모습.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만화를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선스님)은 11월 15일~17일까지 수련관 앞 야외무대에서 '2002 청소년 만화축제'를 펼친다.

올해로 3번째인 만화축제는 영상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만화를 직접 기획하고 그릴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 야외축제를 비롯해 상설전시와 공모전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11월 16일 양정청소년수련관 앞 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야외축제는 야외 애니메이션 상영회, 유명작가와의 만남, 페이스페인팅, 고적대 및 사물놀이 공연 등의 행사를 실시,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부산예술문화대 학생들의 작품과

애니메이션 상영·페이스페인팅 등
유명작가 작품전시·공모전도 개최

유명 만화작가의 작품 등이 전시되며 청소년 만화동아리들이 부스를 설치,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한다.

축제의 일환으로 일러스트, 캐릭터, 극화, 카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모전도 개최된다. 11월 9일까지 마감인 공모전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상 1명과 우수상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6일 열리는 양외축제에서 거행된다.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선스님은 "기존의 만화축제들이 상업적인 면이 있어 누구나 쉽게 참가하지 못해 이번 축제에서는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며 "이번 축제가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불교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5년만에 마이크 대하니 떨려요"

방송인 이선미씨 BBS초대석 복귀



96, 97년 2년에 걸쳐 방송됐던 'BBS 초대석'은 주로 큰스님을 만나 법문을 듣는 코너였다. 이번 가을 개편에 신설된 'BBS 초대석'은 각계 각층에 종사하는 다양한 원로급 인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비록 대상은 바뀌었지만 이선미씨는 이전 프로그램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이전에 'BBS 초대석'을 진행하면서도 제 불교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포교스피치화법 내 평생 작업

"5년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 떨리네요."

97년 'BBS 초대석'을 마지막으로 방송부스를 떠났던 방송인 이선미씨가 21일 'BBS 초대석' 첫방송을 시작으로 5년여 만에 일선에 복귀했다.

"복귀라는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떠난 적은 한번도 없으니까요. 좋아하는 일이 또 이어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더구나 제가 맡은 'BBS 초대석'은 인터뷰 형식이라 탐나는 코너이기도 하구요."

아쉬움과 걱정을 안고 시작하게 됐어요. 방송 일선을 떠나 있을 때 공부를 좀더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이선미씨는 요즘 〈포교스피치 화법〉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스피치 화법〉은 올 초에 작업을 다 끝내놓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님들에게는 포교스피치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 평생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정기적인 강연의 기회가 생긴다면 전력투구 하고 싶습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명작 비디오 파일

프리퀀시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가 만일 그 때의 사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불가능과 파라독스와 모순이 난무하는 공상과학 영화 '프리퀀시'는 기막힌 착상과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3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무선을 통해 아버지 프랭크를 살린 경찰관 존. 아버지를 살려 놓음으로써 현재는 뒤바뀌어 어머니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아버지가 살아남으로써 무언가를 우리가 최악으로 바꾼거예요." 존의 말처럼 과거를 바꿈으로써 현재의 다른 상황은 확 바뀌어버린다. 과거에서의 행동이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과거현재인과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세 때 보광여래가 교화하는 세계에 선혜선인으로 태어나 출가하여 구도한 인연이 현재 세에 부처로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한다. 이런 인과의 도리는 누구에게나 선택의 여지 없는 필연으로 작용한다.

어머니가 살해당한 과거와 미래를 바꾸기 위해 살인범을 잡으려는 아들과 아버지. 30년의 시공을 넘어 두사람이 동시에 한사람의 살인범과 맞붙어 싸우는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6살에 소방관 아버지를 화재진압사고로 잃었던 존은 아버지의 무전기로 이어진 대화 덕분에 36살이 된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얻게 된다.

과거 현재의 인과가 무엇일까? 길지 않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다.

담배를 끊읍시다

청소년 흡연 '다큐'

한 방송사가 청소년 흡연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MBC는 10월 21~22일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10대, 담배와 18세'는 흡연패턴조사, 폐 기능검사 X레이 검사 등을 받고 담배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세 명의 학생들이 참기 힘든 담배의 유혹과 금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술자리, 노래방 등 흡연 욕구를 참기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전문가에게 들어보았다.

담배 폐해·예방효과 생생히 소개

22일에는 제 2부 '초딩, 금연을 선포하다'에서는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의 사례와 효과를 생생하게 소개했다.

의 한판승부'를 방영했다. 흡연 실태를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흡연문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21일 방영된 제 1부 '담배 탈출,

보리방송문화상 공모

제출마감 11월 15일

보리방송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불스님)가 제10회 보리방송문화상을 공모한다.

시상 내역은 △일반 TV 부문-작품상, 대상, 우수상, △불교 TV 부문-개인상, 공로상 △BBS(불교방송) 부문, 개인상, 연출상, 진행상, 기획상 등이다.

추천대상은 2001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방송된 불교 관련 방송 프로그램으로, 수상작은 11월 30일 발표한다. 제출 마감은 11월 15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추천서(일반 TV 부문), 작품개요서, 추천작 VHS 녹화, 녹음테이프 1개 등이다. 문의 (02) 712-5812~3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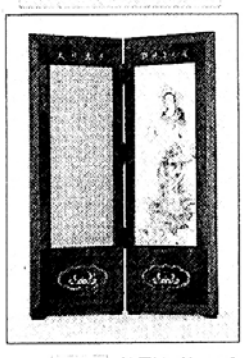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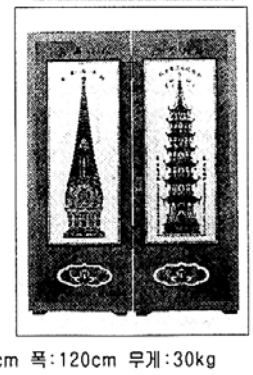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더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국제청소년영화제가 24일~27일까지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관)가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번 영화제에는 불교소재 '나무아미타불 크리스마스' 등 국내 청소년 경쟁부분 33편과 해외 청소년 초청 단편 40여편이 상영됐다.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 음 병 풍

▣ 불탑다라니병풍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느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 공간이든 본 병풍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 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나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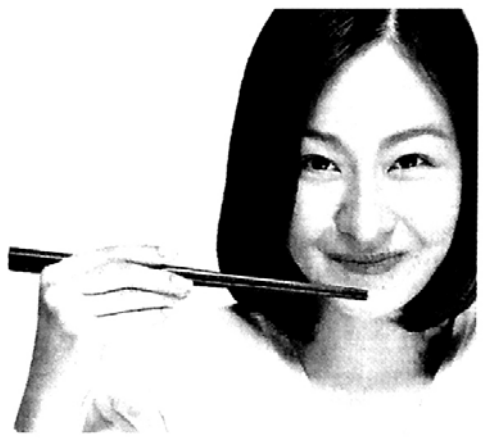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www.dimchae.co.kr

위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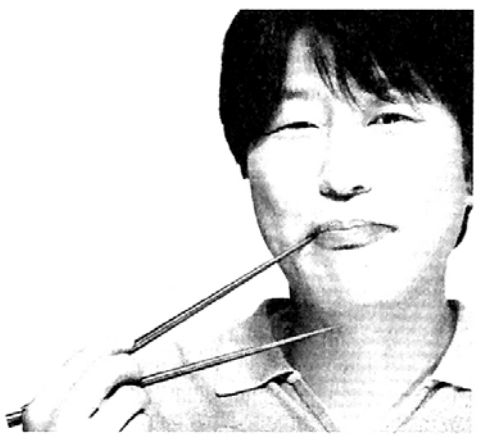
한겨울 김장독에 묻어둔 김치처럼...



매일매일 먹는 김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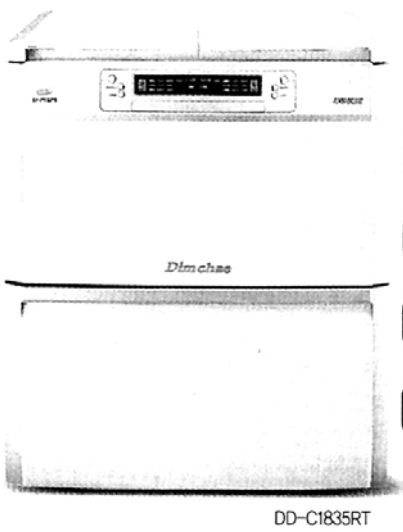
생생하게 오래오래 먹으려면...



김치냉장고는 조금 더 욕심내십시오

따지면 따질수록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김치 맛!
발효과학 딤채로 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겨울 땅속 김장김치 맛이 1년 내내 쭈욱~ 발효과학 딤채



DD-C1835RT

발효과학코스 버튼
단 한번만 누르면 숙성에서 보관까지!

딤채 curver 용기
발효과학으로 만든 최고의 김치용기!

딤채 발효과학 연구실
김치 맛의 최적 조건을 찾아서!

특허 및 전문기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딤채만의 발효과학 기술!

발·효·과·학 딤채

발효과학 딤채 신제품 출시 기념 "발효과학 만세!" 페스티벌

축제1. 맛있는 김장김치 만세!
딤채가 고객님께 총 1억2천만원의 김장비용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02년 9월 ~ 12월(4개월간)
- 대상고객 : 9월~12월 중 딤채 구입 고객
- 지급경품 : 농협상품권 (20만원)
- 추첨방법 : 고객참여카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는 고객님 중, 매월 초 (10월, 11월, 12월, 2003년 1월) 각 150분씩 총 600분을 누적 추첨
- 지급방법 : 매월 초 추첨 후 당첨자 인터넷 공지 및 상품권 등기 발송

축제2. 행복한 선물 만세!
발효과학 딤채를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행복한 선물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02년10월 14일 ~10월 31일
- 94리터 이상 : 바스켓 1개 + 소형 황토용기 2개
- 66리터 이하 : 소형 황토용기 2개
- 빌트인 딤채 (110L) : 소형 황토용기 4개

축제3. 알뜰한 쇼핑 만세!
발효과학 딤채를 구입하시는 고객님께 무이자 할부의 기쁨을 드립니다.
- 행사기간 : 2002년 10월 14일 ~10월 31일
- 신용판매 : 6개월 무이자 (계약금 포함)
- 신용카드 : 5개월 무이자 (국민, 삼성, LG, BC, 외환, 현대, 신한)

*상기 행사는 행사장에 한함

■구입문의 대표전화 (007 위니아콜) : 080-007-0700(수신자 부담)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위니아 전문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서초 방판영업소 : 3475~4600,4611~3 • 구로 방판영업소 : 2102~7500 WINIA 고객상담실 1588-9588 (A/S및 제품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문 상담원과 자동연결 됩니다.) 만도공조(주)